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섬기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0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6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김 복 희

지난 백중날 경주 불국사엘 갔었다. 불국사에선 보름날 탐돌이를 일곱번째 하는 날이란다. 그날따라 하늘에 달이 그 환한 모습을 애교있게 가리면서 자태를 보일듯 말듯 나타났다. 우린 등불을 들고 석가탑 다보탑 주위를 돌고 또 돌았다.

내게 백중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새벽이면 어머님의 염불소리와 향(香) 냄새를 맡으면서 어렴풋이 새벽을 느끼곤 했다.

어머니! 내게 있어서 어머님은 내 모든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시고 없는 지금도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내가 한국적 현대무용을 고집하면서 불교가 우리 문화의 뿌리라는 생각으로 불교적 소재의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님의 그 열성적인 불교에 대한 철학이 내게 잠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딸들만 있는 우리집이었기에 어머님은 나와 함께 살았으며, 10년간 협심증을 앓으셨다. 늘 어머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느끼고 내방으로 건너가서 잠을 잤고 아침이면 항냄새 염불소리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런 어머님이 82년 여름 내가 LA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호텔로 걸려온 전화. "놀라지 마라. 어머님이 운명하셨다." 이 무슨 기가 막힌 일인지….

어머니 안계신 지금…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싸늘하게 갇혀있었고 난 슬픔보다는 장례 절차에 정신이 없었다.

모두 다 어버님과 함께 매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장으로 결정을 했다.

세월이 지날수록 "죄야 나는 죽어서 이산에 안 올란다. 꼭 화장해라" 하셨던 말씀을 들어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산에 계신다.

임종도 못하고 원하셨던 화장도 못해드린 불효가 늘 숙제처럼 남아있다.

돌아가신 그해 10월 나는 어머님을 위해 "호곡"이란 작품을 발표했다. 그것으로 어머님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한국적 현대무용을 고집하고 또 계속할 것이다. 마치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듯….

〈한양대 교수 · 현대무용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업무과중
재정난
교계 무관심

군법사 '三重苦'

현대불교 창간 3주년 '군포교 활성화' 설문

"군법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과 재정난,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본사가 창간 3주년 특별기획으로 9월 한달 동안 현역 군법사 및 예비역군법사 92명을 대상으로 교계최초로 실시한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관련기사 24 · 25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법사들은 월평균 15회의 법회를 봉행하고 13회의 상담, 5회의 위문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군법사 1인당 평균 3개의 법당(10월 1일 현재 군법사는 117명, 군법당은 305동)과 1천3백70여명의 군불자(군불자 16만1천여명)를 관할 · 관리하며 매일 1.1회의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셈이다.

군법사들은 또 포교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관련, 거의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다. 이에따라 1/3여이르는 군법사들이 법회비용을 개인부담(33.1%)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포교원의 올해 군승단 지원예산 4억4천만원 가운데 법당건립비 4억원을 제외한 4천만원만이 군승단 운영비용으로 쓰여 사실상 일선 군법당에까지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군법사들은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몇몇 사람에 한정돼 있으며(60.2%), 9.1%의 응답자들은 원력만 지니고 있을 뿐 군포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밝혀 교계전반의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군법사들은 삼중고 해소를 위해 지역사암과의 협조체제 구축(69.3%), 위덕대의 군승사관성발학교 지정(61.3%), 제도적으로는 군승특별교구 설치(63.6%)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성운 기자〉



◇직지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8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촉구 궐기대회를 열어 '사찰 환경 보존사원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도 벌였다.

직지사·동화사·은해사등 본사 '입장료 폐지' 궐기대회 잇달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하는 조계종 교구본사들의 궐기대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8일 직지사(주지 녹원)는 말사 주지및 신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갖고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찰 토지 제외 △공원입장료 폐지 △총무원장 스님의 성명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 모임의 결의문 지지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궐기대회에서 사찰 환경 수호를 다짐하는 '환경보존 서원문'도 채택한 직지사는 1일부터 법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서명운동에 1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7일에는 불국사(주지 설조)가 말사 주지및 신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9월 22일 발표된 총무원장스님의 대정부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조계종 본사들의 궐기대회는 10일 동화사 11일 은해사로 이어졌다.

특정종교 강요 징계
국방부 '군종 훈령' 제정

국방부는 9일 '군종업무 훈령'을 제정, 각 군에 시달했다. 군종업무의 기본방향을 담은 훈령은 △특정종교 강요자의 징계조치 △인격지도교육 및 초빙강연회 때 선 · 포교 금지 등 모두 9장 33조로 구성됐다. 훈령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육군특수전학교와 논산훈련소 훼불사건 이후 종교편향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훈령 제정을 추진, 조계종과 군승단 등 불교계와 개신교 천주교측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관련기사 2면〉

대선 공명선거 당부
조계종, 본사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2일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는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글'을 작성했다. 총무원은 공문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삼가하고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이 작성한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글'에는 공정한 종교정책의 수립과 농지법 개정, 국도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에관한 정책적 협조사항과 평화적 통일 정책, 도덕성 회복, 경제대책, 환경보존등 13건의 정책 건의사항이 담겼다.

"황룡사지 복원관심"
이회창대표,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7일 신한국당 이회창후보의 예방을 받고 미리 준비한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글'을 전했다.

김대호 감석원의원등 신한국당의원과 당직자 20여명과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후 월주스님을 예방한 이후보는 "경주 황룡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복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월주스님은 "정부가 두 사지의 복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불교계가 복원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복원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철야기도

"참회하는 삶 위한 바람(願) 정진(力)"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행의 상징입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업두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포를 드립니다.

행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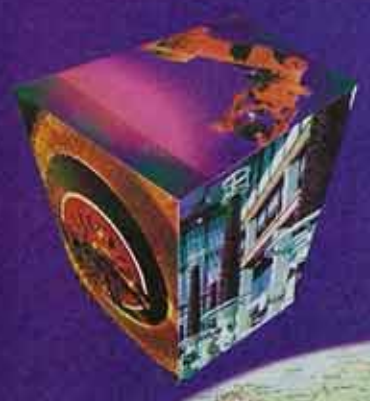
△입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회 향: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동참비: 5천원
△일 정
입재식→5백배씩 하고 10분씩 휴식→지녁공양 간식공양→새벽예불→회향식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따뜻한 겉옷
△접 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21-0631-145(예금주 최상철)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3번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6번, 6-1번을 타고 종점서 하차, 종점 맞은편에 도선사행 절버스 대기.

※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편도 공덕이 된다고 故 백선엽스님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동참원력이 귀하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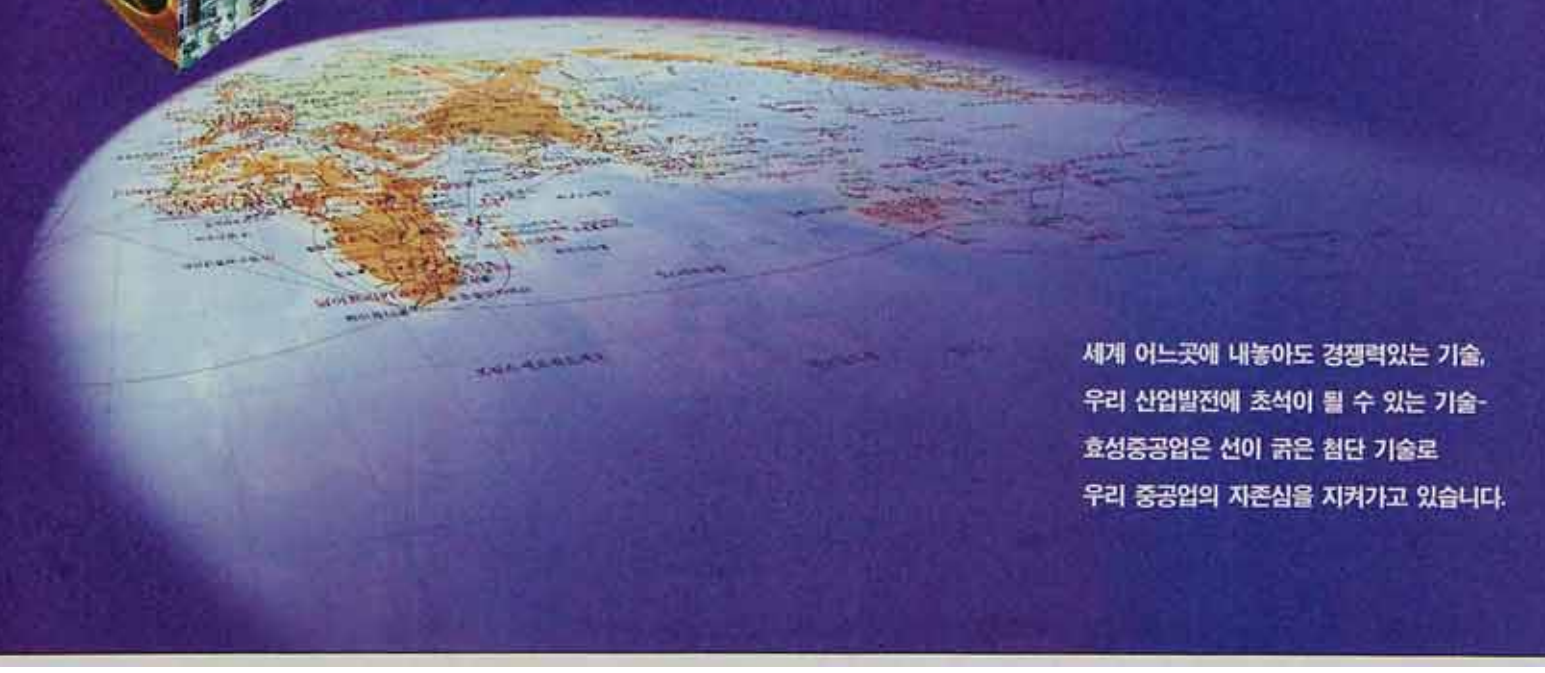
주최: 현대불교신문 · 도선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창간 3 주년 28면 특집 발행

박성배교수 3형제 정담 3면
타종교 예술인 구도작품 6면
유럽에 부는 불교열풍 8면
거조암 5백나한 9면
대선후보 '종교 · 문화관' 17면
北 불교문화재 화보 21면
해외불교대학 22면
거사림회 23면
군포교 설문 24 · 25면
'현대불교' 3년 27면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 - 효성중공업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사업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ttp://www.hico.co.kr

사 설

한국불교 전산화

조계종의 종무행정 전산화작업이 1차 결실을 맺었다. 작년 1월 총무원에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고, 종무행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온지 1년 9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1차 작업은 종단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분야를 전산화한 것이다. 이로써 종단의 수출입과 각 사찰의 예산결산은 물론, 제반 문서를 교환하고 승적을 관리하는 등, 종합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이다.

조계종은 이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단계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것은 중앙의 총무원과 각 본말사를 연결하는 원거리 통신망(WAN)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불교는 21세기 정보화의 성공사례로 떠오를 것이다. 그로부터 얻는 이익은 헤아릴 수 없다. 우선 불교의 현황을 시시각각 파악할 수 있다. 사찰의 보유자산과 유물유적은 물론, 스님들의 신상명세와 신도들의 이력까지가 일목요연해진다.

이 자료는 불교행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예산 집행과 결산 등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전자통신망은 중앙과 본사와 말사 사이의 거리를 좁혀 다양한 의사소통과 의견교환의 장을 열어갈 것이며, 신도들 또한 포교의 객체로서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종단의 일을 이해하고, 발전방향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21세기 불교의 정보화 사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예산이나 문서 인사 관리의 행정 등은 그야말로 기초적인 사업일 뿐이다. 종단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웹서비스를 실시하여 종단의 정보를 일정 부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불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포교의 공간으로 키워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보화 사업에는 종무행정이나 사찰관련의 사판(事判)외에 불교의 교리를 홍보하고 잠재적 신도를 인도하는 이판(理判)의 기능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불교의 유물과 사적을 그래픽으로 알려주고, 교리를 독경승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주며, 위대한 고승들의 전기와 법문을 멀티미디어에 담아 뿌려주는 새로운 포교를 기획해야 한다.

불교는 영상세대와 영상매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불교가 갖고 있는 신화적 제재, 가령 팔상록이나 부처님 일대기, 그리고 화엄이나 천태의 세계관이나 유마나 지장의 보살세계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보고이다. 한국불교는 너무 근엄해서 중관의 메마른 교설과 선의 직절성만 강조할 뿐, 불교유산의 거대한 창고를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 불교는 누가 뭐래도 철학이기보다 종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보화 사업은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불교정보화의 구축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기획해야 한다. 조계종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은 종무행정 전산화 너머, 불교본래의 목적에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불교계는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화와 전산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한창 진행중인 팔만대장경의 전산화와 현대불교신문의 정보센터 '부다피아'도 그 일환이다. 조계종은 이들 개개의 작업을 지원 조정하고, 그 성과를 불교계의 통합 전산망으로 서비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는 거창한 사업이다. 종단의 비전과 의지 못지않게 사업을 위한 예산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불교계의 정보공유화는 범불교계의 지원과 후원이 뒤따라야만 결실을 기약할 수 있다. 사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어린 동참을 촉구한다.

종무행정 전산화 기틀 마련

조계종 99년부터 재무회계 · 신도 관리등 가능

조계종이 추진해 온 종무행정 전산 정보화 작업의 기초프로그램이 완성됐다.

총무원 기획실은 6일 종단 정보화 추진 1차완료 보고회를 갖고 종무전산화 프로그램의 운영시범을 보였다. 고고회에서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이 프로그램이 완성됨으로 조계종 행정 전반에 전산 정보화가 가능케 됐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자료의 체계적 축적 및 업무 표준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이현데이터시스템에 의뢰, 작년부터 개발해 온 전산화 프로그램은 총무원의 사찰관리 승적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10여 업무와 교육원의 행자관리등 4개 업무, 포교원의 각종 포교기관 관리와 신도관리, 중앙종회의 의원과 선거관리등으로 운영된다. 총무원은 각 기관-업무간 상호 열람과 공동 관리가 가능한 이 프로그램을 전국교구본사가 함께 운영토록해 종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총무원은 금년내로 중앙종무기관의 제반 행정을 전산화, 자료를 집합 · 공유 ·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99년까지 데이터 축적을 통한 각종 종무행정의 통계화 작업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종무기관의 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고속디지탈통신망(ISDN)을 통한 업무공조 시스템도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체제의 완비를 통한 전국 사찰의 종무행정 전산정보화는 2001년쯤 가능할 것이란게 조계종의 전망이다.

조계종은 정보화 작업의 기초 시설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업무와 자료를 입력하는등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임연태 기자〉

비구-사미 승복 '다르게'

조계종교육위, 종회상정키로 **기본교육 의무화 '확정'**

앞으로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사미(니)들에게는 승려증 대신 '수학증'이 발급된다. 또 사미(니)들의 모든 법복에는 동정과 소매끝에 밤색띠를 둘러 비구(니)와 구분짓게 된다.

8일 총무원 4층에서 발족식을 가진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무관스님)는 이어 열린 회의에서 사미(니)의제 및 승려 발급증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승려증이 발급되는 현행제도는 행자들의 종단기본교육과정 이수율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승려자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승려증 대신 수학증을 발급함으로써 최소 5년 과정의 기초 · 기본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두루마기, 장삼, 적삼 등 사미(니)의 법복 동정과 소매끝동에 밤색(가사색)을 둘러 비구(니)와 구분키로 했다. 비구(니)와 사미(니)가 구분되지 않고서는 승가의 위의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날 호칭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기초개혁추진위원회는 보성스님(원로의원) 등 9명의 자문위원과 무관스님(계단위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무관스님, 부위원장에 종림스님(종회 총무분과위원), 간사에 밀원스님(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이 각각 선출됐다.

종교편향 억제 · 신앙자유 보장

국방부 '군종업무 훈령' 새 제정 의미

처벌조항 명시…지휘관 종교중립 강화

국방부가 9일 발표한 '군종업무 훈령'은 군내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종교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급 지휘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의 종교선택을 보장토록 하고, 각 종교간 갈등해소를 위해 지휘관은 중립적인 종교관을 견지하고 개종이나 특정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종교를 비방, 폄하, 침해하는 선교 및 포교행위 금지도 명시했다.

또 군 종교시설 건축시 모금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종교별 후원회 등 공식적인 단일창구를 통한 자발적인 시설 건립만을 선별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성구 성물은 인가된 종교시설에만 비치해야 한다. 군내 종교시설의 경쟁적인 건립을 막아 종교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훈령은 또 국방부 군종실장이 '종단협력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군내에서 종교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각 종교대표자가 함께 참여해 사태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교단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육군특수전학교 훼불사건과 관련, 김동진 국방장관은 불교계에 공식사과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군종 발전을 위해 현행 법규를 제 · 개정, 보완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훈령 제정과 관련, 한 군법사는 "군내 종교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교계에서는 군내 종교인구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양질의 군법사 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종업무 훈령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보장과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군의 입장과 취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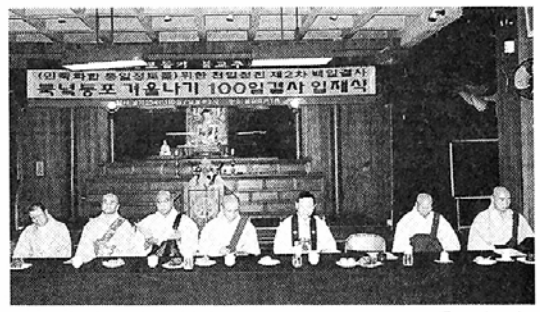
청소년상담실 개설

동국대, 전화 · PC통신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학생생활연구소는 동국 참사랑봉사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일 청소년전화상담실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24시간 PC통신과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청소년전화상담실은 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 대학생들의 종교, 학업문제, 정서 및 성격문제, 진로문제, 교우 및 이성관계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고진호 학생생활연구소장, 곽준규 한국대학생상담학회장 등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뿐만아니라 지역주민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린 북동포돕기 불교추진위 2차 1백일 결사에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등의 종단대표들이 참석, '북녘동포 겨울나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北동포 겨울옷보내기운동 '확산'

식량-의약품과 병행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모금운동에 이어 겨울나기를 위한 '옷 보내기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북녘동포들이 식량난에 따른 영양결핍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겨울옷 보내기 사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불교추진위원회는 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민족화합 통일정토를 위한 천일정진 제2차 1백일 결사 '북녘동포 겨울나기 입재식'을 갖고 식량지원과 의약품 보내기와 함께 겨울나기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02)733-2557

이에앞서 불교운동본부는 6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북한동포 '사랑의 옷 보내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31일까지 겨울용품 1차 접수를 마감, 부산항을 통해 북한 나진-선봉지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02)3672-5373

산철용맹정진 회향

문경 대승사, 납자 39명

경북문경 사불산 대승사(주지 탄공)는 10일 산철3 · 7일 용맹정진을 회향했다. 39명의 납자들은 9월 20일 월탄스님을 선덕(禪德)으로 모시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었다.

산철결재는 여름 · 겨울 안거 이후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계속 수행정진하는 것으로 대승사는 지난해 여름안거 이후부터 세번째 산철 용맹정진을 해오고 있다. 대승사는 지난 9월 입적한 불국사조실 월산스님이 94년 개설한 선원이다.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737-8881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대학서도 위빠사나 교육

창간 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연꽃 한송이의 향기가 퍼져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듯,
바른 수행자의 존재는
이세상의 희망입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老天月下
總務院長 太空月珠

창간 3 주년

인류의 역사는 인간성 상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질문명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성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이제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업보가 되었다. 이같은 시대상이 새로운 세기로 그냥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선도해 가야할 불교가 인간성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불교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승가의 원로인 정조스님(74 석남사주지)과 원로역사학자 박성봉교수(71·경희대 명예교수) 불교학의 세계적 권위자 박성배교수(63 동국대 석좌교수) 3형제의 정담을 통해 들어본다.

업장소멸 생활화 최선의 처방

정조 스님 - 박성봉 교수 - 박성배 교수 "인간성을 회복하자"



◇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정조스님 속가 3형제는 교육환경과 문화가치의 질적 향상, 그리고 수행의 생활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의 길을 제시했다.

박성배: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님: 인간성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인간성과 불성을 달리 생각하지 않아. 온 우주에 충만된 생명이 있으니 그 실상을 바로 보고 깨달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 가르침이 불교거든. 우리도 그 생명의 주인공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의 성품이 바로 인간성인 것이지.

박성봉: 인간이 본래 타고난 몸이나 마음 힘 등을 인간성이라고 통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인간성이란 10세 이전에 가장 순수하게 유지되고 철이들면 이미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성배: 스님의 말씀은 인간성에 대한 불교적 정의로 우주에 편만한 생명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인간성의 구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형님은 육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육체에 담긴 불성-인간성 '하나' …상실원인 '무명'

삼매체험 축적돼야 참성품 드러나

힘을 끄집어 내어 쓰는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두 입장이 서로 다른면이 있는 것 같은데 본래 모순적인 것인지 모순은 아니되 표현이 다른 것인지요.

스님: 불교에서 생사일여(生死一如)니 불이사상(不二思想)이니를 말하듯 그것은 같은 것이라 봐야해. 육체는 마음의 화현이니 말이야.

박성배: 진리의 세계가 둘일 수는 없으나 그것을 생각하고 보는 입장의 차이는 여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인간성 상실의 과정에 대한 반성이 어떻게 되어야할지 이야기 해 보아야겠습니다.

박성봉: 인류가 수렵생활을 할때는 자연과의 공존시대였습니다. 농경시대 이후 인간성의 상실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갖는 자와 덜 갖는 자, 힘이 센 부족과 힘이 약한 부족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인간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정착된 후 5백년 사이에 4대성인이 출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합니다.

박성배: 인간성의 상실이란 가치가 있는쪽이 없는쪽을 지배하려는 형태로 변해가는 삶의 형태를 따라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불교에 세지변총(世智辯聰)이란 말이 있는데 지혜는 있으되 참다운 이치에 따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참다운 지혜의 성품을 갖추었으면서도 현실에 매몰돼 인간성을 상실해 온 것입니다.

스님: 인간성의 상실이란 바로 무명업식과 탐진치로 인해 스스로 몽매한 업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박성배: 스님, 무명업식이나 탐진치는 산업혁명이나 농경사회 이전의 인류에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스님: 물론 그렇지. 농경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발현되고 사회구조를 따라 극대화 되어 온 것이지. 그러니까 현재의 위기상황은 단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한 업보라는 거야. 불성이란 불생불멸이지만 업식으로 인해 가려지거든. 그것이 무명 아닌가. 우리의 인간성도 무명업식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상실되어 온 것이야.

박성봉: 자연적인 삶에서의 악조건을 극복하려는 노력, 즉 불의 발견을 최초의 잘못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2의 불인 전기와 제3의 불인 원자력으로 발전되며 인간성의 피폐화 상실화가 함께 지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박성배: 최근 발생한 박나리양 유괴살인 사건은 인간성 상실의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사건은 반드시 범인 전(全)모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바싹 붙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본래 선과 악이 없다고 가르치거든. 환경의 차이에서 그것이 선으로 혹은 악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성적인 힘이 어느쪽으로 기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야.

박성봉: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기준을 권력이나 금력에 두는한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유지되고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상과 문화 종교의 생활을 부각시키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 경악스런 사건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성배: 아무리 궁핍한 처지에서라도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간성의 근본인데 이제는 '못할 짓이 없는' 처지에 너무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이 바로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는 원동력일텐데 말입니다.

스님: 앞에서 무명업식과 탐진치를 얘기했지. 바로 그런 업보에 의해 상실의 현상이 심화된다고 보거든.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거야. 그러므로 중단없는 교육과 훈련 다시말해 수행의 힘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선덕을 길러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답은 바로 '삼매'에서 찾을 수 있어. 삼매란 선도 악도 구분이 없는 본래 불성의 자리 곧 인간성의 가장 맑은 자리라 할 수 있거든. 그러한 삼매의 체험이 일상화된 세상을 열반세계라 하지.

박성배: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스님께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불교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스님: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란 말을 불자들은 들었을 거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지 않거든. 나는 믿음의 삶, 다시말해 자신의 참된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들이 조화를 이루어 내는 삶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을 불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박성배: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인구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보다 더 종교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돈벌이를 위해 믿거나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믿는, 종교를 생활수단화 하는 그릇된 현상마저도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인간이 도구화되고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일원화된 현실에서 종교인(불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반성하는데서 종교의 교육적 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살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보다 현실화하고 그런 기회의 제공도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박성봉: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 하는데도 '몇점부터 몇점까지는 어느대학 무슨과'라는 식으로 규격적인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박성배: 이미 우리는 한국의 교육은 역사관과 철학성이 결여된 것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육도 배우는 자에게나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 똑같은 수행입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 역사관과 사회의식을 바로 심는 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종교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재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말씀하신 '삼매를 통한 열반세계의 구현' 같은 교육을 현대교육에서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불교가 그 몫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호처럼 수행의 생활화를 외치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지 않고는 삼매를 통한 인간성 회복 역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수행의 생활화라든가 교육이란 인간의 사고방식을 부처님의 그것에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성봉: 종교가 사회 역사에 생산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절에서 한문교육을 수준높게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문화를 유지하는 힘을 불교가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당대의 유능한 인재가 찾아드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 불교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종교야. 합장인사가 의미하는 하심(下心)의 도만 알아도 범죄는 없어질 것 아니겠나. 바루공양의 정신만 지켜도 환경문제는 더 이상 비화되지 않을 것이고, 물론 불교 내부적으로도 보다 철저한 수행과 열린의식으로 사회를 구제할 역량을 구축해야 해. 이 모든 것이 수행의 생활화거든.

박성배: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고 그 깨침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깨침을 위한 순간순간의 깨어짐이 가능하도록 수행 정진이 따라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참다운 인간의 세계, 다시말해 불성의 생명력이 충만된 세상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 사진=고영배 기자



정조 스님

· 1924년 전남 보성출생 ·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전강스님 은사로 사미계 구산스님 계사로 비구계수지 · 인천 용화사 송광사 태안사 등서 참선정진 · 화순 만연사 주지 역임

下心의 道만 알아도 범죄 없어질텐데…



박성봉 교수

· 1927년생 · 고려대 사학과졸 · 경희대서 문학박사학위 · 경희대 국사과 교수, 전통문화 연구소장 역임. 한국사상사학회 경기사학회 한국고서연구회등 회장 · 〈고구려 남진발전사〉 〈민족한국사〉등저서 논문다수

'자리이타'의 삶 가치관 혼돈 막는 길



박성배 교수

· 1933년생 동국대 철학과및 同대학원졸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서 불교학 박사학위 · 현재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한국학과장및 한국학시리즈및 학술지(한국사상) 편집장 · 〈불교신앙과 돈오사상〉등 저서 논문다수

종교의 교육기능 강화 부처님 닮도록 이끌자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새시대 한마음

신나는 政治
신바람 經濟
따뜻한 社會

불국정토의 구현

민주당 民主黨 總裁 趙 淳



교차로

北돕기 성금 천만원 전달



설조 불국사 주지는 8일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 '겨울나기 캠페인'에 불국사에서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 보육시설 체육대회



동광 혜명보육원 이사장 스님은 19일 同보육원에서 서울시내 보육시설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서운스님 부도 제막식



장윤 전등사주지는 23일 서운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부도제막식을 봉행한다.

무애원 법당 기공식



설봉 강화 무애원 주지는 15일 오전11시 법당 기공식을 갖는다.

복지재단설립 작품전

지현 부산 관음사 주지는 환희장학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소장작품전을 6~20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연다.

하버드대 연구마치고 귀국



해주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스님은 美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 교환교수 소임을 마치고 9월 초 귀국, 2학기 강의를 시작했다.

불교방송 다보법회서 법문



증범 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은 22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최되는 10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북성사 부처님 점안법회



지범 제주 북성사주지 스님은 12일 부처님 점안법회와 지역내 독거·불우 노인들을 초청, 경로 잔치를 봉행했다.

강남서 경승실 1돌 법회

범일 강남경찰서 경승실장(강남 봉은사 법사)은 9일 법당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원 사무국장에



법성 서울 보현정사 스님은 6일자로 조계종 포교원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법성스님은 83년 혜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지난 6월 대만 보인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월간 '미술대상' 학술상 받아



진홍섭 前 문화재위원장은 제2회 월간 미술대상(학술 평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리는선우 6돌 기념법회

남지심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18일 오전11시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 및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가피·구도·제도' 강의



윤원철 서울대교수(종교학)는 18일 성철 선사상 연구원(원장 목정배) 백련불교 아카데미에서 '가피·구도·제도'를 주제로 강연한다.

'낙동강 사랑음악회' 열어

김용태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총장은 남녀공학 전환및 교명 개칭을 계기로 15일 교내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낙동강 사랑음악회'를 연다.

만해기념관 관장 맡아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만해사상연구소장 〈사진 위〉)와 김재홍교수(경희대·만해사상실천선양회 상임대표)가 1일자로 백담사내 만해기념관 관장과 교육원 원장에 각각 선임됐다.



아르헨 조각가 다큐멘트 참가



박찬갑 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조각가)은 11~19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조각가 다큐멘트에 초대돼 8일 출국했다.

'오케스트라 아시아' 상임지휘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중앙대 음대교수)는 1일 '오케스트라 아시아' 초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했다. '오케스트라 아시아'는 93년 한국-일본-중국의 전통음악인 80여명의 참여, 구성된 다국적 악단이다.



직지사 상임포교사 맡아



염석훈 법사(조계종 포교사단 부산 경남 부단장)는 직지사 상임포교사로 9일 29일 부임했다.



덕진스님 '맨발 국토순례'

덕진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은 9일 임진각 망배단앞에서 제3회 맨발국토순례고행 입제식을 갖고,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덕진스님은 국도를 따라 수원 평택 천안 신탄진 대전 영동 김천 구미 대구 울산을 거쳐 31일 부산역 광장에 도착, 회향법회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덕진스님을 비롯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하며 각 지역에서 북녘 동포돕기 노천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맨발국토순례에 앞서 덕진스님은 "한발한발 걸을때마다 한민족의 사랑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서원하겠다"고 말했다. 〈근〉

"못다한 恨 푸세요" 영혼 결혼식



Focus

"영가의 몸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성(自性)은 이자리에 참석하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세상에서 가졌던 원망 미련 집착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여 이승에서 못다받은 명과 복을 다음생에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설산스님)가 7일 홍은동 백련사 극락보전에서 개최한 KAL기 희생자 영혼결혼식및 천도재.

50여명의 유가족들의 흐느낌속에 주례로 나선 설산스님은 이같이 말하며 영혼결혼식을 올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영혼결혼식 및 천도재는 지난 8월 괌에서 KAL기 추락으로 희생된 김윤미(女) 양성철(男)영가를 비롯한 6쌍이 주인공. 의식은 성혼의식과 주례사 발원문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인권관련 법회·상담 등 실시"

종단협 인권위원장 혜공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분과위원회가 1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가운데 태고종 혜공스님(태고종 총무원 재무부장)이 진두지휘를 맡고 실무에 들어갔다.

위원장 혜공스님은 "타종교계가 70년대부터 국민대중의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운동을 펴며 그 종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반면 불교계는 조계-태고분규 등의 내부 문제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면서 "인권법회, 인권강좌, 인권상담, 법률구조 지원, 국제인권기구와의 연대 등을 통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중의 힘이 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인권위는 명실상부한 종단협의체의 분과로써 공신력은 물론 재정과 사무, 행정국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불교계 인권운동이 일천한 만큼 교계 내외 인권단체의 사업내용 및 성과 등을 사전 조사·분석해 사업방향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원회는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 외에도 과거 불교계 및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을 재조사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불심홍법원 이사장 하도명화 보살

"시대 맞는 대중불교운동 전개"



지난 3일 불심홍법원 이사장에 취임한 하도명화보살(본명 하말분, 74세)은 "불자 양성과 불교문화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하이사장은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 부산불교신도회 상임부회장, 부산불교실업인회 이사, 불심홍법원 이사 등을 거쳐오면서 50여년 동안 한결같은 신심으로 포교에 전념해 왔다.

"지난 88년창립한 불심홍법원이 해오던 사업들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앞으로의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는 하이사장은 "불교청소년단체 및 불교지도자 지원, 군포교, 해운대 야외법회장 운영, 홍법바라밀제 등 활동을 벌여 대중불교운동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불법홍포 방안 연구와 고민을 계속하면서 남은 여생을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게시판

♣ 인사

문화체육부=이사관승진 △종무관 박명규 △청소년 심의관 정진우 △관광국장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 최영복

♣ 알림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위한 대바지회=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무의탁 독거노인과 불우아동들의 겨울준비를 위한 대바자회를 31일~11월 1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02)920-3410

간병인 교육=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20~24일 주부 및 50세이상 성인 대상 간병인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02)734-4447

♣ 강좌

불전연구=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한문·산스크리트어·빠리어·티벳어 불전연구 2학기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18일부터. (02)765-9602

민족불교학당=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제18기 민족불교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 주제는 '민족불교,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강료 3만원. (02)720-1902

♣ 답사

선종산문 순례=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18일 '선종산문 삼사(三寺) 순례'를 실시, 태안사, 쌍봉사, 보림사를 답사한다. 회비 2만5천원. (062)228-9098

♣ 모집

자원봉사자=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불편한 노인의 수발과 말벗상대가 돼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무료급식 후원자=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식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 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매주 월~금요일(오전10시~12시)까지 주1회. (02)458-1664

독거노인 후원자=대구 동화사 불교사회복지관(회장 지도스님)는 17일 만성질환 독거노인 온천관광을 도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후원금 1구좌 6천원. (053)427-1907

♣ 화촉

박병근 부산불교방송 보도국 기자가 11일 부산 국제문화센터에서 정미향씨와 화촉을 밝혔다.

♣ 이전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회(촌장 법전스님)는 신림1동에서 신림6동 391-9번지로 이전했다. (02)873-6646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000원 △김민규 500,000원 △유애경 361,590원 △이순주 340,000원 △이효섭 300,000원 △백국육 200,000원 △우양희 200,000원 △최민철 150,000원 △김선자 100,000원 △김재은 100,000원 △박미숙 100,000원 △이기향 100,000원 △유성현 100,000원 △이순희 85,000원 △대성스님 50,000원 △박문수항 50,000원 △정해숙 50,000원 △김수40,000원 △윤남용 4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2,168,000원 △밥한공기 나누기 461,590원 〈8일 현재 총 834,231,644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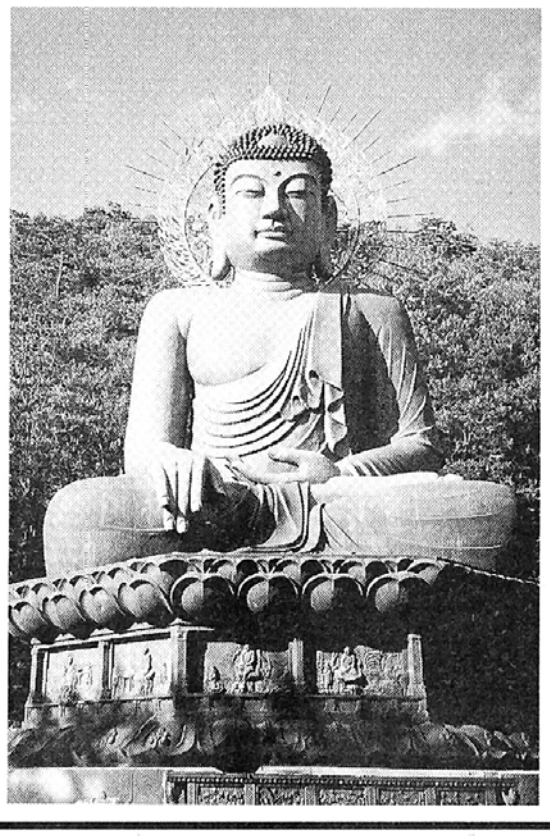
봉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 점안대법회 축

모시는 글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에서는 11년간의 공정으로 설악산 신흥사 일주문앞에 통일대불을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단의 원로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점안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스러운 불사에 동참 하셔서 봉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 시 - 불기 2541년 10월 25일(양력) 오전 11시
■ 장 소 - 설악산 신흥사 입구 통일대불전
■ 문 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
신흥사종무소 ☎ 0392)636-7044
■ 서울지역동참불자 문의 및 접수 - 용진항공여행사
☎ 02)279-1191~3
(낙산사, 홍련암도 참배예정)



봉행위원회

증 명 : 월하스님. 서옹스님. 혜암스님
회 주 : 무산스님
자문위원 : 황수영(전동국대총장).홍윤식(문화예술대학원장).정영호(교원대박물관장).김정기(한림대교수)
총 감 수 : 월주스님. 무산스님. 김천일. 지홍스님
위 원 장 :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스님
봉행위원 : 지원.청화.영도.해장.마근.도견.문석.태연.자도.설웅.홍천.현각.원담.태진.덕현.녹담.종범.행련.종오.운정.종호.정현.적멸.묘근.
일원.정념.상초.우현.정묵스님(무순)
김노언.윤두옥.최세영.정재수.박용열.조선자.최상길.최종남.최순금.김미숙.변만순.
박삼손.윤영철.김 진.최화철.김용달.이진호.
김황란.최삼선.안영이.박화영.김계양.
전숙녀.황일선.조형상.정도일(무순)



◇강원산업불자회는 쇳물처럼 열성적으로, 강철처럼 굳센 의지로 직장 불교를 일궈내고 있다. 하루 3교대 근무로 몸은 피곤하지만 매월 두번의 정기법회를 통해 심신을 정화하면서 보살행도 두텁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창립법회 장면.

"삭막한 직장 즐겁게" 자비향 피워

탐방 강원산업불자회

강철불심 100여명 산고끝 올 4월 창립
백혈병 동료자녀 살리기 앞장도

철근 철도레일등을 생산, 철강산업의 역군으로 인정받는 강원산업(포항시 송내동 444)이 지난 4월 오랜 산고 끝에 불자회를 탄생시켰다.

강원산업불자회(회장 고형규·47)가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강철만큼 단단하고 변함없는 모임을 제련해내겠다는 의도다. 3월8일부터 1박2일간 비학산 법광사에서 성공적인 창립을 다짐하는 철야정진법회도 가졌다.

현재 회원수는 1백여명. 전직원 2천5백여명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지만 잠재력은 무궁하다. 철강이 주는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슬로건은 '밝은직장 향기로운 사회'로 정했다.

강원산업의 근로자들은 하루3교대 24시간 상주근무를 한다. 용광로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되기 때문. 따라서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란 하늘의 별따기지만 의욕은 용광로의 쇳물만큼 뜨겁기만 하다.

회원들은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어사(주지 하나)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동·하기수련대회와 성지순례를 갖는다. 초창기에는 오어사외에 죽림사 운용사 법광사 등으로 옮겨다니며 법회를 가졌으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은 오어사에서만 한다. 이를 위해 회원 모두 오어사 신도로 등록하는 열성을 보였다.

지난 6월에는 가족법회를 성공적으로 봉행했고 8월에는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직장동료의 자녀인 현정양(24) 돕기에 앞장섰다. 진흙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산업사회의 삭막한 굴레속에서도 선행을 통해 훈훈한 불향(佛香)을 피우고 있는것.

회원들의 당면과제는 사내에 동아리방을 갖는 것이다. 산업현장 가까이에 도량을 마련함으로써 불교의 생활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강회장은 "포항직장불교협의회의 결성을 구상중"이라며 "본회를 중량감있는 모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항=이윤호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서울대병원 수계법회

서울대병원직원불자회(회장 조보연, 지도법사 은진스님)는 18일 오후2시 본원 지하 A강당에서 전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을 수계법사로 창립 10주년 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9월1일부터 1천배 기도와 교리시험을 거치며 신심을 쌓아온 회원 115여명과 환자 2백여명이 이날 보살5계를 받고 거듭나게 된다. (02)760-3176

하이텔 철연회 전국모임

하이텔불교동호회내 장애법우와 봉사자들의 모인인 철연회(회장 이승덕, 지도법사 정진스님)는 11, 12일 신탄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에서 후반기 전국모임을 가졌다. 100여명의 회원들은 레크리에이션 촛불관음탑돌이, 캠프화이어 등의 행사를 통해 우정과 불심을 다졌다. (02)498-8887

소쩍새마을 경로잔치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은 3일 지역노인 1백여명을 초청하여 제2회 소쩍새마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박성옥 무용단의 부채춤 검무 소고춤 등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의 공연과 할아버지·할머니 한마당행사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권기록교수와 서울 고려치과의원 김성문원장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맑고 향기…' 환경캠페인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19일 서울 관악산 계곡에서 쓰레기를 모으는등 전국적으로 환경캠페인을 벌인다.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12일 낙동강연등제에서 행사장 정리 봉사를, 19일 금정산에서 환경캠페인을 펼친다. 경남모임(본부장 전말선)은 8~14일까지 전국체전이 열린 창원공설운동장 주변을 청소했다. (02)741-4696

봉은불교대 총동문 수련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스님) 불교대학총동문회는 25, 26일 1박2일간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일대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25일 9시 봉은사서 출발. (02)547-7831

제주대불련 집체극 공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김보탐)는 창립 34주년을 맞아 3일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집체극 '마음을·세상을·자연을-맑고 향기롭게'를 선보였다. '마음을…'은 각박한 사회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경시와 환경오염에 대해 여러 각도로 조명한 것.

수원불교학생회 환경정화

수원지역 불교학생회 지도자연합회(회장 허인선)는 26일 수원지역 초·중·고 불교학생회 청소년불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성곽순례 및 환경정화활동을 갖는다. (0331) 252-9560



◇7일 명성여고 학부모들이 이원주교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칭찬으로 자녀의 꿈 키워줘야"

명성여고 수심회 첫 불교강의 수업

"여러분은 미래의 부처를 낳고 기르는 보살이예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칭찬으로 꿈을 키워주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정교사가 되어 주세요."

7일 오전 종립동국학원 명성여고(교장 이원주) 교정의 수실당. 불교어머니회 수심회(총회장 김옥산) 회원들과 학부모 50여명은 교법사 출신인 이원주교장의 '불교의 교육관'을 주제로 한 강의를 교육생 입장에서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날 강의는 명성여교가 '열린교육'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한 '불교교리 강좌'(총 8회)의 첫 강좌. 가정과 학교에서의 자녀교육을 예화와 비유를 통해 불교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하다보니 연신 웃음이 끊어지지 않을만큼 반응이 좋았다.

강좌는 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계속 열린다. (02)452-8655

"기도는 자기성찰 기회"

광명선원 천일기도 회향

"기도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천일기도 정진중 순간순간의 유혹이 뒤따랐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오늘 회향할 수 있게돼 기쁩니다."

5일 천일기도 회향법회(사진)를 봉행한 초격스님(광명선원 주지)



은 천일기도 회향의 감회를 이렇게 말했다. 이어 월운스님은 "천일기도 회향을 시금석으로 정진수행에 더욱더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선사조실 운경스님을 비롯 봉선사주지 밀운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산악인련 수행도량 낙성



3일 안동 약산 흥은사에서 열린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 지정수행도량 낙성대법회 및 발대식에는 불자산악인 3천5백여명이 참석, '청정 불국토 건설'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 태고종총무원장 인곡, 동국대정각원장 법산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 부산의국어대 박봉식총장 등 동회 고문단(법산스님은 제외)과 창건주 손현수회장, 부회장단 등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은해사 훈할머니 환영법회



캄보디아 일본군 위안부 훈할머니 환영법회가 4일 오전 대구 은해사에서 열렸다.

경산 개인택시 불자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은해사에 도착한 훈할머니는 "그립던 조국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고싶다"고 인사했다.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문제가 반드시 이뤄지길 서원한다"며 "훈할머니가 고국의 품에서 가족과 못다한 정을 나눌수 있도록 돕겠다"고 법문했다. 〈윤〉



월주스님 화갑기념 문집 봉정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화갑기념 문집과 논문집 봉정식이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석주·탄성·녹원·지관·설정스님과 각 종단 스님을 비롯 각계인사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관스님·고건총리·고은시인의 축사, 도영 금산사주지와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논문집봉정의 순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조계종 제도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생명나눔실천회 장기기증자 천도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사후육신을 공양한 장기기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재를 8일 예산 수덕사에서 개최했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천도재는 94년 각막과 시신을 기증한 故김치언씨에서부터 96년 각막을 기증한 수견스님, 97년 7월 각막을 기증한 故이유기보살까지 13위의 장기기증자 영가를 천도했다.



한국불교硏-美 UCLA 자매결연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8일 미국 UCLA대학 부설 한국학연구소(소장 로버트 버스웰)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한국불교硏과 한국학硏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불교전적 영역 △불교문화 소개 △국제학술세미나 등의 공동 작업을 통해 양국 학술교류의 창을 확대할 방침이다. UCLA 한국학연구소는 보조국사 지눌스님, 원효스님 등의 전적을 주로 연구·번역하는 학술단체.



경불련 불교시민대학 개강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스님) 제1회 불교시민대학 개강법회가 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법회에서 설조스님은 "지혜는 여유를 만들고 여유는 바른 힘을 낳게 되며 힘은 나와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며 "살아있는 불교, 함께사는 세상을 여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 명 서

해인총림의 청정가풍 회복과 교육도량 정립을 위하여

해인총림은 총림개설 이후 여러 문중에 의해 운영되어온 원융화합의 도량이다. 원융화합의 정신이 퇴색할 때는 산중의 원로스님들과 대중의 요청으로 시정되었으니 원융산림의 구현은 해인총림의 특징이요 장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융산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총림개설 이후 해인사는 문중사찰, 지역을 뛰어넘는 종단 최대 최고의 수행 교육도량으로 자리잡으면서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얼굴이 되었다.

해인총림은 지난해(1996년) 사중운영에 있어 화합과 원융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엄청난 내홍을 겪은 뒤 원융화합을 기약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출범하였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사중 운영자들은 수행풍토의 진작과 승가교육의 진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지 아니하고 가람불사를 빙자한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등 총림운영 방향을 잘못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각종 주요 불사 및 종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대중의 공론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임회의 주요 종책결의사항을 무시하는 등 졸속하고도 파행적인 종무행정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성철 큰스님 사리탑 조성이다. 사리탑 건립부지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임회의 결의(1995년 3월, 총부지 108평 이내로 할 것)를 무시하고 주지가 일방적으로 1,000평을 사용하겠다고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를 관계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확인 결과 종무소 주지 직인사용부에도 명기되지 않았음)

현재 진행중인 성철 큰스님 대형 사리탑 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진 사리탑의 조형 형태가 현대적 문화재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천년고찰의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둘째, 1,000평 이상의 부지를 차지하는 대형 사리탑은 불교사에도 유례가 없는 지나친 호화사리탑으로서 불교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청빈한 가풍을 보이셨던 성철 큰스님의 뜻에도 어긋난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부지 일대는 사중의 비림구역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일대는 해인사의 많은 원로대덕과 재적승들의 부도가 안치되어야 하는데 특정스님의 사리탑이 지나치게 대형화된다면 형평성에 위배된다.

넷째, 현행 국가법령에서도 개인묘지를 20평 이내로 하고 있으며, 현재 9평으로 줄이는 것을 입법예고할 정도로 분묘축소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무소유를 내세우는 불교계에서 대형호화 사리탑을 조성하는 일은 세인의 지탄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대적인 모금을 통해서 수십억원대의 삼보정재를 호화 사리탑 조성에 사용한다면 큰스님께서 평소 시주은혜를 지는 것을 경계한 뜻에 위배되며, 지나친 사업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사리탑 규모를 대형화하는 과정이 사중 임회 결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리탑 조성 공사에 이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년(1997년) 년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박물관, 만불전(국제회의장),수련원, 연구소 등과 다실, 매점 등의 부대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이다. 이는 현 사중 운영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해인사 창건 1200주년(서기 2002년)을 맞아 추진하는 소위 제2의 해인사 건립이다. 약 2만평 가까운 부지에 신앙, 포교, 문화, 수익 공간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불사는 박물관 건립비용 약 8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320억원을 상회하는 대작불사로서 10년에 걸쳐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작불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불사의 타당성 및 제반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밀실행정으로 졸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1997년 1월은 현 주지스님이 취임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 이 사업의 졸속성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 정도의 사업 규모라면 반드시 대중의 공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요, 또한 임회나 각종 회의체, 전문가들에게 그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케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인총림은 정화불사와 총림 개설 이후 수행 및 교육도량으로서 사부대중과 국민대중의 존경과 귀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해인사 선원에는 구참납자의 발길이 끊기고, 해인총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불교의 선풍이 침체하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한국불교의 도제양성의 최고 교육기관인 해인강원은 전통교육 고수라는 미명하에 그 교육내용, 교수진 문제, 시설 환경, 운영과 관리감독 시스템, 예산문제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과거 70년대보다 낙후되어 세기가 전환되는 문명의 격변기에 속불혜명 건법교화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

율원 또한 사중의 의도적 방치로 낙후되어 있고, 경학과 불교사상의 전문적 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 도입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행과 교육의 문제가 공동화되어 피폐한 현실인데 총림의 행정담당자가 수행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저버리고 가람불사를 빙자한 개발수익사업에 몰두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불사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10년간 종무소 소임자들은 300억원대의 예산수급 이외에는 어떤 관심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중 예산은 긴축하여 이 불사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불사와 종책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들릴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박물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상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소규모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점으로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사 내용 또한 부실이 우려되는 점이다.

넷째, 공사낙찰자를 따낸 지방의 건설회사 사장이 공사의 정부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지방의 정부여당의 모 국회의원의 수하 사람이라는 점이 종교와 정치가 재정을 빌미로 유착하고 있다는 험의를 받는다는 점이다.

다섯째, 박물관 공사를 포함한 이 초등학교 불사의 기획입안, 추진과정 등 일체가 특정한 한 스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의 설계, 예산수급 및 집행, 공사진행과정의 점검 및 수정, 감리 및 감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중의 중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법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재정에 름의를 일으켜 사중의 정제를받은 스님에게 일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업자를 끌어들여 천년성지 해인사 경내지 산중에 약 3만기의 유골을 던처할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영창이 위치하는 산중에는 묘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래의 관행인데, 하물며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성지에 대규모 납골당을 건립한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다. 또, 600억원대의 수익사업일을 내세우는 사중 행정책임자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종무회의의 진지한 검토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회의 공식 결의가 있기도 전에 지난 7월부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1997년 8월 임회에서도 여러 원로 중진스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무시하고 업무추진상 보안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와 계약조건을 검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다수의 종무소 국장스님들도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대중스님들이 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 그 추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 엄청난 사실은 외부업자를 끌어들여 추진하는 이 납골당 건립사업에 대해 임회의 결의와 종단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와 계약을 맺기도 전에 주지스님이 금품을 수수하여 현재 납골당 관련 토목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종헌 종법상의 불법 종무집행일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법령에도 저촉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 종무소 책임자의 무지와 경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사중의 행정 책임자는 종무운영의 방향착오와 엄청난 행정적 과실로 인해 해인총림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해인총림을 수행과 교육도량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해인사 재적승과 해인승가대학(강원) 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우리 상림회는 해인총림을 아끼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 우리의 주장 ■

1. 우리 상림회는 해인총림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수행과 교육문제에 집중시켜 종단 최고의 인재양성 도량으로 정립하는 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해인사의 현 종무책임자는 도제양성을 소홀히 한 채 추진하는 대형건축불사와 각종 개발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형질 변경한 자연환경을 원상복구하라.
3. 종무책임자는 성철큰스님 사리탑 조성공사 과정에서 임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임의로 1,000평 이상의 부지를 사용하도록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 중지와 부지를 원상회복할 것이며, 임회의 결의와 대중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해당 부지 일대를 원로대덕과 평대중의 부도를 법도에 맞게 안치할 비림을 조성하라.
4. 구 초등학교 불사(박물관, 만불전, 수련원, 연구소 등)를 전면 중지하고, 그 구체적 사업계획과 공사 관련 인허가 사항, 제정 및 각종 계약 사항을 총림 대중에게 공개하라.
5. 해인사 산중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할 것이며, 중단 승인과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한 자료의 내역을 공개하라.
6. 주지 이하 종무 소임자는 해인사를 불법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 이상의 모든 시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7. 방장스님께서는 현재의 해인사 문제를 수습하여 바로 잡고, 해인사가 수행과 교육중심 도량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산중의 중진스님, 재적승, 해인동문들로 구성된 '해인총림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1(1997)년 10월 7일

상림회 공동의장 원학, 향적, 여연

타종교 예술가

불교에서 한국인 원형탐구

문학·그림·조각·사진등 장르 다양
최인호·정채봉·김대벽·유광상씨등
불교의 문화가치 작품속에 녹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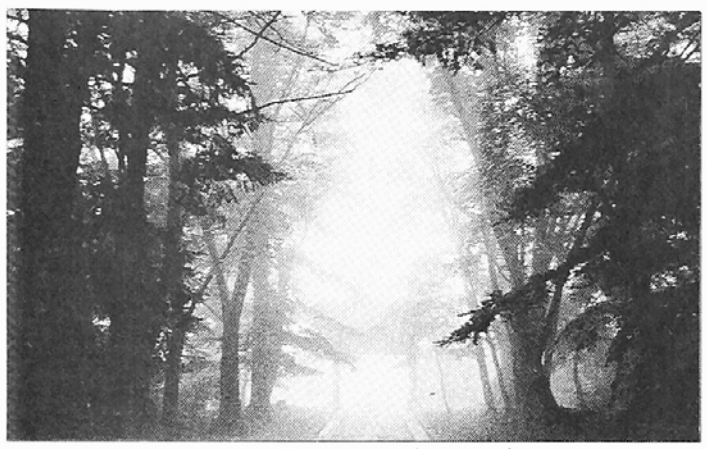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의 오랜 전통과 심오한 사상에 깊이 매료돼 불교를 소재로 예술활동을 벌여오며 나름대로의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타종교 예술가들이 있다.

종교가 다름에도 불교를 즐겨 소재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서양문화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사회 전반을 장악한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과 원형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코 만나지는 것이 불교이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향기에 감싸여 작품속에 녹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교를 종교라는 차원보다는 민족 정서의 원형 또는 본질로 이해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소설가 최인호, 시인 정호승, 동화작가 정채봉, 한국화가 유광상·두시영, 조각가 유영교, 성악가 조풍상, 사진작가 김대벽 주명덕씨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인호씨


◇정채봉씨


◇김대벽씨


◇사진작가 주명덕씨의 작품 '해인사 입구'.

근대불교 선종의 중흥조 경허스님을 모델로 한 장편소설 〈길 없는 길〉의 작가 최인호(52)씨. 그는 스스로를 '불교적 가톨릭주의자'라고 표현한다. "하나의 진리가 서양에서는 가톨릭으로 동양에서는 불교로 나타났다"는게 그의 지론. 불교는 곧 우리 민족의 원형질을 형성하는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의 작품에 불교의 향기가 배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의 이러한 견해는 소설 〈왕도의 비밀〉〈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등에 녹아 있다.

7년간의 산고끝에 발표해 올해 시 부문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의 작가 정호승(47)시인. 역시 가톨릭 신자인 그의 작품 〈사랑하다가…〉 등에서는 불교의 선적 경지가 짙게 드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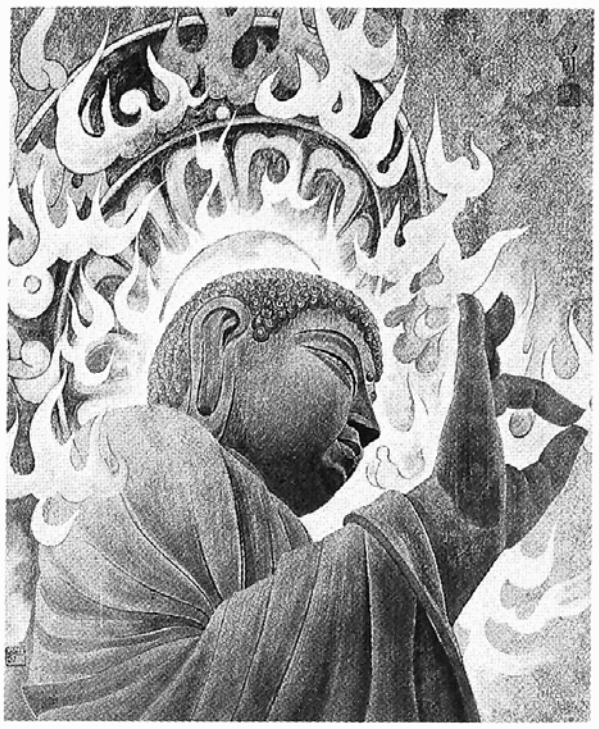
〈멀리가는 향기〉〈꽃그늘 환한 물〉〈오세암〉 등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펴내고 있는 정채봉(51)씨의 작품을 살펴보면 혹시 불자가 아닐까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도 가톨릭신자로 "한국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교는 종교를 초월한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작품의 소재가 된다"고 말한다. 대표작 〈오세암〉은 어렸을때 할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절의 이미지를 소재로 그지없이 맑으면서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천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인 화가 유광상(48)씨는 대한성공회 신도. 20년전부터 불상을 주 소재로 그림을 그려온 유씨는 "세계속에서 한국적인 예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선 우리만의 독특한 소재를 찾아야 하며 그것은 불교로 귀결"된다는 것. 유씨는 불교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 불교통신대학까지 수료했다.

민족미술협의회 대표를 지낸 화가 두시영(48)씨는 종교가 가톨릭이지만 불자미술가들의 모임인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크다. 지난해 운주사 천불천탑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한 바 있는 그는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이 공동 참여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적 반가사유상을 발표해 관심을 모아온 조각가 유영교씨도 가톨릭 신자.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식 조각보다 우리 것을 소재로 한 조각에 훨씬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좋은 소재를 얻기 위해 경주 석굴암이나 남산등의 불상들을 자주 보러다닌다.

테너 조풍상(57·前 효성여대 교수)씨는 묘심스님에게 음악을 가르친 인연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어 '도량송' '법구경' 등 찬불가도 작곡하고 불교음악회에서 연주했다. 역시 가톨릭 신자인 그는 "큰 스님들이나 문화유산, 참선 등에 관심이 많다"면서 불교음악회에서 초청하면 기꺼이 참여한다고 말한다.


◇대한성공회 신도인 한국화가 유광상씨의 작품 '천안 각원사 좌불상'.

성철스님 사진으로 특히 유명한 사진작가 주명덕(58)씨. 3대째 내려온 개신교집안이지만 그는 사찰에 가고 스님들과 교류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 주명덕씨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되었다"는 입장. 해인사 사진을 주로 찍어온 그는 대표작으로 〈벽화로 보는 불교이야기〉등을 냈다.

안암교회 장로인 사진작가 김대벽(68)씨는 송광사 중창불사 사진 등 송광사와 인연이 깊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불상이나 탑 등 불교 조각에 스며있는 깊은 종교심을 느낄 수 있기에 내 사진에서 '더 불가적(佛家的)'이라는 평을 종종 듣는다"고 말한다. 김대벽씨는 〈사원건축〉〈문화재대관〉 등 문화재 관련 작품집을 여러권 냈다.

이경숙·강지연 기자

"렌즈에 비친 한국불교 연구"

美서 불교사진 논문 석사학위 **류영수**씨



"처음엔 중국사회인 차이나타운을 주제로 잡았는데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속내용을 잘 모르고 겉모습만 찍게되니 주위사람들도 사진에서 깊이를 느낄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우연히 샌프란시스코 보림사의 선우스님을'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할 사진주제구나' 느끼고 그때부터 미국내 한국불교에 매달린 것이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Academy Of Art College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류영수(32)씨는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게 불교사진을 주제로 논문을 써 화제다. 그의 석사논문과 사진전 제목은 '나무아미타불'.

미국내 한국포교당인 보림사의 주지 선우스님과 신도들의 활동을 통해 기독교국가인 미국에서의 한국불교가 교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포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선우스님의 개인적 수행도 다큐멘터리로 담았다.

'나무아미타불'展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한국불교에 대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고 작은 포교라도 한 것같아 인상깊었다고 하는 류영수씨는 '불교'를 주제로 한 사진다큐멘터리를 평생 작업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류씨는 내년 4월 강남 포토갤러리에서 '나무아미타불' 사진전을 갖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순회전도 계획하고 있다. 〈숙〉

발해불교유물 사리19과 발견

中 흑룡강성 영안서

중국 흑룡강성 영안(寧安)시에서 최근 발해(698~926년)의 최고급 불교유물로 평가되는 사리 19개가 발견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사리는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의 도성 유적지인 발해(渤海)진 백묘자(白廟子)촌에서 지난 8월말 마을주민들이 길을 닦던 도중 발견, 현지 문화재당국에 보고함으로써 발굴된 것이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돌합 목칠함 구리합 금도금함 은합 금함 유리함 등 7중으로 된 사리함 속에 담겨 있는 사리는 우유빛을 띠고 있으며 지름 1㎝안팎의 큰 것에서부터 수수알만큼 작은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사리함 가운데 목칠함은 조각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녹이 잔뜩 슨 구리함의 크기는 가로 14㎝, 세로 7.2㎝, 높이 9㎝였다.

발굴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사리들이 타원형에 표면이 반들반들한 것으로 보아 사람의 손에 의해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라니경 보존비결 '지질 때문'

밀도 높고 알칼로이드성분 세균번식 막아

한-일 공동연구

현존 최고의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126호)이 1천2백여년 동안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질이 밀도가 매우 높고, 모르핀 니코틴 등 알칼로이드 성분을 이용해 세균과 벌레를 막았던 최고급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지난 89년부터 일본 교토(京都)박물관내 종이류 보존처리기관인 '오카복코도(岡墨光堂)'의 전문기술진과 공동으로 첨단장비를 이용, 다라니경에 사용된 종이를 정밀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닥나무 껍질의 섬유질로 만든 다라니경의 종이는 밀도가 제작당시인 8세기의 일본종이에 비해 2배나 높게 측정됐다는 것. 나무망치로 두들겨 밀도를 높이는 도침(搗砧)과 묵주 등을 굴려 두께를 고르고 광택이 나도록 하는 마연(磨硏) 등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다. 또 알카로이드가 함유돼 있는 황벽나무열매에서 채취한 황색색소를 바른 착색지이기 때문에 벌레나 세균을 막고 먹의 번짐을 차단하는 한편 향내를 풍겨 종이의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존의 비결. 박물관측은 "대개 종이가 1백년도 안돼 부식되는데 반해 이 종이는 1천2백여년의 세월을 견뎌냈다"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급지"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문화 소식

전수천 설치작품전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아온 설치작가 전수천씨가 15일부터 29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02-724-6328)에서 '인간의 사고와 사유의 체계'를 주제로 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작품들은 죽어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본 모티브로 한 5점의 대형 설치작품과 20여점의 평면작업이 선보인다.

'직지' 소재 노래가사 공모

청주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을 주제로 한 노래가사를 공모한다.

현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직지 찾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모를 통해 채택된 가사는 전문 작곡가에게 의뢰, 노래를 만들고 유명대중 가수를 통해 음반으로 취입한 후 5천여개의 테이프를 제작 전국에 보급해 직지 찾기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일연성사 학술회의

일연학연구원(원장 법타스님)은 19일 영천 은해사에서 일연성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지준도씨(경산문화연구소 연구원)가 '삼국유사와 불교사상' 진열스님(동국대 강사)이 '일연성사의 생애와 사상' 조춘호교수(경산대)가 '일연성사와 인각사'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보리방송문화상 공모

불국토와 보리방송모니터회는 공동으로 전 방송사를 대상으로 올해 한해 등안 제작방송된 불교관련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우수작품에 대한 제5회 보리방송문화상을 공모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불교문화 계승 창달과 불교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작품에 대해 시상하며 추천서 작품개요서 추천작 녹화테이프 등을 갖춰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712-5812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열린마음
열린가람

혼자이어서 더욱 쓸쓸한 사람들
혼자가 아니어서 쓸쓸하지 않은 사람들
황량한 삶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에게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따뜻이 손내밀고 싶은 가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열 린 가 람
난 승 합장

10월 행사 안내

일 시	행 사 내 용	비 고
10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설립기념법회	
	이동목욕차량 '신나는 목욕탕' 시 연 회	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 이동 목욕 서비스 차량
	운흥사 창건 기념비 제막식	
	노인 무료 합동 결혼식	60세 이상 노인부부 11쌍 각종 결혼서비스 및 제주도 신혼여행
	경 로 잔 치	포항시 거주 노인 5백명 초청 국악인 초청 공연
10월 19일 ~26일	무료 양료원 "정애원" 건립을 위한 도자기 전시회	위치:포항시 청하면 청계리 건축예정: 98년 무의탁노인 50명 수용
10월 26일	보살계수계법회	고산 큰스님
	무료 양료원 건립 성취 기원 만등불사	

사회복지법인 열 린 가 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0562)44-3222, 48-6165~6

"부처님 가르침 통해 '삶의 지침' 배우고 싶다"

실용불서 다양화 '독자 요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침을 얻고자 하는 불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보다 다양한 실용불서가 요구되고 있다.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 불자들이 맞부닥치게 되는 문제도 개인신행생활의 문제에서 경제, 교육, 환경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불교적 가르침과 접목시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세분화 된 실용불서들이 출간돼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출간된 불교실용서로는 〈부처님과 여성들〉 〈불교의 여성론〉 〈부처님과 여인들〉 등 여성분야, 〈선체조 108〉 〈몸에 좋은 부처님의학〉 〈불교의학〉 〈참선과 건강호흡〉 등 건강, 〈과학과 불교〉 〈과학과 불교의 실재인식〉 〈불교임상심리학〉 등 인접학문분야, 〈불가의 상장의례〉, 〈간병봉사의 이론과 실제〉, 〈직장인의 신앙생활〉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등이 있지만 아직 단편적이거나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용불서의 활발한 출판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불교포교의 초석이다. 사진은 지금까지 나온 불교관련 실용불서들.

기존책들 여성·건강·경제 등 한정
자녀교육·노사관계 등 세분화 필요

이러한 가운데 올봄 출간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가 경제경영의 문제를 부처님의 무궁무진한 가르침으로 풀어내 불자기업인들과 경영학도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기도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로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등이 불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교육, 청년기의 방황, 사랑과 결혼, 부부생활, 부모역할, 상담, 노사관계 등 계층별, 세대별, 직종별로 세분화된 구체적인 실용불서가 출간돼야 한다.

타종교의 경우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분화 된 실용서적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다. 자녀교육시리즈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지침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137가지 조언〉,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를 위한 부부생활지침서 〈아내가 바라는 남편〉, 부부 가족 친구사이에 친밀함을 키우는 법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비결〉, 열린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위한 〈예배기획 행사기획〉, 지혜로운 자녀교육법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교육에 달려있다〉, 〈경건한 남성 따뜻한 아버지〉 등 제목만 봐도 한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책들이 출간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실용불서 출간 활성화에 대해 교계 출판사들은 한결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불서 출판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교계풍토와 필자선정의 문제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특히 불교의 현대화 사회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사 개인의 힘만으로는 다양한 실용불서의 출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계출판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팔만사천 부처님의 법문속에는 생활 속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화하고 사회화 하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불자들이 생활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 쓴 실용불서 활성화라는 방편을 통해 불자들의 불서읽기 저변확대는 물론 보다 다양화 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불교포교의 초석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



◇부단한 사회활동을 통한 깨달음의 사회화에 매진해온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화갑기념 논총 문집 〈보살사상·보살정로〉.

"보살사상으로 사회정화 하자"

월주스님 화갑논총 '…보살정로' 출간

수행의 터전을 이 사회대중과 불이(不二)한 곳에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많은 단체의 책임을 맡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국민의식을 전환시키는 수연불사(隨緣佛事)를 실천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태공 월주스님이 화갑기념 논총문집 〈보살사상·보살정로〉를 출간했다.

이번 기념논총문집은 지난해 맞은 화갑을 계기로 스님이 걸어온 자취를 돌아보고 세간에 스님의 가르침을 회향하고자 하는 문도들과 불자들이 뜻을 모아 출간한 것.

지나친 물질문명의 숭배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황폐해지는 오늘날의 문제를 보살사상으로 해결하려는 원력이 담겨있다.

제1권 논총 〈보살사상(菩薩思想)〉에는 이재창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신라시대 사원의 성전에 대한 고찰'을 필두로 국내외 석학 26명의 논문을 수록했다. 특히 〈화엄경의 보살도에 대한 고찰〉 〈대반야경에 나타난 보살의 의미〉 〈법화경의 보살사상〉 〈대승보살도의 기본으로서의 반야바라밀〉등 다수의 경전사에 나타난 보살사상을 살펴보고 보살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해 한국불교의 사회운동 또한 보살사상으로 회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권 문집 〈보살정로(菩薩正路)〉는 월주스님의 법문과 각종 행사나 각 일간지·월간지 등에 실렸던 연설 대담 등을 부문별로 정리했다.

또한 부록 '깨달음의 사회와 운동'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돼 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한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 정리해 놓았다.

한편 월주스님의 화갑기념논총문집 출판기념법회는 7일 오후 6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봉행됐다.

법문·기고문 등 정리
석학 26명 논문 수록

도선국사 진면목 '한눈에'

불교전기문화硏 고승총서 '도선국사' 발간



신라말 후삼국의 변혁기를 살다간 풍수지리설의 비조이며, 옥룡산문을 열어 '말없는 가운데 설해진다'는 무설설 무법법의 종지로 동리산 선풍을 이은 선승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 연구서 〈도선국사〉(불교영상 刊)가 출간됐다.

불교전기문화연구소(소장 최석환)가 역대고승총서 여섯 번째 권으로 펴낸 이 책은 풍수지리설의 비조라 하여 불교교단에서는 외면돼 온 도선국사의 진면목을 밝혀 선사로서의 면모를 뚜렷히 하고 선승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자료추적등 일련의 작업을 거쳤다.

따라서 이 책은 풍수지리의 대가가 아닌 선승 도선에 일관된 초점을 맞춰 동리산문의 하나인 옥룡산문을 일으킨 도선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도선 관련 연구자들이 총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도선 창건 사찰 100여개를 현장답사를 통해 발로 쓴 것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제1,2장에서는 도선관련 유적지 현장 기행과 김지견 박사와 박희선씨가 도선의 사상을 집중조명해 도선국사의 위상을 정립했다. 제3, 4장에서는 최창조, 최병헌, 서윤길교수등이 도선의 비보사상(裨補思想)과 생애에 대해 논했다. 제5장 도선관련 유적유물에서는 옥룡사 및 도선관련 폐사지에 대한 글을 실었으며, 제6장에서는 도선사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를 사단법인 한배달 학술위원 박현씨가 논했다. 제8장은 도선과 관련된 각종 전설을 채록해 실었으며, 특히 제7, 9장은 도선관련 문헌을 한문원전과 함께 번역해 실어 도선연구의 기초적 사료를 총망라했다. 또한 부록편에서는 도선관계 연구문헌 목록을 실었다.

어린이 불교교양지
'연꽃' 새 단장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어린이 종합불교교양잡지 증보판 〈연꽃〉(발행인 조정관) 10월호가 선보였다.

〈동쪽나라〉 폐간이후 조계종 후원으로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제작된 〈연꽃〉은 이번호에서 요일마다 주제가 있는 설법을 담은 편집으로 어린이불자들이 하루하루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음으로 읽는 만화, 영어로 듣는 말씀, 컴퓨터의 세계 등 어린이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읽을 거리를 준비했다. 2천5백원.

마음의 눈으로 본 미영순박사 여행기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절을 찾아 절과 얽힌 여러인간의 이야기들을 나름의 느낌과 감성으로 풀어내면서 대자연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넣는 작업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흑룡강대학 정치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미영순박사(50)는 자신이 펴낸 사찰여행기 〈새벽산사에 가보세요〉(시공사 刊)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은 미박사가 지난 91년부터 전국 각지의 사찰 30여곳을 여행하면서 틈틈이 일기형식으로 남겨놓은 글과 그림들을 모은 것이다.

경기여고 2학년때 실명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맞닥뜨린후 30년 동안 그 시련과 맞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한 미박사는 아직도 쌍안경을 통해서만 겨우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미박사가 바라보는 세상은 보통사람들의 시선과는 사뭇다르다. 미박사는 이 책에서 사찰의 풍경사진대신 자신의 쌍안경으로 본 세상을 한 폭의 그림으로 정성스럽게 그려 넣어 여느 여행기와는 다른 맛을 느끼게 하고, 때론 날카로운 시각으로 새삼 우리를 반성케 하기도 한다. 〈은〉

출판가소식

'문화유산' 코너 마련
책방 여시아문, 10월 특선

책방 여시아문이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는 주제로 10월 한달동안 문화유산 특별코너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절 알고 찾기'를 위한 〈절을 찾아서〉 〈봉은사지〉 등 사찰사지관련서와 '불교미술 알기'를 도와주는 〈실크로드 미술〉 〈한국의 불교미술〉 등 미술관련서, '우리문화 읽기'를 주도해 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3〉 〈우리문화 이웃문화〉 등 불교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관련서들이 전시 판매된다. (02)737-0695

'혼자서 기도하는 법'
법현스님, 무료배포

불교레크리에션포교회 회장 법현스님이 〈혼자서 기도하는 법(관음기도)〉을 펴냈다. '기도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평소 불자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발간된 이 책은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또 마음과 입으로, 3업투성(三業投誠)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한다. 스님은 이번 관음기도편에 이어 앞으로 지장기도, 약사기도, 신중기도 등데 대한 책을 계속 펴 낼 계획이다. 이 책은 무료로 배포된다. (02)914-3558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2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불교입문	포 교 원	조계종출판사
5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6	금강경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7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8	인연(작은책)	서 정 주	민 족 사
9	괴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림
10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낫 한	한 민

구입문의:(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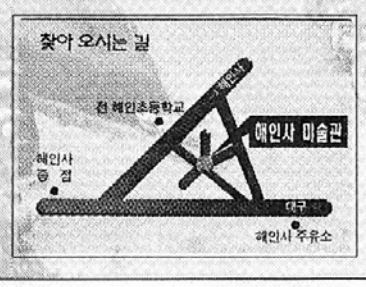
· 10月 10日 ·

해인사 미술관

귀의 삼보하옵고…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가야산에서 그동안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향후 우리문화와 교육의 요람이 될 「해인사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개관기념 『큰스님 특별전』을 개최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망하옵니다.



● 미술관 구조 ●
1층: 도예교실
2층: 한식당
● 미술관
● 초계대광대탈 전시실

찾아 오시는 길


● 개관기념 큰스님특별전 ●
선서화및서찰 등70여점

구하경청월석일…



구산중성환송수…

해인사 미술관 ● 주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전화 : (0599)31-8778 · 31-9846 ● 관장 : 性 空 합장

"유일신 한계…親인간적 진리 매료"

유럽사회 왜 불교열풍 일까

창간 3 주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유럽인들이 불교에 매혹당하고 있다. 이제 유럽 곳곳에서 조깅바지 차림으로 동그란 방석 위에 올라앉아 책상다리를 한 채 벽을 마주보며 참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 불고 있는 불교열풍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현황과 한국불교의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신도 1500만명…禪센터 중심 신행
티벳불교 강세…한국불교 '가능성'

원인과 현황

유럽인들이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종교로서가 아닌 학문적 차원이었다. 유럽 각국은 불경을 번역하거나 불교철학과 인도학을 연구하는 등 신비로운 동양사상의 실체를 벗기려는 학문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인들은 유일신만을 강조하며 독선적 입장을 취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상대적 진리를 존중하는 불교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은 불교의 진정한 매력은 생활속에 녹아들 수 있는 친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사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허무주의와 공허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모순이 자신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자신의 정화를 위해 참선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또 물질지향주의와 소비생산성 위주의 생활방식에서 탈피하길 원한다. 그래서 금욕과 절제를 권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다.

사회의 '불교바람' 현상에 대해 유럽기후와 유럽인들의 철학적·사색적 정서가 불교의 교리나 수행법과 맞아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어쩌면 이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불교에 접목, 자신들의 불교로 변형, 발전시킬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불교가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한 때는 1800년대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불교인구는 1995년 영국 브리태니커사전에 따르면 1천5백만 정도로 6개 대륙중 아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유럽에서 불교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두 나라의 불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며, 사찰건립이 계속되는 등 하나의 종교로서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다.

영국불교도협회와 런던불교도협회가 결성돼 있는 영국에는 티벳, 인도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태국, 스리랑카 등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찰로는 89년 연화사가 개원해 활동하고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1980년대초 본격적인 불교활동이 시작된 폴란드에서는 티벳불교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결합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불교는 바르샤바의 도암사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 법당과 참선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1930년대 불교를 받아들인 체코 역시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스리랑카, 일본불교도 진출해 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관음회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미약한 실정이다.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Zen)센터 중심의 불교활동이 왕성하며,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곳에서 한국불교는 티벳이나 대만, 베트남, 일본불교 등에 비해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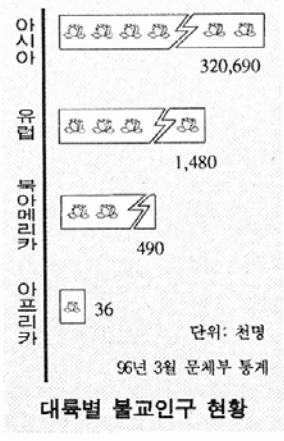


◇오늘날 유럽인들이 불교에 쏟는 관심과 진지한 구도열은 동양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유럽불교의 꽃이 필 날도 멀지 않는 듯 하다. 사진은 체코인들이 법당에 모여 법회를 열고 있는 모습.

한국불교의 포교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치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불교가 해외포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60년대부터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문화체육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한국불교가 진출해 있는 유럽국가로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체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 스위스 등 17개국이며, 포교사 수는 모두 76명으로 집계됐다.



대륙별 불교인구 현황

해외포교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종단의 체계적 지원과 인재양성이 꼽힌다. 그동안의 해외포교는 몇몇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진행됐을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위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불교뿐만 아니라 그나라의 언어, 문화와 관습등을 제대로 아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그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의식이나 설법 등 포교방법 개발과 한국불교를 담은 출판물을 통한 홍보, 국내교단에서 해외 순회법회나 공연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등도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명우 기자

"보살승 중심 신행 기대"

美 버스웰교수가 말하는 '미국내 한국불교'



UCLA 부설 '한국학 연구소' 소장 로버트 버스웰교수(UCLA대 불교학)가 8일 '미국에서의 한국불교 포교 동향과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전문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한국불교는 중국·일본불교보다 늦은 1970년대 미국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현재 다양한 불교전통이 공존하는 미국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특징은 '점진적 포교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제임스 그레이슨(英)이 〈한국의 초기 불교와 기독교: 종교의 전파 이식 연구〉에서 지적한 '접촉→이식→침투→성장과 경쟁→문화적 우위성 점유'의 단계를 거치는 긍정적인 포교 과정이다. 이것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는 한국불교가 앞으로 한층 발전할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접촉→이식→침투→성장

긍정적 포교과정 밟아

한국계 사찰은 LA,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 사찰을 맡고 있는 한국 스님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사찰 주변의 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적인 한국불교의 상징은 '보살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 신자의 탄생이라고 본다. '보살승'이란 세속의 직업을 가진 재가 신도와 철저하게 수행하는 출가스님의 삶을 결합한 형태의 삶을 사는 불자를 지칭한다.

이것은 한국불교가 전통적인 비구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종교 단체의 일반적인 활동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불교가 미국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포교 영역을 넓혀가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욱〉

美 대중문화 불교장르 '뚜렷'

영화·미디어·팝 등에 불교소재 확산



13일자로 발행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표지제목으로 'Buddhism'을 붉은 서체로 크게 올리고,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의 주연 배우인 브레드피트를 표지인물로 내세웠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정열'을 주제로 불교가 미국사회에 어떻게 용해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중에는 1988년 이후 영어로 불교교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4백30개에서 1천62개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담겨있다. 불교가 영화, 각종 미디어, 팝문화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시류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개봉을 앞둔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은 미물(微物)과 공(空)에 관한 얘기를 통해 불교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티베트에서의 7년'에서 브래드 피트가 "보잘것없는 벌레도 전생에 당신 모친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쿤둔'은 색즉시공의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티베트의 테러' '티베트의 정열'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 5편이 제작중에 있다.

시트콤 '달마와 그렉'이 인기를 끌고 있는가하면 광고에 스님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참선을 통해 불도를 배우고 있으며, 라디오·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교를 접하고 있다.

미국에 중·장년층은 이제 불교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있다.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은 불교로부터 정신적 위안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불교는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귀의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프랑스의 불교

4명중 1명 윤회론 믿어
30여 대학에 불교관련 연구소

'불교신자의 물결'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은 2백만명'…. 프랑스 언론들이 심심찮게 커버스토리로 올리고 있는 제목들이다. '20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놀랄만한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불교신도의 증가는 최근 몇년 사이에 두드러지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프랑스 사회에 불기 시작한 불교바람은 가톨릭 국가로서는 보기드문 60단의 신도와 프랑스인 4명중 1명이 불교의 인과응보와 윤회를 믿는다는 '믿지못할' 조사결과를 받아들 정도로 거센 물결을 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30여 대학에 불교·인도학 연구소를 두고 있을 정도로 불교학연구는 유럽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불교관련 출판도 가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종교관련 서적의 10%다. 인터넷서점인 아마존 사이트를 검색하면 불교관련서적 1천2백여권정도를 찾을 수 있다. 지난 4월 출간된 철학자 아버지와 승려 아들의 대화록인 〈승려와 철학자〉는 자비의 진실된 의미와 윤회 등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대해 던지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불교는 한마디로 티벳불교로 표현된다. 달라이라마의 인기는 세계 최고의 대중스타들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한국불교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93년 최초의 한국사찰 길상사가 파리근교 토르시에서 개원했을 뿐이다.

독일의 불교

소도시마다 선센터 개설
불경원전 연구 '세계일류'

독일은 유럽에서 단연 으뜸가는 선불교국가로 지칭된다. 1백여개가 넘는 선(Zen)센터가 소도시 구석구석까지 문을 열고 있다. 종교에 관계없이 선센터는 독일인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4만5천명의 불교신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 선도 많이 보급돼 있으며, 태국,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의 동남아 소승불교도 활발한 편이다.

독일 역시 프랑스 못지 않게 불교학 연구가 활발하다. 20여개 대학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불경원전연구는 세계 일류 수준으로 꼽힌다. 출판 역시 매년 20여권 이상의 불교관련서적이 나올 정도로 활발하다.

독일불교연합, 사단법인 베를린 불교협회, 불교의 집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참선, 용맹정진, 불교관계서적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가 연중무휴로 열리고 있으며, 강연, 대담, 세미나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베를린의 홍법원(현 총지사)과 보문사, 브레멘의 광법사 뒤셀도르프의 한마음선원 등 한국사찰은 한국의 선불교에 관심이 있는 독일인과 교포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진출한지 불과 7년여밖에 되지 않아 한국불교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다.

한 · 단 · 기 · 획

세계최초 오백아라한 성상으로 제작된

'98 새해 달력



· 가로×세로/30×610cm
· 4도 칼라
· 제본/13장 PVC Holder
· 주문/기본 500부
· 1부당 가격/W1,200
· 타지역 우송료 별도

★ 글 : 동곡 일타큰스님
★ 사진 : 오 명 숙
★ 제작 : 한단기획

자비로 접수하여 주시는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지성 귀의하옵니다.
그동안 저희 한단기획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98년 새해 달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불기 2542년 달력은 팔공산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제14호)에 모시고 있는 526의 나한성상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실어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최초 오백나한님의 모습을 담은 이 달력의 표지에는동곡일타 큰스님께서 오백나한님을 찬탄하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학계의 자료가 되고 불교 달력에 큰 획이 될 오백아라한 98년 달력에 여러 대덕스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한단기획이 되겠습니다.

한단기획 대표 박 현 상 합장

200여년전 영파큰스님 친필로 제작되었던

「오백성중청문책자」 재현

· 가로×세로/37×50cm
200여년전 영파큰스님께서 쓰신 5백성중청문책자가 거조암 영산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나한님을 모신 사찰이나 문화관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한지를 사용하여 원본과 똑같이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 한정주문판매: 200권
● 가 격 : W70,0000

■ 주 문 처 ■

한단기획 출판제작부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3-48번지

전화 : 053)255-8612 FAX : 256-8672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 733-3900



새 단장 거조암 5백나한

"지친 삶 어루만지며 정토 염원하신다"

박장대소하거나
턱괸 채 사색하고
소라를 부는 모습 등
가지각색의 표정
우리가 가야할
진리의 세계
넌지시 보여주는듯

절에는 표정이 있다.

대부분의 절에서는 불보살님들의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과 사천왕들의 험상궂은 표정을 볼 수있다. 그리고 영산전이나 응진전 나한전이 있는 절에서는 나한님들의 다양한 표정을 만나게 된다.

나한님들의 표정. 그것은 절이기 보다는 시골마을 정자나무 아래서나 노인정의 장기판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들의 표정에 가깝다. 박장대소를 하거나 턱을 괸채 사색을 하는 표정, 양볼에 바람을 잔뜩 넣은채 소라를 부는 모습, 혹은 호랑이를 타고 있거나 염주를 늘어뜨리고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는 모습. 어느 한 분도 같은 모습과 표정이 없지만 모두가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나한님들은 왜 그렇게 재미있는 표정으로 거기에 계시는 걸까. 경북 영천 거조암에 가면 그 답을 알게된다. 신라때 청화화상이 신통력을 발휘해 하룻밤 동안 조성했다는 거조암 오백나한.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편안함이다. 존자들의 편안한 자세와 표정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케 해준다. 아라한의 경상심과 중생의 평상심이 둘이 아님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 일깨움이야말로 나한님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거조암은 신라 효성왕2년(738) 원참도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경덕왕때 왕명으로 창건됐다는 설이있다. 진평왕 13년 혜림법사와 법화화상이 영산전을 건립 5백나한을 봉안함으로써 나한도량으로 이름이 나게됐다.

한재 폐허로 방치됐다가 고려말 명나라의 대목 진춘근에 의해 중창된 거조암 영산전(1375년 국보 제14호)은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10미터의 장방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전 수덕사 대웅전과 더불어 고려시대 목조건물로 가치가 높다. 중앙에는 석가여래 삼존불이 그 뒤에는 영산회상도가 봉안되어 있고 좌우로 5백26나한이 봉안되어 있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존상들은 대개 50㎏에서 80㎏의 무게다. 사람의 몸무게와 비슷한 것인데 높이는 50㎝ 정도여서 사람의 앉은키 보다는 작다.

이제 거조암(주지 혜해)은 우리나라 나한신앙의 새로운 터를 다지고 있다. 6백년이 넘으며 쇄락한 영산전 중창불사의 회향을 앞두고 대규모 나한재를 준비하고 있다. 95년 오백나한의 명호가 적힌 〈오백성문청문〉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영산전의 중창불사는 11월에 회향된다.

흔치않게 나한을 주불로 모신 도량 거조암이 준비하고 있는 나한재는 이미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불사다. 나한재는 16나한재와 5백나한재로 나뉘어 봉행되지만 큰 차이가 없다. 전통적인 나한재의 절차는 나한을 의식도량으로 청하는 봉청(奉請)과 공양을 권하는 근공(勤供) 그리고 여러 기원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거조암은 영산전 중창의 회향에 맞춰 7일간 재를 올릴 계획이다. 매일 70여분의 나한님을 새로 단장된 영산전으로 이운하며 만발삼종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3종공양이란 쌀과 꽃 그리고 동전(지폐)을 올리는 것. 공양과 함께 동참자들은 나한님께 절을 올리며 소원을 빌게 된다.



◇작년 8월부터 10억원을 투입해 복원중인 거조암 영산전. 나한좌대의 설치만 남겨놓은 이 복원공사가 11월 완성되면 7일간의 나한재가 열린다.

나한이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한 성자를 줄여 부르는 것이다. 아라한과는 소승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법이다. 그래서 나한님들은 탐속의 자재함과 신통력을 지닌 모습으로 표현되며 근엄하거나 엄숙한 보다는 해학적이고 인간적인 정취를 가득 지니게 되었다. 속탈의 이상화된 존엄과 인간적인 면모의 조화가 바로 나한상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라한은 다른 이름으로 응공(應供) 응진(應眞) 살적(殺賊) 불생(不生)이라고도 불린다. 응공이란 아라한과를 증득했으니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진리에 도달했으니 응진이다. 또 수행의 적인 온갖 번뇌를 다 물리쳤으니 살적이고 해탈하여 다시 태어남이 없으니 불생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한신앙이 받들어진 것은 가야시대부터다. 〈삼국유사〉제2권 가락국기에는 수로왕이 도읍을 정할때 "이 땅은 협소하기가 여뀌잎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여 가히 16나한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그 근거다. 나한신앙은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했는데 왕이 직접 나한재를 주관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나한상을 주불로 모시는 사찰도 많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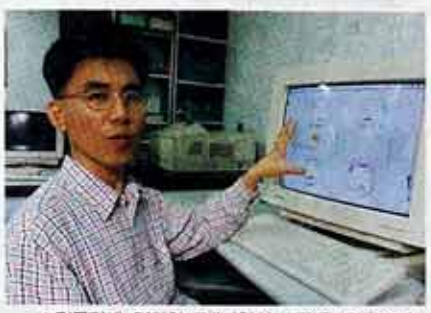
나한님들은 일반적으로 영산전이나 응진전 나한전에 16나한 18나한 5백나한으로 나누어 봉안된다. 직지사 통도사 천은사 옥천사 송광사의 16나한상과 경북 영천 거조암 영산전의 오백나한상, 청도 운문사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이 유명하다.

불보살님들의 온화한 표정이 우리들의 지친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면 나한님들의 파격적이고 해학적인 표정은 우리가 가야할 진리의 세계를 넌지시 보여주는 무언의 가르침이 아닐까. 웃을 일이 적어지는 세상, 나한님들의 큰 웃음소리가 이 세상을 뒤덮을 날은 언제일까.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볼 일이다.

글=이윤호 사진=고영배 기자



◇ 영산전의 5백나한님들과 95년 발견된 〈오백성중청문〉의 표지와 내용. 나한님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컴퓨터에 거조암 5백나한의 사진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5백나한 달력에 몸싣고 컴퓨터 통해 세상에 나오다

거조암 5백 나한님들이 세상으로 외출한다.

나한님들은 두 길로 외출을 한다. 한 길은 달력에 몸을 담고 불자들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한 길은 컴퓨터에 몸을 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거조암은 최근 49분의 나한님을 한장에 담은 12장짜리 98년도 달력을 제작했다. 나한님의 표정에 매료되어 6년간 나한님을 렌즈에 담아 온 오명숙씨의 사진에는 거조암 나한님들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있다. 오씨는 작년부터 일년내내 거조암 5백나한님만을 렌즈에 담아 왔다.

1천6백여 컷의 사진을 인화해 일일이 실물과 대조하는등 어려운 작업을 통해 얻어진 오씨의 사진은 다시 컴퓨터 속으로 들어 갔다. 사진을 스캔 받아 컴퓨터 영상처리를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 작업을 진행해 온 한단기획 이승걸실장의 말이다. 이 실장은 일차적으로 스캔 작업을 완료했다.

거조암은 각 나한님들에 대한 설명과 나한신앙에 대한 기록들을 전산화해 CD롬을 제작 보급하고 나한님들의 명호 문헌자료들이 수록된 3백여쪽 분량의 화보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분실된 8분의 나한님을 되찾는 일과 95년 영산전에서 발견된 〈오백성중청문〉(오백나한의 명호가 기록된 책으로 96년에 한글번역이 완료됐다)의 명호를 바탕으로 나한님들의 이름을 찾아 주는 일은 거조암의 큰 숙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악행품(惡行品) ③

加惡嚩罔人 가악무망인
清白猶不汚 청백유불오
愚殃反自及 우앙반자급
如塵逆風坌 여진역풍분

남을 속이고 해치더라도
깨끗한 이 오히려 더럽히지 못하고
그 재앙은 도리어 제게 미친다
맞바람에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過失犯非惡 과실범비악
能追悔爲善 능추회위선
是明照世間 시명조세간
如日無雲噎 여일무운열

잘못해서 악행을 범했다하면
반드시 뉘우쳐 바름으로 돌아가라
이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니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지 못함과 같다

夫士所以行 부사소이행
然後身自見 연후신지견

衆生有苦惱 중생유고뇌
不得免老死 부득면노사
唯有仁智者 유유인지자
不念人非惡 불념인비악

중생에게는 갖은 번뇌가 있어
늙음과 죽음을 면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어질고 지혜로운이는
남의 잘못과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도장품(刀杖品) ①

一切皆懼死 일체개구사
莫不畏杖痛 막불외장통
恕己可爲譬 서기가위비
勿殺勿行杖 물살물행장

모든 생명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매질의 아픔을 무서워 하지 않는자 없다
자기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해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

能常安群生 능상안군생
不加諸楚毒 불가제초독
現世不逢害 현세불봉해

"모든생명 매질의 아픔 두려워 하니 자기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爲善則得善 위선즉득선
爲惡則得惡 위악즉득악

무릇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뒤에 가서 제가 스스로 보게되나니
선행이면 곧 선과를 받고
악행이면 곧 악과를 만나리라

後世長安穩 후세장안온

항상 중생들을 편안케 하여
어떤 고통도 가하지 않는다면
현세에서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후세에서도 길이 안온하리라

有識胞胎 유식타포태
惡者入地獄 악자입지옥
行善上昇天 행선상승천
無爲得泥洹 무위득이원

식을 따르면 동물의 탯집에 들고
악을 행한 이는 지옥에 들며
선을 행한 이는 천상에 태어나고
함이 없음에 이르면 열반에 든다

不當麤言 부당추언
言當畏報 언당외보
惡往禍來 악왕화래
刀杖俱臻 도장구구

부디 나쁜말 거친말 쓰지말고
말할땐 반드시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이 건너가면 화가 돌아오니
칼과 몽둥이가 네 몸을 치리라

非空非海中 비공비해중
非入山石間 비은산석간
莫能於此處 막능어차처
避免宿惡殃 피면숙악앙

出言以善 출언이선
如叩雉磬 여고종경
身無論議 신무논의
度世則易 도세즉이

허공도 아니요 바닷 속도 아니다
깊은 산도 아니요 바위틈도 아니다
어느 곳이라도 숨을 만한 곳은 없다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말할때는 고운 말 착한 말로
종·경쇠를 울리듯이 하라
그러면 저를 두고 세상의 시비가 없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쉬우리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남탓 말고 '내가 먼저'

청하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의 방앞에는 코스모스가 담장을 따라 햇살을 받으며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다. 무르익은 가을 현대불교신문 창간 3주년을 맞아 방문한 기자에게 스님은 "현대는 미래로 발전, 불교는 세계로 법음, 신문은 국론통일 화합"이라고 쓴 축하휘호를 정겹게 건네주시며 뜻을 새겨주신다. "신문은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화합하게 만들어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편집자 주〉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책임있는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일, 가정일, 절집일 까지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후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통도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기만 한일이지요. 옛말에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이 나와야 하고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지러운 시절에는 지혜롭고 어진 정치인이 나와야 하는 것인만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중 하나가 책임있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도 그러하고 가정의 일도 그러하고 절집안의 일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마다 잘한 것만 내세우고 잘못한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게지요. 나라의 살림을 맡아 나갈 책임자를 뽑는 것이 대통령선거이니 만큼 정말 책임감있고 어진 인물을 가려 볼 줄 알아야 겠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이기를 넘어 보다 넓은 이익을 위하는 즉 요익중생하는 인물이어야 되겠지요.

요즘세태를 가만히 보면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뭔가 모르게 각박해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질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지만 사람간의 인정은 메마르고 생명은 경시되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남의 목숨을 뺏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얼만전에도 빛나리양 유괴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개인의 욕심,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남의 생명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물질이 풍족해도 더욱 어지럽고 흉포해지는 것은 물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 그로부터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탐하게 되고 남보다 나의 욕심을 우선 채우려는 욕심이 청정한 마음을 가로막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승가와 재가 구분할 것 없이 부처님같이 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보장된 모든 물질적 안락과 권력을 던지고 출가자의 길을 택해 지혜를 구족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우선 물질, 권력에 대한 욕심을 없애 착을 끊어나가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명예욕을 버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을 절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1927년 경북 월성 生
- 악 1946년 범어사서 동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계
- 력 조계종 중앙종회 2·3·5·6대 종회의원
- 1967~77년 통도사 주지
- 1986년~現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 1996~現 조계종 전계대화상

"일어나는 한생각마저 떨쳐버리면 '나'라는 꼬투리는 절로 없어져요"

그 다음으로 지계(持戒)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것이 지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라고 하면 행동을 구속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지만 오계를 지키는것 속에 나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오계만 제대로 지키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생 안하면 타인도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거짓말 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에게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남의 것 탐하지 않으면 남도 나의 것 탐하지 않게됩니다. 무엇이든 남의 탓을 하지말고 내가 먼저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는 좋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며, 이 어지럽고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편입니다.

요즘 출가자들은 대체로 과거보다 계를 지키겠다는 철저한 원력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적당히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편해져 그런지 공부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어디론가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도 그러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서로가 힘든 점이 있다해도 내 가정이니 내가 끝가지 책임을 다해 이끌어 가겠다는 결심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적당히 살다가 싫으면 팽개치니 이혼과 싸움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세상은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점점 편리해져 가는데 사람살이는 예전만 못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14세에 절에 들어와 16세에 정식으로 계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는 물론이고 고무신도 없어 짚신 신고 짐을 짊어지고 먼길을 걸어다녔습니다. 부산 언양간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없던 때였지요. 짚신을 삼아서 신고 모내기도 하고 가을걷이도 하고 짐도 져나르…

시·공·사·의·불·교·책·들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환 지음/328쪽/값 6,500원

물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도 이제 좀더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알기 쉽게 쓰고자 한 것이 오히려 현문우답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진지한 물음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기로 했습니다.
물음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돌려 답을 구하다 보면 묻는 사람 자신이 어느덧 백팔고개를 넘어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쌓아 부처님 되십시오.
—— 계환 스님이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값 18,000원

미라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지음/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최세만 옮김 /값 5,000원

갖고 싶은 경전 시공 불교경전

시공 불교경전은 현대적인 해석과 감각있는 편집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형식의 경전입니다.

1 유마경
장순용 풀어 옮김 / 값 12,000원
한 편의 연극 같은 유마힐의 설법

2 법화경 1·2
이연숙 풀어 옮김 / 값 각권 12,000원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

시공 불교경전은 계속됩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더불어사는 도리이죠”

“욕심 없애는 불사는 게을리하고 건축 불사만 앞세우니 아쉬워요”



◇ 1967년경 해외홍법원 준비관계로 출국을 앞두고 공항에서 환송기념촬영. 뒷줄 꽃을 들고있는 청하스님 우측이 당시 총무원장 경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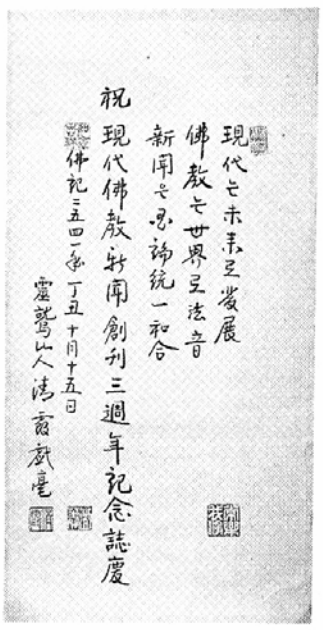
온갖 울력을 다하면서 지냈지요. 그때는 공부의 어려움보다 노동의 고됨과 자신과의 싸움이었지요. 하지만 육체적인 어려움에도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처음 공부하겠다고 발심했으니 만나는 모든 스님들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도인처럼 보여 항상 감사하고 고마웠으며 신심이 절로 났지요. 그분들이 가라고하면 가고 오라고하면 올뿐 거부를 몰랐어요. 모든 것을 수긍하는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절중에 잊을수가 없는 것이 6·25사변 때일입니다. 통도사 도량이 육군병원으로 되어버려 수행처가 온통 병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소임을 맡은 스님 몇명만 있고 뿔뿔히 흩어져 공부처를 찾아 다녀야만 했어요. 나도 통도사에서 공부할 여건이 않돼 부산의 금정사와 범어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범어사도 사정이 별반 다른 것은 아니어서 범어사 바로 밑의 유골안치소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전쟁이 다시는 이 세상에 없어야 겠다는 원이 생깁니다. 인류가 평화롭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제대로 사는 것이지 지금은 온전하게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의 고생스러움에 비하면 요즘 세대는 너무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편해졌을에도 공부하러 왔던 이들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스승들과 도반들로는 경산스님 효봉스님 혜암스님 석주스님 인곡스님 무불스님 우봉스님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먼저 가신분들도 있지만 모두 그 시절은 어렵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중에도 불퇴전의 신심이 있었습니다. 은사스님이신 월하스님도 구하스님께서 편찮으실 때 하루에 세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안인사를 드리고 구하스님 입적하시기전 일주일은 한시도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면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지극한 정성이셨습니다. 어른을 섬기고 잠시를 나가도 문안인사 드리는 그 당시의 엄격함과 스승과 제자간의 정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지요. 월하스님은 참 엄격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든 밀어부치는 분입니다. 나는 어릴적 월하스님의 그러한 점을 뵈면서 ‘아, 한번 마음먹은 것은 꼭 해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밀고 나가야 겠구나’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당시의 꾸지람도 나를 지금껏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세속의 경향처럼 너무 신식만 찾는 것 같습니다. 젊은층 일수록 더욱 심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선사 조사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발자취를 더듬어 참고하고 좋은점은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세태는 과거것은 무조건 무시하고 선사나 조사들의 얘기는 구시대적이라고 하면서 서구적인 것만 우수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인 문화, 역사를 알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땅인 인도도 이제는 힌두교가 판을 치고 있어 옛것을 지키고 계승시키는 일은 힘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다 옛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배척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시대 우리의 과제는 위축된 불교를 다시 세계속에 우뚝 세우는 일입니다. 지름길이있어요. 그저 후학들이 우리 문화, 우리 얼을 제대로 알고 현실에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 힘은 결국 우리 한국불교가 세계불교로 뻗어나아가게 하는게지요.

시절인연으로 인하여 모든 법이 성주괴공의 길을 걷는 까닭에 현대는 신심이 떨어지고 욕심이 많은 때입니다. 법당 불사는 많아지지만 마음의 욕심을 없애는 불사는 계으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인 건축물들은 ㅇ루리 많이 지어봤자 대포 한 방이면 다 날아가버리고 마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정신이 일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축하휘호.

오계만 제대로 지키고 살면 세상 순탄

“나의 불편이 다른사람 기쁨의 밑거름”

임하는 것입니다. 금강석같은 각오로 덤벼들어 공부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행방법을 정해 정진하는 겁니다. 염불 주력 등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혹자는 염불과 선을 따로 보기도 하지만 지극하게 하다보면 결국엔 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큰것에서 찾지말고 하루에 〈천수경〉 일독이라도 하는 것으로 출발해 보세요.

그 〈천수경〉 일독이 마음을 비워나가는 방편이 될겁니다. 그 맑은 자리에서 보면 보살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남녀노소 모두가 문수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며 부처인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처로 섬기면서 나의 불편과 고통이 다른이의 기쁨과 편안함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자신이 남에게 폐가 되지 않고 깨끗이 살다가 흔적없이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청정한 자성을 밝히며 살아갑시다.

정리=천미희 기자

나와 경전 25

화엄경



김 지 견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남쪽으로 밀리던 피난길의 종착지 부산, 거기에 임시 수도가 있었다. 6.25의 민족 대수난을 겪는 것은 스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이 큰 회상을 이루었으니 곳곳이 선암사 선방이었다. 여법한 청규는 서릿발처럼 엄했고, 용맹정진하는 모습은 일찍이 볼수 없었던 장관이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행자교육은 법다웠다. 경전을 읽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요, 밤이나 낮이나 면벽관심하는 수선생활이었다. 어떤 청복을 지었길래 청중스님네를 따라서 공부할 수 있었던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추억이다. 그때 은사스님이 주신 〈화엄경〉 행원품의 얄팍한 전적을 받은 것이 〈화엄경〉을 대하게 된 첫인연이었다. 그런데 몇장을 읽어보니 흡사 전에 읽어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철저하고 모든 의식이 집행될 때에 신라 의상스님이 지으신 법성게로 회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엄경〉으로 시작해서 〈화엄경〉으로 회향하는 것이다. 의식은 종교의 생명이라고 볼 때, 한국불교에 있어서 〈화엄경〉은 매우 중요한 경이 아닐 수 없다. 강원의 커리큘럼에는 〈초심문〉으로 시작해서 〈화엄경〉으로 마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의 산 이름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두가 〈화엄경〉에서 유래한 명명임을 알 수 있다. 즉 〈80화엄경〉의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법기보살이 천이백 대중과 함께 설법하는 도량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 한국인은 자연에다 인간의 위치를 정하고 자연과 동화하고 나아가 탄토건곤하는 활달한 심성을 가꾸어 온 것이다.

〈화엄경〉과 관계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한량이 없다.

선재동자 구도과정 수행자의 모범

“티끌 하나 하나에서 화엄법계본다”

한 불립문자를 표방하던 그 환경에서 왜 행원품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시었던지, 모를 일이다.

나는 그때부터 행원품에 나오는 선재동자가 다름아닌 나자신이라고 느껴지고, 그 실천을 위해서 물이 흐르듯이 살아오게 되었다.

〈화엄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교학적, 사상적으로 불교의 핵심을 가장 깊게 담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약칭으로 각 장이 독립된 경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세기경에 집대성했다. 한역에는 6본이 있으나 지금은 3본만 전해오고 있다.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 그것이다. 특히 〈화엄경〉의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보살에서 의도에 이르기까지 53인의 선지식을 찾아 구도하는 과정을 묘사해 정진이 곧 불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만나는 선지식 중에는 보살만이 아니라 비구(니)의사 장자 바라문 창녀등 갖가지의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있다. 이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보리심의 유무가 문제라는 대승불교의 수도(修道)의 이상(理想)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한국불교는 여명을 알리는 아침 종송(鍾頌)이 〈화엄경〉으로부터 시작

진역 〈화엄경소〉를 지어가시던 원효스님은 십회향품에서 절필하시고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다.

“봉황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의 낮음을 내려다봄과 같이 하백(河伯)이 넓은 바다에 이르러 좁았던 시냇물을 회상하는 것처럼 배우는 자가 〈화엄경〉의 문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확 트이는 공부가 되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화엄경〉은 모자람 없이 완전한 진리의 세계가 공간적으로 꽉 차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걸쳐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지극한 법도와 궁극의 표준을 이루었나니 그 뜻을 들어 표제삼아 〈대방광불화엄경〉이라 한다”라고 설파했다.

그리고 설잠스님(매월당 김시습)은 “보지 못하였는가, 화엄법계의 티끌 하나하나에서 법계를 본다고 하였음을, 여러분은 대체 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자리 산승의 염주위에 십종현문이 열려 있고, 진법계가 드러나 있음을,… 세존은 7처에, 나는 단지 여기 1처일 뿐이요, 세존의 9회에 나는 단지 1회일 뿐이요, 세존의 경을 설한 것이 80권임에, 나는 단지 일구(一句)일 뿐이다”라고 선적인 회통을 했다.

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은 시리즈 이름입니다.

값 3,500원 / 46판, 각권 180~220쪽

민족사는 외형만 크고 내용은 빈약한 함량미달의 책 대신에
독자들에게 실속 있는 독서풍토를 만들고자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총서를 간행하여
지식의 대중화,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주머니 속에 넣고 떠나는 나의 작은 책!
책은 나의 발견자, 삶의 동반자!


1 새벽 삭발 석성우 스님 시인 · 파계사 주지
오랫동안 수행에 전념해 온 석성우 스님의 마음자리 맑히는 노력!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해준다.


2 선 석지현 스님 시인
선(禪)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다. 가능하면 이 책과 함께
매일매일 좌선의 자세로 앉아 보라. 그대의 의식은 비로소
그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될 것이다.


3 인연 서정주 시인
서정적 생명력이 있는 미당 서정주의 시와 산문들!
그의 시와 글 곳곳에 박혀 있는 산사의 향수.
우리로 하여금 아련한 추억과 마음의 고향을 되찾게 해준다.


4 한국의 茶詩 김상현 동국대교수
초의선사를 비롯하여 유명 다인들의 다시를 엮은 책.
한 잔의 차로써 다선일미(茶禪一味)의 멋과 세계를 감상한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한결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가질 것이다.


5 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최인호 소설가
금세기 우리 문단의 최고의 작가 최인호!
경허의 세 제자 수월 · 혜월 · 만공의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최인호 특유의 독특한 문체로 그린 선소설!


6 곰취처럼 살고 싶다 윤후명 소설가
한국소설대학에서 작가 지망생을 지도하고 있는 윤후명 불교산문집.
봄의 들길에서 출발하여 가을 황량한 바닷가까지의 여정을
쓸쓸하지만 아름답게 보여준다.


7 불교문학의 이해 홍기삼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홍기삼! 불교와 문학의 만남을 통하여
감동과 비평의 언어로써 새로운 인간학을 지향한다.


8 사천강단(四川講壇) 민영규 연세대명예교수
어느 노학자의 선불교 탐방! 쇠보다 강한 것은, 무엇인가가
미생전(未生前), 우리를 그렇게 메어 놓은 것이리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고은 불교대하소설



술독에 술이 담긴 것처럼 꽃망울이 벙글어 피어난 것처럼 우녀는 당연히 천인이 되었다

수미산의 바다 깊은 곳은 도대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우선 인간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섬부주 밑으로 진흙층과 백토 잡토 황토 청토 등을 각각 5백유순과 각각 1천유순의 4천유순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여러 지옥들이 커다란 세계를 이루고 있다.

등활, 흑승, 중합, 규환, 대규환, 초열, 대초열지옥이 각각 깊이 5천유순이다가 그 밑으로 아주 커다란 가로 세로 2만유순의 무간지옥이 그 깊이도 2만유순이나 되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지옥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인 것은 그만큼 그곳을 쓸모없는 곳으로 비워두는 중생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곳은 더많은 중생들이 와야할 곳이고 왔다 가야할 곳이었다. 그곳을 사바세계의 척도로 말하면 죄업과 악행의 귀결로 보지만 아주 냉정한 눈으로 보자면 지은 것을 더도 덜도 말고 가장 정확하게 받는 것이다. 그 주고 받음이 죄악과 고통의 관계이다.

우녀의 아뢰야식은 그 지옥까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가. 곧장 삼십삼천의 세계로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밝은 영식(靈識)이 여기에 다다르기 전에 예성강 기슭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의 명복을 비는 것을 안 것처럼 그가 지옥의 여러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의 영식의 어떤 파편은 주인몰래 지옥의 여러 곳을 그곳의 고통을 견디면서 찾아다님으로써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지옥 중생이 얼마나 되는가를 짐작하게 된 것이다.

무간지옥은 극한의 고통이 한 찰나도 틈이 없는 지옥이다. 그뿐 아니라 좀처럼 그곳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받은 지옥이다.

그 위에 대초열지옥이 있다. 중생마다 제 몸에서 시나운 불길이 일어나 서로 서로 불태우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다.

그 위의 초열지옥은 그 불길이 몸에 붙어 굴러다니는 곳이다.

대규환지옥은 소리를 질러대며 고통을 받는 곳이고 규환지옥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여 울부짖는 소리뿐인 곳이다.

그 위로 중합지옥은 많은 고통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는 곳이고 흑승지옥은 검고 굵은 새끼줄로 몸을 칭칭 감아 톱으로 켜는 곳이다.

등활지옥은 도끼로 찍고 창으로 찌르고 맷돌로 갈고 방아로 찧어 죽였다 살렸다 하는 곳이다.

어디 그 뿐인가. 그 지옥들의 부속인 부지옥들이 더 받아야 할 고통을 대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덟개의 뜨거운 지옥과 부지옥 불에 급는 곳, 송장과 똥으로 찬 곳, 칼과 창, 뜨거운 용암의 끓물이 있는 것과 반대로 8한지옥은 추위의 극한으로 된 곳이다.

알부다는 찬바람이 몸에 불어닥쳐 몸이 부풀어 오르고 이자부와는 부푼 몸이 터지는 찬바람의 세계이다.

아타타와 아파타 그리고 호호바 지옥들은 다같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저절로 중생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름지어진 지옥이다. 온바라 지옥은 추위로 몸이 퍼렇게 되어 청련화지옥이라 한다.

발트마는 홍련화인데 몸이 얼어서 푸르다 못해 붉은 빛으로 되어 홍련화이다.

이밖에도 고지옥(孤地獄)이 널려 있는데 그것은 지옥세계에만 있지 않고 지상의 하천이나 산기슭, 광야 등에 있거나 허공에도 널려 있는 작은 지옥인 것이다.

우녀의 영식은 이런 지옥을 두루 살펴보는 그 영식의 파편을 거둬 들여 하늘의 세계로 모이도록 하였다.

또한 그 영식은 아귀계와 축생계 아수라계도 다녀왔다.

아귀계는 지하에도 지상의 인간계에도 하늘에도 널려 있다. 아귀는 거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축도 있고 살과 가죽 그리고 혈맥이 바싹 말라버리고 머리털이 귀신형용으로 되고 항상 헛바다으로 제 입을 핥아야 한다.

생물을 보자마자 그것이 싹은 고름물이 되며 더욱 몸이 타들어간다. 또 똥조차도 먹을 수 없어 기갈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한번쯤 배가 부르게 먹고나면 그것이 바로 악업이 되어 배고픔의 고통을 낳는 것이다.

축생계는 그 본고장이 바다였다. 그러다가 바다와 민물, 육지 하늘의 각처로 퍼져 나갔다. 그것은 아귀계의 본고장이 지하 염라국인 것과 대조된다.

바다로부터 축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인류와 생물이 시작된 것을 뜻한다.

인간조차도 본래는 여러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축생의 종류는 피모(被毛) 대각(戴角) 인(鱗) 갑(甲) 우모(羽毛) 사족(四足) 다족(多足) 유족(有足) 무족(無足) 수행(水行) 육행(陸行) 공행(空行) 등이다.

그 수명도 여러 종류에서 한 찰나의 수명, 하루살이, 보름짜리, 한달짜리, 1살짜리, 10살짜리, 백천억세짜리와 일체(一切) 수명의 무한짜리의 수명들이 있다.

아수라는 먼지 그 중생의 용모가 추악하다. 그러나 아수라는 추악한 대신 아주 힘이 세다. 그래서 제석천 및 사천왕과도 자주 싸움을 하는 것이다.

아수라에게는 미녀가 있으나 좋은 음식이 없다. 반대로 제석천은 좋은 음식은 넘치고 있는데 미녀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싸워야 하였다. 그런 싸움관이 곧 아수라장 혹은 수라장이라 한다.

수미산 북쪽 그 바다 밑에 2만1천유순을 지나면 나타나는 아수라궁이 있다. 제1궁의 밑 2만1천유순에 있는 용건궁, 제2궁의 밑 2만1천유순에 있는 화만왕궁, 제3궁 밑 2만1천유순의 곳인 비마질다라왕국 그리고 수미산의 동과 서쪽으로부터 1천유순 밖에 있는 비마질다라왕궁이 각각 있다.

수라궁에는 아주 악한 수라중생으로써 인간계의 산중에 살고 있다.

또한 귀신에 가까운 중생은 바닷속에 있고 축생에 가까운 수라중생은 바다 밑에 있다.

그것은 태(胎)로 알(卵)로 습(濕)으로 화(化)로 태어난다.

우녀의 영식은 그 파편들을 보내어 이런 지옥 아귀 축생계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그의 수행으로 인한 선업 때문에 그런 곳에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33천에 머무는 일이 우주에의 첫 등장이었던 것이다. 그 영식이 다다른 곳은 하늘 속의 궁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상주하는 천인 남녀만이 그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 환영하는 마당에는 이제까지 어디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옛 도반들이 거의 다 낯익은 얼굴로 화해서 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영식에 낯익지 않은 얼굴들도 아주 많았다.

지난번 사바세계 무용도 일대에 있었던 해일로 발미암아 희생된 사람들이나 청나라 청주 해안의 사람들과 남해까지 올라왔던 안남사람들, 일본사람들도 죽어서 다시 태어난 천인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본즉 우녀의 영식이 가장 늦게 이 하늘나라에 도착하였다.

"우녀보살!"

"우녀님!"

우녀는 그의 영식으로 하여금 하나의 몸을 받은 그 자신을 깨달았다. 그는 놀랐다. 그의 몸에는 벌써 하늘의 옷도 입혀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구름자락과 같은 것이었다.

그의 몸도 사바세계에서의 몸인 것처럼 눈과 귀가 달려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의 몸 그대로를 필요할 때마다 옮겨놓은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와 감작스러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일이 송구스러웠다. 태어난다는 절차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디서 와서 이곳의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준비없는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우연인지도 몰랐다.

가장 원숙한 필연이야말로 이렇게 우연으로 꽃피우는 것인가.

과연 새로운 33천의 천인으로 된 우녀는 바위덩어리가 갑자기 물이 된 느낌이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미 그 놀라움도 가라앉았다.

그의 탄생은 이렇게 별다른 과정없이 술독에 술이 담긴 것처럼 당연하게 이루어졌고 맺고 있던 꽃망울이 벙글어 피어난 것처럼 이루어졌다.

구름 한 자락이 향기를 풍기며 지나간다.

그때에야 우녀는 그의 새로운 귀에 들렸던 그의 이름을 떠올렸다.

다른 세상에서는 이전의 세상에 있었던 어떤 강한 것도 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의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일이란 지극한 영험(靈驗)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녀의 수행이 그런 영험의 높은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녀 자신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이곳에서 환영하는 천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우녀는 그를 둘러싼 천인들에게 무척 감동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새로웠다.



145

"우녀보살" 33천의 천인들 가운데서 인담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현기증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다. 새로움이란 이렇게도 어지러움이었다.

그는 8만유순의 높이로 솟아 올랐던 것이다. 실로 아스라한 하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영식은 이곳으로 오르기 전에 저 지하 깊숙히 3만유순 가까이 내려갔다 온 나머지 거기에 수미산의 해발 8만유순을 보탠 것이다.

실로 천인의 비상으로도 이런 순례는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 수미산 정상의 세계에 이르러 그와 똑같은 과정을 지나서 태어난 천인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곳에는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온 천인들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 달랐으나 그들이 쓰는 말은 이곳 33천의 공용어 하나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의 누가 어떤 나라의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 말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기도 하다.

"우녀보살!"

많은 천인 가운데서 인담의 소리가 들렸다. 우녀의 새 귀가 번쩍 열렸다.

그림 · 조향숙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碧巖錄
:중국 宋나라의 원오(圓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古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738-6270, 735-7202 팩스:733-1016

창간 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社團法人 韓國佛教宗團協議會

회 장 송월주

회원일동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
■ 전 화 : 732-4885 팩스 : 737-7873

大韓佛教 眞覺宗

總印 覺 海
總印司書室長 烋 明

【教育院】
教育院長 一 靜
教法部長 惠 淨
教育部長 觀 證

【統理院】
統理院長 省 超
總務部長 悔 淨
局長 悳 正
財務部長 守 性
局長 證 光
文化社會部長 孝 庵
局長 圓 明
建設部長 惠 明
局長 觀 天

【宗議會】
議 長 慧 一
副議長 于 勝
副議長 福善定

【查監院】
查監院長 眞 堂
查監部長 惠 明

【眞覺大學】
學 長 碩 峯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 전화 : 913-0751~3 전송 : 915-6032

大韓佛教 總和宗

宗正 李 東 光
사서실장 남 원 우

元老院
원로원장 김야옹
원로부원장 박용운 최혜산

總務院
총무원장 전남정
총무부장 이만오 사회부장 박시균 규정부장 김혜암
재무부장 이금오 조직부장 황성문 교무부장 장일봉
종회의장 김화담 종회부의장 김혜진
감찰부장 백동오 조사부장 최해정
교육원장 정혜안 교육부장 류정우
호계원장 양영수
포교원장 박청해 포교부장 조성부
문화원장 이정송 문화부장 이법해

부 산종무원장 : 오백광
경기동부종무원장 : 기혜성
경기북부종무원장 : 주인현
경 북종무원장 : 손우웅
경남서부종무원장 : 김만월
경남중부종무원장 : 김문곡
경남동부종무원장 : 김만각
충 남 북종무원장 : 박청해
제 주종무원장 : 강인문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 93번지
■ 전화 : 742-8895.8896

대한불교해동종

종정 석 봉

원로원장 인 현
종회의장 성 타
사정 원장 선 기
포교원장 대 원
복지봉사원장 성 용
연수원장 백 당
문화예술원장 원 표
총무원장 송 산
총무부장 경 신
교무부장 진 응
사회부장 혜 월
사정부장 상 오
사서실장 보 성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 전화 : 0331)262-1577 · 263-1353
■ FAX : 262-1577

(財)大韓佛教 一鵬禪教宗

■ 임 원 ■

종 정 붕 해(호불사)
종정사서실장 용 암
사서국장 진 소

원로원의장 청 암(보은정사)
중앙종회의장 동 명(관음사)
사정원장 원 각(광법사)
감사원장 무 정(석굴암포교원)
고시위원장 만 공(일붕선교종포교원)
선거관리위원장 명 종(천정사)
사정원부원장 원 각(수도사)
사정원부원장 용 주(대룡사)
감사원부원장 청 룡(용호사)

■ 종무임원 ■

총무원장 무 찰(동함사)
교육원장 도 화(금곡사)
포교원장 법 보(정광사)
총무원부원장 호 림(신흥사)
총무원부원장 법 철(정명사)
교육원부원장 대 현(호남정사)
포교원부원장 명 달(백학사)
총무부장 공 심(해덕사)
교무부장 도 봉(약사사)
재무부장 강 청(용화사)
사회부장 성 문(선광사)
포교부장 도 원(마음정사)
규정부장 의 륜(불탑사)
연수부장 해 심(천불사)
홍보부장 영 명(백합사)
교육부장 일 훈(일훈사)
총무국장 혜 각(일붕선원)
국제국장 혜 성(바라사)
교육국장 연 봉(연봉사)
홍보과장 혜 도

■ 각지역 교구 종무원장 ■

서울교구 법 운(법운사)
인천교구 해 월(대원사)
경기북부교구 의 천(쌍용사)
경기남부교구 원 광(심원사)
강원교구 대 우(공덕사)
충북교구 청 용(용호사)
충남교구 혜 성(보광사)
대전교구 만 운(용화사)
경북교구 도 기(관음사)
대구교구 일 암(용운사)
경남교구 현 각(폭포암)
부산교구 무 정(설굴암포교원)
전북교구 랑 정(장덕사)
전남교구 혜 성(도선사)
제주교구 봉 암(옹포포교당)
울산교구 호 엄(화엄정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財)大韓佛教 一鵬禪教宗 總務院 ◆ 전화 : (02)394-9468/9 ◆ FAX : (02)395-9468

창간 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 감 로 사 ●

노 전 보 안
회 주 법 희
주 지 혜 총
총 무 경 법
교 무 경 성
재 무 경 원

■ 주소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23번지
■ 전화 : (051)809-0926

대한불교천태종
● 삼 광 사 ●

주 지 박 덕 수
교 무 곽 수 산
재 무 정 거 호
노 전 박 해 석
부 전 김 갈 성
신도회장 김 찬 권

사부대중 일동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 전화 : (051)808-7111～5
■ FAX : (051)803-1331

부산광역시
● 불교연합회 ●

회 장 성 오
수석부회장 덕 수
상임부회장 월 강
부 회 장 도봉 상도 구마 정각 남촌 혜지 혜총 지원 경락 의강
감 사 무정 원광
사무총장 보암
기획실장 석호

■ 주소 :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3동 393-12 불교회관 3층
■ 대표전화 : (051)867-0501
■ FAX : (051)867-0501

● 한마음선원 ●
부산지원신도회

신도회장 이하경 박성빈
부 회 장 채선일 현기섭 서민자
재 무 김원순
총 무 정성용 송경자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
■ 전화 : (051)403-7077

대한불교조계종
● 국 청 사 ●

주 지 계 전
부주지 성 만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397번지
■ 전화 : (051)517-5003

대한불교 조계종
문 수 사

회 주 유덕암
주 지 최지원
신도회 지장회
관음회 선행회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61-3
■ 전화 : (051)624-3754

부산불교녹야회
(현대불교화요선방)

매주 화요일 저녁
화요선방을 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회 장 이 종 판(도원)
■ 전화 : (051)634-5114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 진 수
상임부회장 임 채 수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 전화 : (051)464-2020

엘 지 상 사

대 표 신 수 범

광고기획, 개업답례품, 행사기념품, 기업판촉물, 증정 사은품, 스티커, 인쇄, 판촉용 시계제작, 상패 및 트로피, 신제품 개발상품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 3동 127-11
■ 전화 : (051)503-6942, 504-8937
■ FAX : (051)502-9995

서 진 중 기

대 표 채 선 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0-1 한신밴오피스텔 911호
■ 전화 : (051)811-1455

불교전시관

대 표 조 재 원

※탱화, 동불, 특수불, 개금, 단청
※불교서적, 테이프, 4.8용품
※불교용품 일체 도산매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
■ 전화 : (051)647-7393

대한불교 원효종 대본산
금 수 사

종 정 이 법 홍
부종정 김 벽 송
총무원장 송 무 진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43번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조 정 관

개금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음어린이집, 다정한 어린이집, 보현어린이집

■ 전화 : (051)755-5500
■ FAX : (051)758-3789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조 정 관
상임이사 이 혜 총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어린이불교교육 정보센터
선우마을, 보리방송모니터회,
pc통신어린이지도자 동호회

■ 전화 : (051)808-4569～70
■ FAX : (051)808-4571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단 장 박 채 주
총 무 강 갑 수

단원일동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
■ 전화 : (051)403-7077

박 해 일 내 과

원 장 박 해 일
전문의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61-11
■ 전화 : (051)414-4200

김 현 숙
우리옷 文化 연구원

■ 전화 : (051)808-8696
■ FAX : (051)808-8697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형제회

회원 일동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
■ 전화 : (051)403-7077

자비 실천회
찬 불 가 교 실

찬불가, 가곡, 가요등을 무료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회 장 한 영 옥
지도강사 이 옥 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 전화 : (051)898-1547/(051)634-5114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부설 : 문 화 관 · 시민선원 · 연꽃어린이집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 전화 : (051)816-2241
■ FAX : (051)806-2430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3-1
■ 전화 : (051)363-2063
■ FAX : (051)363-2067

부산불교 유마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현대불교 신문사 강당에서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불자님 동참 바랍니다.

회 장 김 영 권

■ 전화 : (051)502-6429

대한불교 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이 건 국
수석부회장 권 승 렬
내무부회장 김 수 현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 전화 : (051)645-7871～2

신 화 상 사

◆각종 현수막 제작◆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합니다.
- 각종법회 및 행사 현수막 실비 제작합니다.
- 전국어디에서도 주문가능하며 우편으로 우송됩니다.

■ 주문처 : (051)466-6230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65-6

불교의 자존심
부다가야 · 대한기획이 지켜나갑니다.

부 다 가 야

4.8용품 · 예수재 · 49재 · 불사 · 탱화 · 불상 · 기획상품

■ 전화 : (051)865-4383
■ FAX : (051)865-4821

대 한 기 획

불서출판 · 사보편집 · 팜플렛 · 달력 · 기획인쇄

■ 전화 : (051)866-7818
■ FAX : (051)864-7075

부산 · 경남에서는 유일한 불교기획 전문회사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사

주 지 이 원 행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852번지
■ 전화 : (0394)34-7661～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삶은 곧 승진 좌천의 갈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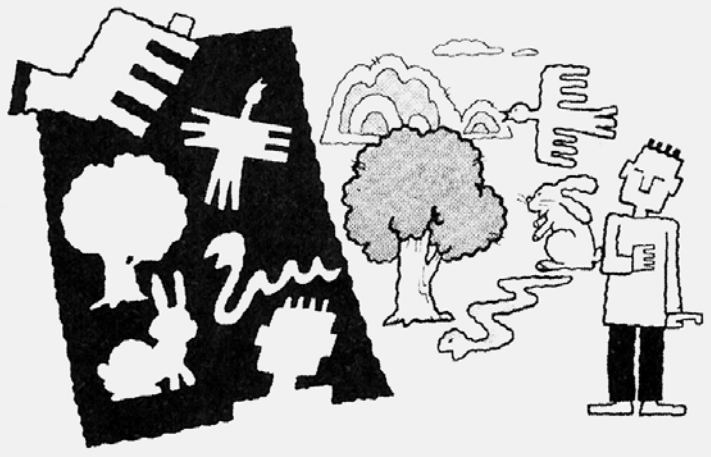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물질계 50% · 정신계 50% 계합 '하나' 돼야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느 사찰에서는 항상 시식을 지내면 넓은 돌 밑에 밥이나 과일을 갖다 놓곤 했습니다. 날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가 그 돌 밑에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한 이년 남짓 살다보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절 스님 한 분께 "스님, 저도 스님처럼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 소리를 기다릴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 먹고 또 한번 받아 먹고 또 한번 받아 먹고 세 번 받아먹는데 삼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렁이는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했는데, 너무나 애절하게, 뼈만 남도록 애절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게끔 스님이 자손없는 집으로 인도를 했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황당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만나고 보고 듣고 가고 오는 것
> 하나에서 열까지 고정된게 없어요
> 그런데 집착하니 苦가 생기죠"

는 도승들이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스님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셨더랍니다. 또 구렁이가 말하기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첫째는 네 도반 즉 300마리의 뱀들을 교화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줘야 하고, 둘째는 항상 법당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시거나 예불을 올릴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 들어야 하며, 셋째는 삼년동안을 이슬만 받아 먹고 살아야 하며, 넷째는 사람이 먹는 간장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 간장독을 넘어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공양주가 간장을 뜨러 올 때 떨어지는 간장 방울을 얻어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토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구렁이는 이슬만 받아 먹으면서 자기 동료들을 교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항상 법당 근처에 몸을 숨기고 스님들이 예불 올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 안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도 없죠. 모두가 다 노력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그 구렁이는 그걸 이겨냈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공양주가 간장 떠내면서 그 방울 떨어지기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지금 물질과학이 50%로 등장하고 있지만 거기에다 정신과학이란 걸 보충해서 100%를 만들어서 굴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질계와 정신계가 계합이 돼서 하나로 돌아가야 할텐데, 그리고 물질계를 이끄는 것이 정신계라는 걸 알아서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 뿌리를 믿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무시하고 뿌리 없이도 싹이 저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 모두들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정신계의 발전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들어서서도 50%의 광년이 더 지나야 하는데 정신계를 무시하고 산다면 50%의 광년이 지날 동안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나는 요새 말입니다. 물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또 사람들에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짐승들은 육을 잡아 먹고 잡아 먹히지만 사람들은 심성, 즉 말하자면 정신을 뺏고 뺏기고 삽니다. 이 세상이 모두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자나깨나 머리 속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데 불쌍하다고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이거를. 세상에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무의세계로 인해서 유의세계가 돼야 하는데, 무의세계는 저버리고 유의세계만 알고 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보면 귀신도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나의 보이지 않는 것하고 동일하게 되니까 귀신이 아니라 선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탈 때도 관하고 타고 내릴 때도 감사하게 관하고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딜 가든지 '이건 뭐 괜찮을거야' 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랬다고 항상 자기 자성불을 진짜로 믿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관하십시오. 사업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너 이 껍데기를 리드해 나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심부름 하는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관하시고 이렇게 진짜로 아신다면 살기가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요.

제 모습 벗기 어려워

우리는 수없는 광년을 거쳐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모습을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인간까지 온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야죠. 지금 진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오장육부 속에 모습과 의식과 생명들이 다 들어 있으니 그걸로써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차원이든지 모습 하나를 가지고 나올 때 살아온 습때문에 그 모습 벗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토끼라면 토끼 모습을 벗기 어렵고 새라면 새 모습을 벗기 어렵고 뱀이라면 뱀 모습 벗기가 어렵고, 이렇게 인간이 되기까지는 부처님 경지에 다가서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 가지고도 99%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육조 스님은 '자성이 본래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요' 했단 말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불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들이고 내고 하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로 해서는 실감이 안 날테니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진정으로 믿는게 우선

부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고(苦) 집(集)이 있다면, 집착을 하면 고가 생긴다 이런 건데, 만약 우리가 고집이 없다면 즉,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다면 고를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착을 하는 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이 소리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툴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대로 여여함을 알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苦)라는 것과 집(集)이라는 것도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가지 고선 오히려 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하는 것도 오히려 이름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지 못하고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불이 만불 만불이 일불

예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항상 평등하게 보라 이러는 것은 자기가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어떤 것이든 안 되어 본 게 없고 어떤 일이든 안 해본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 모습으로 봐라, 모든 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고 내 슬픔과 같고 또 내 배고픔과 같으니 모두가 내 도량에서 나 아닌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나가는 진리가 바로 부처님 법이죠. 부처님이 먼저 깨달으셔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진짜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진짜 스승이시죠.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에 대한 보답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하지 부모가 자식에게 공경받을려고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하면 과거의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저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서역에서 몇 백명, 몇 천명이 수십명씩 조를 지어서 중국으로 이 법을 펴러 가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1)

기회는 언제나 '지금·여기' 그대 문앞에 있다

"수행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지금·여기가 있을 뿐이다. 오늘을, 지금 이순간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직시하면서 코끼리처럼 걸어가라. '지금 여기'가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근본 자리이며 바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자 영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중생의 가정과 일터가 곧 여래의 처소이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구경계이다. 지금 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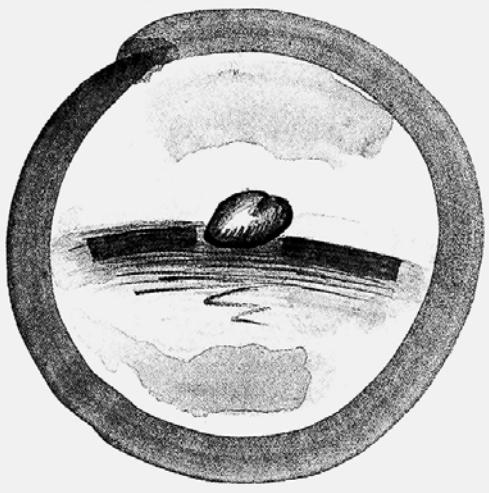
순간 순간이 그대로 영원이요 무한이다.

오늘 이 세상에 나왔으면 오늘 알아야 한다."

우리들 누구나 수행자이다. 세속의 인연을 떨쳐버리지는 않았다해도 삶의 목표를 진화에 두는 한 우리는 모두 수행자이다. 아니, 세속에 발이 묶여 도무지 도(道)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다해도 삶이 곧 진화냐 퇴화냐의 갈림길일진대 우리 모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수행자일 수 밖에 없다.

수행자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순간 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의 밭에 뿌린 마음의 씨앗은 영겁을 두고 어느 때이든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내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과보가 돌아 올 것이고 게으른 마음을 심으면 보잘 것 없는 결과가 돌아올 것이며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 순간인들 방심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염념참회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씨앗, 가장 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괴로운 일은 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고 오로지 즐거운 일, 흡족한 과보는 내 것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물론 그것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라도 가능한 일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순간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선행이고 참회이면 된다. 지금여기가 그대로 수행처이면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하루살이'로 산다. 하루살이라니까 될데로 되라는 식의 찰나주의 · 향락주의인 게 아니라 지금·여기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식의 삶을 산다. 최대의 관심과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 여기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같이 산다.

수행자들과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점에서 다르다. 우리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생각하고 내일에 희망을 건다.

내일이면 사정이 더 좋아지겠지, 오늘은 여건이 적당치 않으니 내일을 기약하자…는 식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내일은 없다. 오늘이 있을 뿐이다. 내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결과로서 내일이지 오늘과 다른 내일은 없다. 고로 다가올 모든 내일은 오늘 속에 있다. 오늘 최선을 다 하면 최선의 내일이 그 속에 있고, 오늘 방일하면 흐트러진 내일이 또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거든 오늘을 희망차게 살아야 한다. 기쁨의 내일을 바라거든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내일이 보람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속에 보람을 심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를 바라는 삶이 아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오늘을 정화하는 삶이다. 지금·여기를 정토로 만드는 삶이다. 지금·여기를 여래의 처소로 가꾸는 삶이다.

오늘·지금·여기는 내게 주어진 황금의 기회이다. 절호의 찬스이다.

오늘·지금·여기서 잘하면 다 잘되고 오늘·지금·여기서 잘못하면 다 잘못된다. 고로 기회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언제나 내 문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이 절호의 찬스를 어찌 허송하겠는가. 지금·여기서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달리 무엇을 또 바라겠는가. 무엇을 또 기다리겠는가. 천리 길을 가고 싶어도 한 걸음이 확실치 않으면 갈 수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야 천리를 간다. 고로 한 걸음이 천리길이요 천리길이 한 걸음이다.

수행자는 그래서 하루살이로 산다. 아니, 누구라도 하루살이로 살아야 한다.

협찬 : 곽 계 신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정신계 무시하면 '반쪽이' 삶

☞ 17면에서 계속

신겁니다. 그러나 가다가 열명이면 한명 남을까 말까 했답니다. 지금 세상에는 신발이나 두둑한 게 있겠지만 그때엔 신발도 제대로 없이 짚신 하나 신고 가다가 또 하나 갈아신고 그러다 보면 다 떨어지고 맨발로 걷구요. 그 고생하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바로 자유스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역대조사들한테 보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험담 나누는 것도 보시

그리고 사람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도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되어서도 수천년, 수만년을 이렇게 돌다가 상세계로 차원이 높아지는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하천세계로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천세계냐 하천세계냐 하는 교차로기 때문에 중세계에서는 그렇게 사람되기 어렵고 하천세계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이름은 이름일 뿐 거기에 집착하고 믿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자기 자신을 진실히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라고 태어나서 한철 살 때에 우리가 한 철 사는 이 모습과, 한 철 사는 이 모습 속의 생명들과, 한 철 사는 정신계가 어떻게 삼합이 합쳐서 나왔는지 그런 것 쯤은 우리 체험하고 느끼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을 체험담으로 남에게 일러 준다면 그것이 바로 훗날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되고, 또 남들이 볼 때도 그걸 보고 교화기 되고 기복으로 가던 사람들도 되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그건 여러 가지 보살행입니다.

잘 된다 못 된다 맡기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남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듣는 것, 가고 오는 것, 먹는 것, 하나서부터 열까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바로 찰나 전이고 미래는 찰나 후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연방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대상을 놓고 잘 되느니 못 되느니 하는 살림살이도 찰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점을 하나 내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게 잘 되는가 어떤게 못 되는가 어덜 얻어야 되는가 이런 건 상식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얻되 물건들이 썩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는지, 잘 팔릴 수 있는지 등등의 문제를 잘 살펴서 책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것 못되는 것이 둘이 아닌 가운데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못 버는 것 잘 버는 것, 이 둘을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량이 생기는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도 없이 빚을 덜컥 얻어가지고 가게를 얻어서 그걸 한들 이자로 다 빠지지 뭐가 남습니까? 먹고 사는 건 거기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들고 다니며 팔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가다보면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성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여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랍니다.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뜻을 행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 앞을 아주 정성스레 삼년을 쓸었답니다. 어느 날 은행원들이 장난삼아 생각하기를 '신문지를 오려서 돈처럼 만들어서 한번 내던져 보자. 그러면 아주 좋아서 들고 달아날거다.' 하고 신문지를 잘라 돈뭉치처럼 만들고 윗덮개만 돈을 붙여서 준비를 했는데, 딴사람이 교대를 해 들어오면서 진짜 돈뭉치와 바뀌어 버렸답니다. 그러니 진짜 돈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내던지고 신문지로 만든 가짜 돈은 가져가는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청소하던 사람은 그 돈보따리를 들고 가서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 학교를 지었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과 직원들 이름, 그리고 몇몇 아는 사람 이름을 넣었더랍니다.

그 학교 지은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신문사에서 은행으로 몰려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지고 그 사람네들이 탄복을 했답니다.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장난삼아 한 것이 현실로 벌어지면서 그 사람의 착한 마음도 알려졌고 말입니다.

또 어느 가난하지만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깁니다. 방 한칸이 없어서 쩔쩔매고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스님, 어떡하면 살겠습니까?" 하고 다섯식구가 우는데 그거는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어서 집엘 가봐라. 갈 때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더욱 좋을테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땐 돈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있었으면 그냥 다 줬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나의 위안에 울음을 그치고 가는데, 길바닥에 무슨 종이벽지 같이 생긴 큰 신문지 뭉치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신문지라도 필요하겠다 해서 가져 갔는데 가서 그 신문지를 풀어 보니까 돈이 잔뜩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급한대로 다섯식구 사는데 쓰기로 했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애길 해요, 허허. 구공탄 백장 들여놓고 쌀 한가마 들여놓으니깐 세상에 황제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스님, 참 고맙습니다"해요. 그래서 "왜 날더러 고맙대?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나도 없을 것이고 내가 당신을 보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없을 것이야. 언제나 사람과 모든 일체 생명들은 다 그렇게 해서 연관이 돼고 인연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어려워도 마음이 착하고 진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랬어요.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자기를 못믿는다면 그게 뭡니까"

생활이 심성과학…정신·물질 둘아닌 하나

지금도 그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좋다는 것만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소리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꼭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쓰고 생각을 넓게, 인(仁)으로써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두 잘들 하시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데서 무주상보시가 내릴 겁니다.

모두 상세계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이날까지 거짓말을 해서까지 중이 될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해서 차원이 높아지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름을 가지려고도 안했습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까닭에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름을 빛내거나 이름이 높아질 걸 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을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현혹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죄값은 어디서 받구요. 물론 죄값 안받을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죄값을 그렇게 내가 다 받게 되어서 물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들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또 여러분이나 다 평화롭게 고생없이 살 수 있는 상세계로만 된다면 나는 흔적이 없는 가루가 된다 해도 그렇게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쥐고 내 자(自)부처가 나한테 있다 하고 반야줄을 쥐고 나가기만 해도 그것은 50% 이상 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아주 기쁜 일이지요.

사고당하는 것도 인연인지요

문 스님, 제게 약 3년 동안 교통사고가 4번이나 났습니다. 차가 폐차가 될만큼 큰 사고도 있었고,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난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위험할 때는 "주인공, 이거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이끌고 가." 하고 관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사고가 나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니, 이것도 다 주인공 자리에서 공부시키기 위한 나툼이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관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과 저와의 인연이 해결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사고가 났고 더 잘 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 앞에서 아까 상점하는 얘기했죠. 이게 사고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주인공, 너만이 사고 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항상 미리미리, 사고가 나게 된 연후면 이미 지나가버려요. 나기 전에, 그래서 아침마다 관하고 타고 또 저녁이면 감사하게 관해라, 그 차도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차도 들습니다. 차도 듣고 안의 주인공도 듣고 말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자부처는 자기를 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해보세요.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그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관했는데 왜 이럴까 하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신하면 안되죠. 자기 뿌리와 자기 싹인데 어찌 된다, 안된다 이래서만이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야죠. 진짜로 믿고 관해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남이 다치거나 또 딴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죄없이 맞은 매는 빨리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오히려 내가 맞았으면 저 사람 수고를 시켜서 나를 사람되라고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을 거예요.

자비는 끝이 없는 것인지

문 스님께서는 현세에서 '고(苦)'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고(苦)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비라는 그 한자를 풀어보면 '자(慈)'는 '사랑 자' 이고 '비(悲)'는 '슬플 비' 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데 있어서는 자애로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끔한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되 함이 없는 그 비원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 끝없이! 끝없이 함이 없이 하고들 모두 가십니다. 이건 현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하고 가고 있어요. 함이 없이 하고들 가세요.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들은 사이 없이 듣고, 모든 걸 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지속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이 흘러 돌아서 또 돌고 도는 것처럼 그대로 끝이 없는 거죠. 그 끝없는 까닭에 바로 교차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원이 높아지느냐 더 낮아지느냐에 인제 생활이, 삶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비행기 추락이 잦은 이유

문 최근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사고난 곳 중에 캄보디아라는 곳은 과거 일제시대때 정신대 할머니들이 많이 끌려갔던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천을 방황하고 있던 그분들의 원혼이 거기에 끌려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님이 마음을 내셔서 구천을 방황하고 있는 원혼들을 좀 제도해주시고, 현재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이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님께서 원력을 좀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항상 돌고 도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셔도 그것을 해결 할 수가 없죠. 왜냐? 한번 재관을 받아서 그렇게 됐으면 그건 없앨 수가 없고 다시 금 돌려서 건지는 거죠. 왜 죽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유는 정신계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거기 끌려간 놈이나 끌고 간 놈이 있다면, 다시금 끌고 가는 놈이 되고 끌려가는 놈이 되고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그게 인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러면 말이 안되죠.

> 모든것은 내 모습 내 아픔과 같고
> 내 슬픔 내 배고픔과 같으니
> 모두가 내 도량 나아닌게 없어요

정신대 원혼 구제됐으면

문 그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런 고통은 어느 정도는 종교적인 걸로도 많이 승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연을 맺은 끌려간 사람들,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혼의 구제가 미쳐야 되지 않은가, 당장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떤 인연된 한마음 공동체라면?

답 이 정신계의 공부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종교를 믿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이 정신계의 뜻이 거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벗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다가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입력을 없애려면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야만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죠? 그런데 앞서의 입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모두 살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과로 인해서 업이 될 때에는 누구나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정신계의 50%를 같이 봐라 이런 거죠.

조상들 영탑에 모시고 싶은데…

문 저희 윗 조상님들은 지금 공동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천도재를 지내면서 공동묘지에 모셔져 있는 일에 대해 스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제가 지금 전세 사는 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도재는 지냈다 하나 공동묘지는 사실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탑으로 모실 마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친척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일반 산에 모셨으면 합니다.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육신은 그렇다 하나 혼을 전부 들어서 탑으로 모실 수도 있느니라" 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답 거기는 지금 조그만 셋방살이지,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나 저기 그 사람이나 모두 셋방살이인데 만약에 그 영혼을, 조상들의 영령을 건져서 탑에다 모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이라면 당신이 좋으니깐 그 마음도 좋고 그 마음이 좋으니까 당신도 좋게 되는 거지. 한 염주알이니까.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준 집에서 사는데 자식은 셋방을 산다 이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소? 어떠한 마음이라도 내서 좋은 일이 되게끔 해주실거요. 나는 죽은 사람 따로 치고 산사람 따로 치지 않아요.

문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저의 현실에서는 5대조부터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집안 친척분들이 다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영탑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마음도 많이 내면서 하지만 흐름이 같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답 그것은 그냥 놔 두고요, 위패에다 써서 다라니에 싸서 영령들만 모시면 거긴 빈터가 돼버려요. 육신은 사대로 다 가잖아요? 온기를 좇아서 가고 물로 좇아서 가고 흙으로 좇아서 가고 바람으로 좇아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되기 어렵고 부처되기는 더욱 어렵고 진짜 부처가 돼서 평등공법으로써 삶을 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애를 쓰지 않아도 안되고 애를 너무 써도 안된단 얘기죠. 그대로 자기 생긴대로 자기 모습대로 분수대로 살면서 오직 그 놈이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구나 하는 거, 그것을 진짜로 아신다면 그저 급하면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넣으면 바로 화해서 딴 걸로 변해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 생활자체가 심성과학입니다. 과학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무슨 물질과학, 정신과학 이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성과학이예요. 과학 아닌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묘한지 이거 보면 저거 보게 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버지 노릇 잘하고 아우 노릇 잘하고 이거 자동적으로 그냥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심성과학이지 뭡니까? 모두가 과학 아닌 게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과학 아닌 게 어디 있나요? 물질과학으로만 볼려니까 과학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학도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구멍이 한 털구멍이라면은, 이 털구멍 하나가 자불이라면, 털구멍에 이 세상을 다 넣어도 남음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털구멍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넣고, 또 생기면 여기다 넣고 그러면 붙을 게 없고 집착도 없고, 그렇게 되면 멸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없는 거죠. 그냥 모두 한 털구멍에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와 같이 바로 자기 자불에, 자불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주인공에 다 놔 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들 생각해요, 대두. 그래서 바깥으로 끄달리는 거죠. 100% 다 그냥 의사에 매달리고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반씩 분담을 해서 의사 반, 내 마음 반 이것이 돼야 합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싹을 살릴 수 있다' 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의사도 그 자부처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그것 또한 딴 손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할텐데 그냥 '주인공은 뭐, 뭐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름 불러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색경을 보면 자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색경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믿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거지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신!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게 아니죠. 자기의 근본 자불이에요.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협찬 장규봉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아파트 11동 1211호

불자 세상보기

대선후보들의 '종교·문화관'

BBS 대담
진행: 정병조 교수

제15대 대선고지를 향해 달리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정병조 교수(동국대 부총장)의 진행으로 불교방송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방송됐다. 6일 신한국당 이회창, 7일 국민회의 김대중, 8일 자민련 김종필, 9일 민주당 조순, 10일 이인제 후보 순으로 진행된 이번 방송대담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통일 외교 종교·문화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을 밝혔다. 이중 불교계의 현안인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 등 종교문화 관련 정책을 발췌해 요약한다. 아울러 본지 139호 7면에 게재했던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 후보의 종교정책과 이인제 조순 후보의 종교정책을 추가해 주요사안만 다시 표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이회창 (신한국당)

"불교 민족문화 원천"

불교는 민족문화의 원천이고 우리 생활과 풍속에 깊이 스며있는 전통종교라 각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 갈등은 없을 수 없다. 고대 인도의 아쇼카왕 당시도 다종교사회였지만 아쇼카왕은 서로 존중할 것을 골자로 한 칙령을 발표했다. 기원전 3세기에 펼쳤던 종교화합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본보기로 삼을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는 합동징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가야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겠지만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는 개발은 적극 피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문화재 전문가 및 스님들과 협의해서 문화재 보존과 사지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황룡사·미륵사지 복원은 꼭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다.



김대중 (국민회의)

"입장료 사찰 자율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는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문화재의 80%이상이 불교문화재인 점을 감안, 국가의 귀중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보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입장료는 받지 않는 방법이고, 또 문화재는 불교의 재산이므로 관리권을 전부 사찰에 주고 입장료는 사찰이 자율적으로 책정해 받는 방향이다.

좁은 국토에서 한정된 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라고 본다. 사찰의 입장을 우선시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인사 골프장의 경우 판결난 후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교계와 협의하면서 고려하겠다.

대통령이 자기종교단을 비호하는 것은 자기종교를 타락시키는 길이다. 각 종교가 자유롭게 발전해야 진정한 정의사회다.



김종필 (자민련)

"사찰, 환경보존 보루"

종교는 각자가 선택하지만 상호 존중해야 한다. 요즘 사찰방화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의적이라면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화 또는 개발 등으로 사찰환경이 위협받는 건 중대한 문제다.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자연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사찰환경을 훼손을 막아야 한다. 개발과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하듯 사찰환경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환경보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는 공단과 해당사찰이 잘 타협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환경부나 문체부의 중재도 필요하다. 군부대에서 포교 지원금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형평성을 잃고 있다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순 (민주당)

"종교, 사회갈등 치유"

종교의 목적은 사회평화 갈등해소 치유에 있다. 비록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집안이 다 불교라 심정적으로는 불자다. 개인적으로는 탄허스님, 한마음선원 대행스님 등과 인연이 있다. 얼마전 부산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전산화 기원 대법회에도 참가했다. 매년 징수되는 입장료가 270억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합동징수를 계속 하고 공원유지비 비율보다 문화재관리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사찰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월주 총무원장 스님이 탑골공원 원각사비가 산성비로 훼손되고 있다고 귀띔해줘 비각을 설치했다. 해인사 골프장 등 사찰환경보존은 우리 얼이 담긴 문화재라는 점을 명심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찰환경보존문제는 돈보다는 성의와 의지가 문제라고 본다.



이인제

"종교 협력 정부역할"

헌법에서조차 국교없이 중립을 지키는데,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정책은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 종교간의 공존과 협력을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합동징수를 잘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연히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요금 자체를 폐지하고 국가 재정에서 관리비 등을 충당해야겠지만 안된다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찰은 끊임없이 보수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재이고 전통적인 사찰 환경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해인사 골프장 문제도 당국의 조정능력이 한계가 있고 개인업자 역시 건설을 고수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불교인들 중심으로 당국도 협력하고 사업자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할 일이다.

현대불교 「종교정책」 설문 요약

당의 종교정책	지원협조, 종교를 시민교육장으로	특정종교 비호·배척 배제	종교의 사회적 역할보장	정(政)·교(敎) 분리로 자유보장	국민의 삶과 질 향상
종교간 화합방안	종교 본래의 목적에 충실	타종교 인정하는 합리적 사고 필요	편향된 종교정책 시정과 제도 수정	상호존중 풍토 정착화	배타성 완화, 관용성 강조 교육
군 1인1종교 갖기	일률적 강요 반대	종교 안가질 권리도 있어 무리	특정종교 편향 우려, 반대	종교선택은 기본권, 자율적으로	종교 강요 안된다
타종교 비방행위	처벌당연, 문화정치 실시	바람직한 종교활동위해 강력 대처	범인 색출, 엄격한 처벌	엄격한 법률적용	철저한 원인규명, 단속·처벌 강화
종교. 당선 후 신앙생활	천주교, 타종교 존중도 신앙인의 자세	천주교, 경건한 마음으로 공인답게	감리교, 대승적 불교관으로 타종교 예우	무교, 어떤 종교든 존중	무교,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
사이비종교 척결	국민정신건강 위해 척결	현행법 저촉 경우 법적 해결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	법적 제재 불가피	원인인 사회불안 요소 제거
사찰환경보존 대책	당정협의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정책적 대안마련 계획	사찰환경영향 평가 실시	미래지향적 정책 차원서 보호	정신도량 보호 차원에서 당연
문화재보존 정책	문화유산 우선 정책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관리국을 청으로 승격, 예산지원	문화재 보호는 문화수준의 향상	거시적 틀에서 적극 지원
팔만대장경 전산화	전산화작업 지원	영구보존의 방법. 당연히 필요	원만한 회향까지 지원	보존은 당연한 책무	국위선양에 도움
불교관계법 개정	불교계 의견수렴, 조기매듭 노력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	사찰농지 취득보장 마땅	무절제한 개발제한 입법화	예외규정과 다각적 검토 필요
종교계 과세	영리목적이라면 세금납부	종교재산특별법 제정 검토	형평성 고려, 종교재산특별법 제정	비과세 원칙, 영리목적일 경우 과세	종교법인의 부동산 규정은 불합리
종교법인법 제정	협의통해 정부에 건의	종교 특수성 감안, 신중히 검토	반드시 필요	일반법인법과의 차별성 검토	종교의 특수성 감안 필요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관계부처와 협의, 설립허가	절차상의 문제 없다면 허가	전국적 방송청취 위해 허가	타종교와 형평성 고려	형평성 원칙에서 허가
남북종교교류	대남전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권장할 사안, 창구 정부로 단일화	정부 적극지원 협조	남북 신뢰회복에 도움	민족통합 차원에서 큰 역할
종교인 진보적 사회참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도움	보살정신에 근거한 참여, 긍정적	종교 순수성 훼손 않는다면 무방	종교정신에 바탕한 활동돼야	'하화중생' 차원에서 긍정적
화쟁사상의 현대적 응용	균형적 사회발전 도모가능	통일문제 해결에 시사점 제공	민족화해와 동질성 회복에 바탕	민족발전을 도모할 기본 사상	우리사회의 정신적 길잡이
가장 감명 깊은 불서	법정스님 〈무소유〉	〈부처님의 생애〉	〈금강경〉 〈벽암록〉 〈대승기신론〉	〈금강경〉	〈법구경〉
청소년문제 해결 복안	의식개혁운동 필요	실력위주의 사회 지향	입시제도 개선, 인성교육 실시	입시제도 개선, 가치관 개선 선도	가정교육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과서 불교관련 오기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	마땅히 올바로 고쳐야	반드시 고쳐야	반드시 시정	전문가에 의뢰, 시정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②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운전면허 취득의 최대기회!
금강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으로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요즘 운전면허 취득할려면 최고 57만원에서 최저 52만원되는 수강료

⊙ 불자님께 해결 방안 제시 ⊙

■ 대 상 : 직장인, 대학생, 주부님, 일반인, 만 18세이상
■ 방 법 : 본학원 교육 1개월후부터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6개월~10개월)

■ 본 학원의 특징 ■

● 본 학원은 기능에서 도로 주행시험까지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 본 학원생은 학원에서 연습하여 학원에서 시험응시후 면허취득
● 직장인을 위한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교육 실시중
※ 시내 본 학원 통학차량 운행중
(버스노선 155, 285, 365, 385, 465, 558, 915 신가동 극락주유소 앞 하차)

★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요. (본학원은 구.아성자동차학원입니다.)

마이카 시대의 봉사자
운전면허시험장 금강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화 (062)951-9833,951-9855,954-5267(신가동 극락강주유소옆)

종단소식

조계종

수덕사 본말사 주지 연수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6~7일 양일간 황하정루에서 본말사주지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교구내 말사주지 및 암자 감원스님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종헌종법과 종무행정, 출가인의 수행과 사회적 역할, 종단사업 개요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마곡사 불사회향 법회

공주 마곡사(주지 철웅)는 27일 오전 10시 불사회향 및 타종식을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연화당, 극락전 극락교, 범종각 등 그동안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법회 및 타종식에 이어 영산대재 및 방생법회도 봉행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12명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학성)는 6일 제9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및 추가배정에 따른 당선자 적부심사회의를 열고 지난 9월30일까지 10개 교구에서 선출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한 당선을 확정했다.

당선확정자는 서울동부교구 김영길, 서울중·서부교구 이보봉, 강원교구 임대호·지혜성, 충북교구 임일송, 전남교구 전창길, 전북교구 전보성, 경북교구 진현묵, 제주교구 김종현, 봉원사교구 박용담, 백련사교구 김운경·최월해스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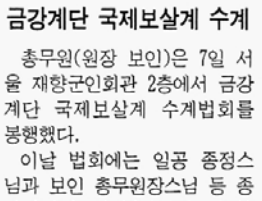
행자소양시험 38명 탈락

총무원(원장 인곡)은 8일 지난 9월30일 실시한 제21회 합등득도 수계산림 신청자에 대한 소양시험 결과 응시행자 1백6명중 38명이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양시험사상 가장 많은 탈락자를 낸 것으로 예년의 경우 탈락자가 2~3명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류우담 스님(교무부장)은 이에 대해 "이번 합동득도 수계산림부터 득도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 승려의 자질을 높여 간다는 종단의 방침때문"이라고 말했다.

천태종

대충 대종사 4주기 열반재



총무원(원장 운덕)은 4일 총본산 구인사 4층 법당에서 '대충 대종사 제4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열반재는 윤덕산 종회의장 스님의 법어와 국운융창기원,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운덕스님은 추모사에서 "중생들의 불안과 고뇌가 가득찬 사회를 진정한 불심의 원력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충대종사의 뜻을 이어받아 종단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화종

천국사 지장전 기공식

충북 영동 천국사(주지 해정)는 10일 지장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지장전은 55평 규모에 팔작지붕 콘크리트 양식으로 지어진다.

천국사는 또 한국 제1의 지장성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아래 지장전이 완공되는대로 지장전 내부에 1차로 지장보살 20만불을, 팔작지붕 모퉁이에 육불 2백불을, 지붕위에는 석불 1천7백불을 모실 계획이다. 3년 기한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는대로 천국사는 2차로 80만불을 지장전에 봉안할 예정이다.

원융종

금강계단 국제보살계 수계

총무원(원장 보인)은 7일 서울 재향군인회관 2층에서 금강계단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일공 종정스님과 보인 총무원장스님 등 종단간부와 영명(법상종 종정) 송정(조동종 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무찰(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 스승 그 제자들"

서울대 '청정회' 출신 9명 출가

강정진 법사 구도열 영향받아
"명예보다 생사 꼭 넘어서겠다"

최근 서울대 출신의 30대 불자 9명이 선망받는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수행자가 되겠다"며 출가,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등에서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최영삼(30·서울대 정치학과 졸)씨 등 행정고시를 합격한 중앙부처 사무관 2명과 서울대 자연대대학원생 서모(35)씨 등 4명이 불문에 귀의했으며, 이에앞서 지난해 2월에는 김형석(32·스학과 박사과정), 정창근(25·화학공학과), 신중수(31·천문학과)씨 등이 출가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이성룡(29·계산통계학과) 조용언(28·경제학과)씨 등 2명이 불문에 귀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세상살이가 덧없고, 허무해서"라느니, "정신적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자포자기"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을 잘 아는 도반들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뇌의 결단이었으며, 자아를 넘어서려는 불같은 의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과 함께 수행한 청정회(회장 강병희·36·한의사) 회원들은 이들의 치열한 구도열의 배경에는 스승인 취암(翠巖) 강정진(姜丁鎭·63)거사의 높은 가르침이 깔려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출가는 현실도피의 한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용맹정진의 귀결로 나타난 대발심이란 설명이다.

도반 9명을 산문으로 이끈 청정회는 지난 94년 12월4일 결성됐다. 93년 당시 서울대 4년생이던 조만래(30)씨가 우연히 강정진거사를 만나 수행방법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결성됐다. 현재 서울(878-1843) 부산(645-2073) 대구(257-6647) 대전(625-1080)지회에 총150명의 회원이 매주 직장·학교와 참선방을 오가며 정진하고 있다.

청정회 회원들의 지도법사인 강정진거사는 13세부터 '관세음보살'을 염하기 시작, 33세에 자나깨나 한결같은 오매일여(寤寐一如)의 경지에 들었으며 12년간을 18~20시간 좌선하는 용맹정진을 보였다고 제자들은 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스승의 불교관과 수행법을 담은 〈영원한 대자유인〉(경서원 刊)이 출간되어 불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매달 서울 부산 대구 대전지회를 오가며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강회병회장은 "그들의 출가는 뛰어난 스승아래 수행하고 있는 청정회 회원들의 수행열기가 자연스럽게 열매맺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진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정회 회원 1백50명은 바쁜 직장·학교생활에도 참선방을 오가며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강정진거사(뒷편 오른쪽에서 세번째)의 〈영원한 대자유인〉 출판기념회 장면.

김재경 기자



해운대서 원효대재

원효종 총무원(원장 무진)은 해동원효승가회, 토황회와 공동으로 4~5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송림공원과 동백섬 일원에서 '서당 원효 대성사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그리는 해운대 대재'를 봉행했다. 첫날인 4일 시련으로 막을 올린 이날 송림공원에서 영산대재와 수륙재, 인기 연예인의 공연이 열렸으며, 해운대백사장에서는 창작 연 날리기 시연대회와 농악놀이 등이 펼쳐졌다. 5일에는 동백섬에서 전국시조백일장과 한시백일장이 동시에 열렸다. 〈부산=천미희 기자〉

송광사 유물전시관 개관

국보 2점 등 문화재 1백15점 보유

순천 송광사(주지 현고)의 유물전시관 성보각(聖寶閣)이 3일 임시 개관됐다.

2층 1백50평 규모로 이뤄진 성보각에는 국보42호인 목조삼존불감 등 국보 2점을 비롯 보물 178호인 금동요령, 보물1043호인 진각국사 진영 등 보물 9점을 포함, 총1백15점의 성보문화재가 전시된다.

효봉대종사 31주기 추모대법회와 함께 열린 성보각 개관식에는 법련사 회주 현호스님, 화엄사 회주 종원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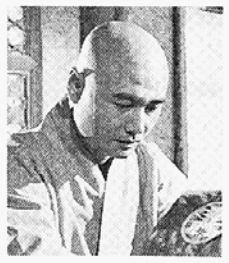
송광사 성보각은 대웅전 맞은 편 왼쪽 건물로 건물외형자체는 88년에 완성된 상태. 그동안 예산부족에 따른 내부시설 미비, 대상유물 선정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96년 공사를 재개, 이번에 개관한 것이다.

성보각 관계자는 "1층 수장고 내부시설 등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지만 성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시개관했다"며 "전문인력을 배치, 내년 4월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영화 '성철'

주연에 장석남 시인

박철수 감독의 영화 '성철'(월드씨네텍)의 성철스님 역에 시인 장석남씨〈사진〉가 캐스팅됐다. 불필스님 역에 이혜은씨, 성철스님 아버지 역에 전무송씨, 일휴스님 역에 김예령씨가 각각 캐스팅돼 10월말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3일에는 내소사에서 제작진 산행을 하는등 촬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7 문화유산의 해

10월 테마여행 - 화엄사 연곡사

한국인의 삶과 죽음(부도·석등의 의미)

단풍빛 고운 산사(山寺)를 찾아 보시지 않으렵니까?

한민족의 영산 지리산(智異山). 이 산에는 화엄사상의 으뜸도량 화엄사를 비롯 연곡사, 천은사, 쌍계사 등 이름높은 고찰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엄사는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찾게 되는 곳입니다.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화엄사 4사자3층석탑과 석등, 2층구조로 이루어진 각황전의 중후한 건축미, 도량에 스며있는 신비한 이야기 등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또한 이 사찰은 화엄사상이라는 고매한 불교사상이 깃들어 있어 단순한 눈요기 이상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25당시 빨치산의 주요무대였던 지리산 피아골에 자리잡은 연곡사. 빼어나게 아름다운 부도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라부도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국보53호인 동부도를 비롯 국보54호인 북부도, 보물154호인 서부도 등 통일신라시대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거쳐간 이름모를 고승들의 부도가 사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아골을 온통 피빛으로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과 그 속에 스며있는 빨치산의 한, 그리고 고승들의 열렬했던 수행정신이 깊이 살아숨쉬는 이곳에서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

■ 참가 안내

◇출 발: 10월 25일(토) 밤10시·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조식제공)
◇안 내: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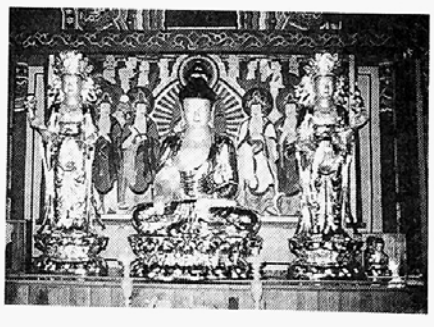
우 신
건축사사무소
건축 계획,설계,감리
건축사 문 근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18-80번지
전 화 : (062) 525-3130 521-1845
F A X : (062) 514-1404

마르고 허약하십니까?
체력보강을 원하십니까?


듬직한 체력!! 복스런 얼굴!!
아무리 드셔도 살이찌지 않습니까?
허약하고 마른체질은 아무리 좋은걸 드셔도 체내에서 영양분 흡수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체질은 영양분 흡수력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자보령포르테는 자라를 주원료로 하여 녹용, 다시마, 로얄제리, 대두레시틴, 키토산, 비타민E, 식용달팽이 엑기스등을 복합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학생이나 수험생, 노약자 갱년기, 병후병중 회복기, 허약체질, 신경체질 살이 안찌는 체질을 살찔수 있는 체질로 개선시켜주므로 살찌고 싶은분에게 꼭 자보령포르테를 권장하고 싶다.
삼진키토산, 하이칼슘 D를 첨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조원 건강식품을 이룩하는 — 삼진제약(주) 판매원 일진제약(주) 식품사업부
080-061-1700
080-061-0707
이 전화는 「일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요금을 부담합니다. 차임벨이 울린후 통화해 주십시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
반 야 심 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만성지병 투병환자의 영험적 복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외지처입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휘호대회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敎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불상조성 전문업체
대일불상 조성소

전통불교문화 발전을 염려하시는
대덕 큰스님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
말씀따라 불사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불상·석불·동불·목불·천불조성·
인조석등·조각탱화·대리석·개금·
순금불사등 불사일체
대일불상조성소
대표 : 심준식(우형) 子 : 심민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14통 4반 57-91
전화 (062)652-2384, 651-9931(子)
핸드폰 (父)011-642-2384 (子)011-604-2384

대학서도 참선명상 '열기'

서강대 교양체육에 '위빠사나'…수강신청 30분만에 마감

불교수행법 위빠사나 강좌가 대학교에선 처음으로 정규과목에 채택됐다.

서강대학교(총장 이상일)는 위빠사나(중도선)를 9월 2학기부터 '정신건강과 참선명상'이란 교과명으로 2학점짜리 '교양체육' 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이는 사찰이나 기업체 연수교육, 정신문화원, 문화센터 등에서 인기리에 강좌가 개설되는 열기가 대학교로 확산, 관심을 끌고있다. 더구나 학생들의 수강열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목 강의를 맡은 정동수교수(서강대 영문과)는 "영국유학 때 미국인 스매도스님께 2년동안 사사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호흡법과 좌선 및 명상 등을 실기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특히 "선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편안한 자세라야 된다"며 "이 수련이 습관화 된다면 자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참선명상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서강대 최희남교수(교양체육)는 "당초 이 과목이 학생들에게 생소해 수강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며 "수강신청 30분만에 마감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고 학생들의 참선명상 열기에 놀라워 했다.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김지원(독문과 3년) 학생은 "취업준비로 인해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위빠사나 수련을 하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위빠사나는 부처님께서 8선정을 뛰어넘어 견성해탈에 이른 중도적 명상 수행법으로 핵심은 사념처관(四念處觀)에 있다. 사념처관이란 몸, 감각, 마음, 법 등 이 네가지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신관(身觀), 수관(受觀), 심관(心觀), 법관(法觀)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위빠사나는 갖가지 교양강좌와 책을 통해 대중속으로 다가갔었다.

특히 기업체의 호응이 높아 삼성그룹은 거해스님 강의를 담은 사원교육용비디오까지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김열권씨의 저서 〈위빠사나 1, 2〉는 사찰에서 수행교재로 인기리에 활용되고, 김정빈씨의 저서 〈마음다스리는 법〉(둥지)은 7만권이 판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김주일 기자〉

석왕사 '왕생극락전' 15일 개관

임종부터 납골까지 장례서비스 실시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경내에 종합장례법당 왕생극락전을 15일 개관한다.

건전한 불교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1백평규모의 왕생극락전은 임종법당 안락정토, 빈소 도솔천궁 2개소, 납골당 영묘각, 영안실 왕생당, 장의용품판매소, 사무국을 갖추고 임종부터 납골까지 최소의 비용으로 종합장례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임종법당 안락정토는 임종직전 부처님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임종전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24시간 응급차가 출동하여 이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지 영담스님은 "99년이후 25년간 한시적인 매장을 원할경우 별도의 가족묘지를 무료로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며 "2천년경 2~3만기 수용규모의 대규모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032)6673-404

교회장로 불교비방 책발간 '물의'

서울역광장서 배포…잇단 훼불 대책 절실

대전중앙성결교회가 8월 24일 성철스님의 법어를 폄하하는 내용을 배포한 전단지가 현직 교회 장로가 제작한 책자에서 인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신타파운동본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소책자 〈이판사판〉(김인근장로 저, 도서출판 더불어刊)이 바로 그것. 이 책자의 내용 가운데 성철스님의 법어를 비하하는 내용이 대전중앙성결교회가 배포한 전단지와 똑같기 때문이다. 대전성결교회측이 9월 13일 작성한 '사과문'을 살펴보면 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과문에 따르면 "기독교계에서는 서울등 각지에서 이미 작성 사용된 내용을 확인없이 전단지 일부분에 대전중앙 성결교회명칭을 삽입해 배포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책자 〈이판사판〉에서도 전국교회 목사에게 무료로 보내다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배포된 〈이판사판〉 표지에는 이판승과 사판승의 극렬한 싸움이란 뜻으로 속담이 생겼다며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표현했다. 책의 내용은 윤회설과 극락설을 사실인가, 이판사판이란 무엇인가, 현대불교의식·신앙의 문제점 등 총 10장으로 돼 있다. 〈이판사판〉은 각 장마다 '불교는 미신과 화합하는 종교다', '불법은 허무주의 철학이다', '헛된 속임수로 교묘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불교' 등 불교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훼불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미신타파운동본부는 6일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교 음해 전단인 〈이판사판〉을 배포했다.

신흥사 통일대불 25일 '점안'

전몰군경 영가천도도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 통일대불 점안대법회가 25일 오전 11시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된다.

지난 87년에 착공해 11년만에 완성된 통일대불은 좌불 높이 14.6미터에 좌대 높이 4.3미터, 좌대 직경13미터 광배 높이 17.5미터의 초대형 청동불상이다.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은 통일대불의 점안에 앞서 "11년간 전 국민의 통일염원을 담아 조성한 통일대불의 점안은 민족통일의 서광을 이 국토에 비추는 큰 불사"라며 "휴전선에 인접한 신흥사는 앞으로 통일기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명실상부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안법회는 점안 법요식에 이어 호국전몰군경및 산악인 영가천도의식과 연등 점등식으로 진행된다.

성철스님 사리탑 해인사 '내홍'

상림회 "백지화하라" - 문도회 "이해부족이다"

해인사가 성철스님 사리탑건립과 관련 내홍을 겪고 있다. 소장파 스님들로 구성된 상림회측의 "1천여평을 차지하는 호화사리탑 건립은 청정가풍을 왜곡하는 처사"라는 주장에 대해 성철스님문도회측은 "사실과 전혀무관하다"며 "사리탑건립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면 비난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림회(공동의장 원학 향적 여연)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주문과 1백미터 거리에 1천여평의 호화사리탑을 조성하는 것은 일부 문도들의 상업주의적 발상때문"이라며 "성철스님 대형사리탑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해인사 경내지에 약 3만여기의 유골을 안치할 납골당 건립도 전면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성철스님문도회는 8일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성철스님의 사리탑 부지는 1백62평으로 마치 1천여평의 호화사리탑을 건설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리탑을 단지 한개인의 소유나 한문중의 불사로만 생각하는데서 나온 근시안적이고 왜곡된 생각이다"고 밝혔다.

목탁소리

말로만 종교화합

위 영 란 〈취재1부 부장〉

월드컵 출전 축구 예선에서 공이 골대 망안에 들어가는 순간순간 마다 온국민은 하늘을 흔들듯 열광하며 하나가 됐다.

경기가 벌어지는 근2시간 동안 국민들은 진한 동포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에 이어 아탑에미레이트연합을 눌렀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꼭집어 표현할 수 없는 애국심이 절로 생긴다. 그래서 스포츠는 국민화합과 단결을 촉진시키는 국민적 청량제이다.

연일 국민들은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을 찬양했고 신문 방송들도 각광을 보냈다. 어두운 정치현실과 경기침체 속에서 살맛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축구예선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옥의 티'가 있다. 그것은 축구팀을 대표하는 차범근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를 공식멘트로 반드시 짚고있는 것.

'주님께 감사' 하는 국가대표팀

그의 개인적인 종교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그가 쌓은 공로나 실력이 삭감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할렐루야팀'과 같은 특정단체의 감독이라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다.

다만 국민적인 정서를 한 생각 더 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가대표팀은 굳이 분류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특히 감독은 팀의 대표성에 비추어 더욱 공적인 위치이다. 국민적 열광이 극에 달한 경기종료 직후 아무리 '소감'이라 할지라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주님…" 운운하는 것은 찰나의 그 순간 또다른 국민적 위화감을 싹트게 한다. 국민의 49%가 무종교인이고 또 40% 가까이 다른 종교의 신념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나 문화 예술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국민적 일치감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뉴스 & 뉴스

백천사 사경·사불대회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스님)는 21일 김교각스님 기념관 개관기념으로 사경·사불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동림동문회(회장 성웅스님) 주최로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반야심경〉 사경과 '지장왕보살' 그리기 경연대회를 열어 시상할 예정이다.

클래식음반과 가방등 푸짐한 경품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자들 외에도 지장보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346)577-6433

영산법화사에 또 화재

서울 혜화동 영산법화사(주지 행산)에 5일 새벽2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지하 1층 서고를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를 처음 목격한 천우스님에 따르면 "잠을 자던 중 행인이 창문을 두드리며 불이 났다고 소리쳐 나와보니 1층에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했다. 또 주지 행산스님은 "누군가 지하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정훈스님(원주)외 1명이 연기에 질식,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영산법화사는 91년 3층 법당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6천여만원을 재산피해를 입었다.

청소년 출입금지 4곳 요청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은 8일 인천시에 인천 주안 카페골목, 청천동 청천극장 부근, 제물포 뒷역, 부평역 진선미예식장 뒷쪽 등 4곳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 심의결과에 따라 청소년 통금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불광법회 창립23주년 행사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철)는 12일 불광사 불광법회 창립 23주년 기념법회와 기념행사로 바라밀장터를 연다. 1부 기념행사는 불광회 초대회장 한탑스님의 기념사와 에드워드 트립교수의 신앙발표가 있고 연예인 불자회의 축하공연이 있다. 2부 바라밀장터는 지역주민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먹거리 볼거리 등이 마련된다.

도안사 청소년심포지엄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는 5일 서울포교단 정광사에서 반야바라밀결사 보현도량 창립 5주년 봉축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세기 불교청소년 육성-그 방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노승대(에밀레박물관 학예연구원) 조달현(청소년교화연합회 사무국장) 이신숙(코끼리유치원장)씨 등이 참여해 '불교청소년수련원의 특성과 방향' '불교청소년의 육성의 바람' 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고 문 : 박갑철 유인현 문영선 박동례 김영기 최병순
자 문 : 조돈오 김창식 자비행 한대수 현경진 김주혁 김주욱 박영호 오남애 성태진 이종선 김영식 현관음행

신 도 회 장 : 박도화 보살
신도부회장 : 김성룡 이봉춘 감로행 이갑순
신 도 총 무 : 정삼순 보살
신 도 포 교 : 정윤채 김복순 석영희 김연순
신 도 사 회 : 주희정 유승자
신도행사담당 : 한문규 이영출
신도청년회장 : 이상기 부회장 : 정경조 정계순
신도봉사담당 : 김정순 양양덕 최동분

비구니 백 시 법

心氣道 禪武氣空會
六神通 道通會 院長 泰日法師 合掌
大韓佛敎藥師禪院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직통)02-821-6622 야)923-3110 휴)017-236-311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회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사람, 사회, 이해를 위한 가치경영

現代 창립50주년

— 오! 놀라워라 휴대폰에 한글이 뜬다 —

국내최초 한글 휴대폰 출시



오! 놀라워라, 휴대폰에 이제 한글이 뜬다
휴대폰 LCD에 한글(영문 겸용)로 메뉴가 뜹니다.
이제, 한글로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놀라워라, 못받은 전화는 한글 메세지로 일러준다.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한글SMS(Short Message Service)로 못 받는 전화조차 따로 받아 놓습니다. 메세지 수신 시그널에 따라, 음성 사서함을 열어 보거나 상대방이 남겨 놓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놀라워라, 휴대폰이 바이오리듬까지 체크해준다
사용자의 생년월일만 입력하세요. 손쉬운 조작만으로 그날 그날의 신체, 감성, 지성 지수를 체크해주는 특허받은 휴대폰입니다.



오! 놀라워라, 전국의 지역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메뉴얼로 내장된 전국의 지역번호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쓰는 지역번호를 선택해두면 걸 때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제품

한국 사람, 한글 휴대폰 -
현대디지털 휴대폰 '한글' 탄생

현대 디지털 휴대폰 '한글' 이라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 Power Save Function 채택으로 배터리 사용시간 대폭 향상
- Echo Canceller 기능 채택 : 울림과 반사음을 제거한 보다 깨끗한 통화음질
- 한글 Keypad 채용(13개의 다양한 벨소리)
- 시보/국번/전화번호를 스스로 인지하는 자동 하이픈 기능

한국 사람, 한글 휴대폰 -
현대디지털 휴대폰 한글

고객 상담실 ■제품문의 및 고객불편상담:02)538-1472(서울·경기지역) 080-980-1472(기타지역)
■A/S접수 및 상담:080-930-1472

현대전자

22 해외불교대학
23 거사림회
24 25 군포교 설문
27 '현대불교' 3년

北의 성보 볼수록 통일염원 '새록새록'

한국의 불상 가운데 그 유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상세트·금강산의 절경속에서 1천여년의 풍상을 이겨낸 금장암 4사자3층석탑·'영강7년'이란 제작연대(551년)를 분명히 기재하고 있는 고구려 금동불상의 광배 등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내 성보문화재들이 최근 언론에 연이어 공개돼 그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제3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 문화재 사진들은 그동안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들만 보아오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줘 학계와 불교계는 물론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충식 동국대교수는 "북한내의 문화재들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입수,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의 자료보다 선명할 뿐만 아니라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상 세트 등 새로운 자료가 있어 성보문화재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재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제3자를 거쳐 확인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남북한 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학술조사를 정부가 적극 주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반세기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북한소재 성보문화재들의 컬러사진을 소개, 민족통일의 염원을 천만여 불자와 함께 기원해 본다.



금강산 금장암 4사자 3층석탑(북한 국보급 45호)
화엄사 4사자 3층석탑을 연상시키는 고려시대의 석탑. 천년의 세월을 금강산의 절경과 어울리며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고 있다.
〈동아일보 10월4일자〉



고구려 금동불상 광배
뒷면 명문 오른쪽에 '영강7년(永康七年)'이라는 제작연대(551년)가 분명히 적혀 있어 고구려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국일보 10월7일자〉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과 지장보살이 짝을 이루고 있다. 본존은 육계가 길고 뾰족하며, 관음은 유희좌를 취하고 있는 등 원(元)의 라마계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려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10월7일자〉



해주다라니석당(북한 국보급 25호)
고려 밀교미술의 뛰어난 조형미와 정신적 깊이를 함께 담고 있다. 평북 용천군 성동리 다라니석당과 쌍벽을 이루는 귀중한 문화재. 국내에는 그 유례가 없다.
〈동아일보 10월5일자〉



개성 화장사 사리탑 (북한 보물급 34호)
반구형의 몸돌 위에 두 겹의 연꽃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고, 그위에 33천의 우주를 상징화한 원반형돌이 얹혀 있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고려 말(14세기)의 고승 지공화상의 사리탑으로 추정.
〈동아일보 10월6일자〉



금동인왕상투각판 평양 평천동에서 영강7년명 광배와 함께 출토. 칼과 창을 든 인왕상의 모습과 날카롭고 동적인 선에는 웅혼한 기상과 힘이 넘치는 고구려 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일보 10월7일자〉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선재동자상 〈화엄경〉 '입법계품' 중 진리를 찾아 헤매는 선자동자가 53선지식 가운데 하나인 관음보살을 만나 진리를 묻고 있는 모습.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를 조각으로 표현한 한국 불상 중 유일한 예로 고려때의 작품이다. 주변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준다.
〈조선일보 10월7일자〉



창간 3 주년

세계화 바람을 타고 불교계에도 유학붐이 일고 있다. 단일 학위과정으로 한국 불교학이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들 대학에 유학한다는 것은 원시경전 연구를 비롯 기타종교 언어학 철학 등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불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불교학을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세계 유수 대학을 현지 유학생들의 협조를 받아 정리했다.

불교학 이젠 지구촌 필수학문

미 국 티벳불교·인도철학 연구 주류
스리랑카 국립학제…영어강의 팔리대 유명
유 럽 박사과정·연구소 중심 운영
일 본 일반대학서도 다양한 학과 개설

미국 미국의 불교학은 대학의 규모가 크고 전통이 있는 주립대학에서 개설 운용되고 있는 종교학과와 종교관련 연구과정을 통해 교육된다. 학부과정 종교학은 주로 교양교육 수준인 반면 전문 불교학은 석사과정(M.A. Master of Art)에서 시작된다. 현재 3명이상의 불교학 교수를 확보하고·있는 대학은 버지니아, 시카고 대학이며 하버드, 콜럼비아, 미시간, 프린스턴,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 등이 불교학 교수 2~3명을 확보해 놓고 있다.

대학에서 불교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립된 '학위' 수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버클리, 미시간, 버지니아, 콜럼비아, 위스콘신, 인디애나 대학 등이 독립된 학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불교학은 일본, 티벳불교와 인도철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곳은 버클리대의 '버클리 불학 그룹'이 유일하다.

학제는 4학기(1년)로 봄, 가을학기를 기점으로 대학의 운영방침에 따라 대학 지원이 각기 다르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증서, 토플점수, 추천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일본 일본의 불교대학은 주로 오사카, 나라 지역에 집중돼 있다. 불교학을 개설한 대학에는 종단이 세운 종립대학과 일반대학 등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되며 불교학, 불교문학, 불교심리학, 불교역사학, 선학, 범어, 진종학 등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특히 하나죠노대학이 개설한 '선적(禪籍)D/B' 강좌는 세계 유수 대학의 불교학 교육과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강좌로 이름높다.

1월과 10월에 신입생을 받고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본어 능력을 각기 구분해 놓아 외국인은 '1급 일본어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 자격시험은 매년 12월 첫주 월요일 일본문화원에서 신청을 받아 시험을 거쳐 등급을 받는다. '일본어 자격'이 없는 경우 각 대학에 개설한 1년간의 연구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은 '박사전기과정' 혹은 '수사과정'으로 통칭되며 논문 보다는 시험을 통해 인정된다. 시험에 합격하면 박사과정인 '박사후기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불교대학은 모두 국립으로 학제가 각기 다른게 특징이다. 이중 캘라니아, 불교팔리대학 등이 유명하며,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매년 7월중 신입생을 받는 캘라니아대학은 일반, 특수과정 등 이원화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은 1년동안 학업성적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과정은 불교사상사, 철학, 팔리어 등을 3년간 교양수준으로 배우며 특수과정은 전문강좌를 통해 4년간 배운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일반과정의 경우 석사과정(M.A./M.Phil)에 지원할 수 있다. 반면 특수과정의 이수자는 석사과정을 뛰어넘어 박사과정(Ph.D.)을 신청할 수 있다. 인문석사과정인 M.A.는 시험을 통해 학위가 인정되며 철학석사과정인 M.Phil(Master of Philosophy)는 M.A. 보다 어렵고 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학위가 인정된다.

불교팔리대학은 캘라니아대학과는 달리 일원화된 4년간의 교육체계가 마련되 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스님인 것이 특징이다. 팔리대학은 매년 1월중 입학 신청을 받으며 이 곳에 유학하기 위해선 전년(前年)에 지원을 해야 한다.

캘라니아, 불교팔리대학의 지원서류로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英文)와 영어교육을 주로한 연구과정을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

유럽 원전연구와 인도철학이 불교 관련 학과로 주류를 이룬 유럽에서는 박사과정에만 독립된 '불교학 학위과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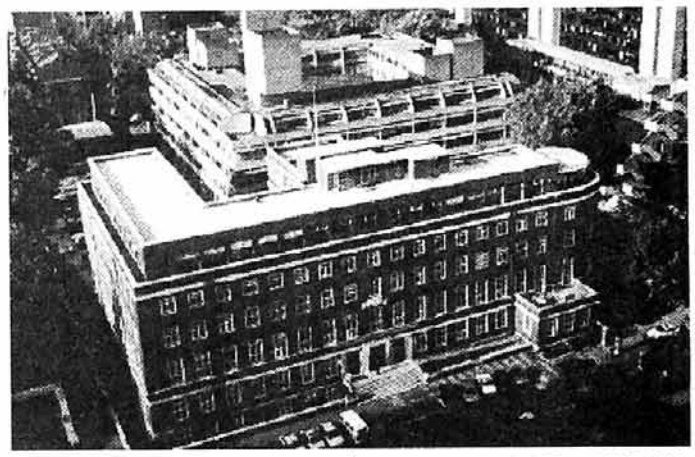
팔리성전협회 회장인 곰브리히교수(R.Gombrich)가 주축이 된 옥스포드대학도 석사과정(M.Phil)에서 인도종교학 학위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D.Phil)에서 원시불교, 대승불교, 팔리경전 등 불교학 과목의 연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런던대의 경우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SOAS)가 학부과정부터 한국학, 아시아 종교학 등을 개설한 것이 주목된다.

독일은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불교학 연구가 진행된다. 괴팅겐대학의 남방어와 남방불교를 주로 연구하는 '인도학-불교학 연구소', 빈대학의 논리학과 불교철학을 연구하는 '인도학 연구소' 등이 주요 대학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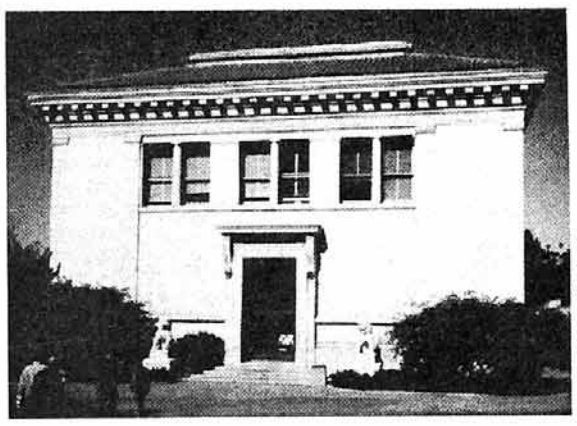
각 연구소의 연구 주제를 볼 때 독일에서 불교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원어, 불교철학, 대승불교, 근본불교 등 불교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독일의 학제는 대동소이하며 영국의 경우 토플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 독일의 교육비는 학기당 10만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이곳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범어나 팔리어 등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유럽의 학기는 4월과 10월에 시작한다.

오종욱 기자



◇런던대학의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전경. 런던대학은 세계 주요 대학중 학부과정부터 '한국학' '아시아 종교학' 등을 개설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두란트 홀'(Durant Hall).

불교학 개설 각국대학 현황

미국

〈하와이대학〉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epartment of Religion Sakamaki Hall, Honolulu, HI 96822
☎ (808)952-8111
M.A in Religion

〈프린스톤대학〉 Princeton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n, 1897 Hall Princeton NJ 08544
☎(609)258-4520
Ph.D in Religion

〈위스콘신대학〉 Wisconsin University, Department of South Asian Studies, 1238 Van Hise Hall, 1220 Linden Drive, Madison, WI 53706
☎(608)262-3012
Ph.D. in Buddhist Studies

〈버클리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Department East Asian Language, 104 Durant Hall, Derkeley, CA 94720
☎(510)642-3480
M.A Chinese, Japanese

〈시카고대학〉 Univeristy of Chicago, The Divinity School,, 1025 east 58th Street
Chicago, IL 60637
☎ (312) 702-8200
M.A. in Religious Studies
Ph.D in Religious Studies

〈미시간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Department of Asian Language and Culture, 3070 Frieze Building, Ann Arbor MI 48109
☎ (313) 764-4475
Ph.D. in Buddhist Studies

〈버지니아대학〉 University of Virginia,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Cocke Hall, Charlottesville, VA 22903
☎ (804)924-3741
M.A. in Religious Studies
Ph.D. in Religious Studies

〈캘리포니아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Box 951540, Los Angeles, CA 90095-1540
☎ (310)206-0257
Ph.D. in Buddhist Studies

〈예일대학〉 Yale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Box 208287, New Haven, CT 06520
☎ (203) 432-0828
Ph.D. in Religious of Studies

〈스탠포드대학〉 Stan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Building 70, Stanford CA 94305-2165
☎(415)723-3322
M.A. in Religious Studies
Ph.D. in Religious Studies

〈콜럼비아대학〉 Columbia University, Depart ment of Religion, Kent Hall Room 617, Mail Cook 3949, 1140 Amsterdom Avenue, New York NY 10027
☎ (212)854-3218
M.A. in Religion
Ph.D. in Religion

〈펜실바니아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Box 36, Colige Hall, Philadelphia, PA 19104
☎ (215)898-7453
M.A. in Religious Studies
Ph.D. in Religious Studies

스리랑카

〈캘라니아대학〉 University of Kelaniya, Kelaniya, Srilanka
☎ (1)9111-913
M.A./M.Phil/Ph.D.

〈팔리불교대학〉 Th Buddh.st Pali University, 214 Buddhaloka Mawatha, Colombo 7, Srilanka
☎ (1)580-609
M.A./M.PhilPh.D.

일본

〈료오고쿠대학〉 龍谷大學, 京都府 京都市 伏見區 深草 塚?町 67, 文學硏究科
☎(075)642-1111
(전공) 진종학 불교학 철학

〈하나조노대학〉 花園大學, 京都府 京都市 中京區 4 京區 內町 8-1, 文學硏究科
☎(075)811-5181
(전공) 불교학: 선종학 선사상사 선문학 불교철학 선적D/B

〈고마자와대학〉 駒澤大學, 東京都 世田谷區 駒澤 1-23-1, 人文科學硏究科
☎(03)3418-9116
(전공) 불교학 철학: 진종학 정토교리사 조동사 불교사 불교문헌 불교교학사

〈다이쇼대학〉 大正大學, 東京都 豊島區 西巢鴨 3-20-1, 文學硏究科
☎(03)5394-3024
(전공) 불교학 종교학: 범어 천태학 진언학 정토학

〈붓쿄대학〉 佛教大學, 京都府 京都市 北區 紫野北花 坂町 67, 文學硏究科
☎(075)491-2141
(전공) 불교학 정토학 불교문학

〈류쇼대학〉 立正大學, 東京都 品川區 大崎 4-2-16, 文學硏究科
☎(03)3492-3830
(전공) 불교학 종교학 철학: 종학 종사 불교학 불교사학 불교고고학 종교학

〈다이고쿠대학〉 大谷大學, 京都府 京都市 北區 小山 上總町, 文學硏究科
☎(075)411-8162
(전공) 진종학 불교학 철학 불교문화

영국

〈옥스포드대학〉 The University of Oxford, The Oriental Institute, Pusey Lane Oxford, OX1 2LE England U.K
☎(186)527-8190
M.Phil 인도학(內 불교학)
D.Phil 불교학, 팔리어

〈브리스톨대학〉 The University of Bristol, Tyndall Avenue, Bristol BS8 1TH, UK
☎(117)928-9000
M.A 불교학

〈런던대학〉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Thornhaugh Street, Russell Square, London WC1H OXG
☎(171)637-2388
학부/석사(M.A) 학국학, 아시아종교학

독일

〈알버트-루드비히대학〉 Albert-Ludwigs-Universitat Freiburg, (Studentensekretariat) Heinrich-von-Stephan-Stra Be 25, 79085 Freiburg Orientalisches Seminar, Humboldtstr 5 D-79058 Freiburg
☎(761)203-3158
(전공) 팔리어, 산스크리트

〈괴팅겐대학〉 Universitat Gottingen, (Studentensekretariat) Burgstr 51, Postfach 3744, 37072 Gottingen, Seminar fur Indologie und Buudhismuskunde(인도학-불교학을 위한 세미나(연구소))
Hainbundstr 21 Gottingen.
☎ (551)39-9541
(전공)남방어, 남방불교

〈본대학〉 Rheinische Friedrich-Wilhelm-Universitat Bonn, (Akadsmisches Auslandamt) Poppelsdorfer Allee 53. 53115 Bonn, Indologisches Seminar(인도학 세미나), Hauptgebaude. Regina-Pacis-Weg7
☎(228)730
(전공) 범어, 티벳트학

〈함부르그대학〉 Universitat Hamburg, Institut fur Kultur und Geschichte Indiens und Tibets (인도와 티벳의 문화와 역사를 위한 연구소) neue Rabenstr. 3. 20354 HH.
☎(40)4123-1
(전공) 대승불교

〈빈대학〉 Universitat Wien,
▲Institut fur Indologie(인도학연구소) Neues Institutsgebaude. A-1010 Wien
☎ ++43-1-4277-43501

▲ Institut f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티벳학-불교학 연구소) IX. Maria Theresien-Strabe 3/11
☎ ++43-1347-493
(전공) 논리학, 불교철학

인도

〈바나라스 힌두대학〉 Banaras Hindu University, Varanasi 221005
☎(542)31-2059
(전공) 팔리, 불교학
Ph.D. K.C.Jain
Ph.D. P.Dubey

〈마하라자 사야지라오대학〉 The Maharaja Sayajirao University of Baroda, Opp Drug Laboratory, Shastri Bridge Road, Fatehgani Vadodara 390002
☎(265)32-9283
(전공)범어
Ph.D. J.A.Jain
Ph.D. R.I.Nanavati

〈캘커타대학〉 University of Calcultta, Senate House 87 College Street, Calcutta 700073 West Behgal
☎(33)241-0074
(전공) 팔리, 범어, 불교철학
Ph.D. D.K.Barua
Ph.D. S.P.Banerjee
Dlitt A.Chatterjee

〈델리대학〉 University of Delhi, University of Delhi, Delhi 110007
☎(11)725-7725
(전공) 종교철학
Ph.D. V.P.Varma

〈푼대학〉 University of Pune, Ganeshkhind Pune 411007, Maharashtra
☎(212)33-3899
(전공) 범어, 프라트리크
Ph.D. S.V.Bhate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참사람 열린교육 2000 동국 백주년

지금, 동국대학교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대학최초! 98학년도 입시 지방 8개지역 현지방문 전형 ■
제주를 비롯, 지방 8개 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원서접수, 논술, 면접까지 모든 전형 실시.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활을 수행해온 본교가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써 수요자(학생)중심의 대학행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가계의 경비절감 기여 예상

'96년 교육개혁실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명문사학으로의 명성을 재확인한 민족사학 동국대학교-비전! 동국 100년 마스타플랜사업의 실천을 통해 21세기 세계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비전 1. 열린교육실현
비전 2. 캠퍼스 특성화 실현
비전 3.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연구기능의 사회참여강화
비전 4. 한·양방 의료협전체제 구축

● 정보매체센터 기공! ●
첨단강의를 통한 국가정보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질 정보매체센터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공과대 농구장과 역경원자리에 들어설 이 센터에는 정보산업과학대학과 각종 증명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될 종합민원실, 대장경 한글화의 산실 역경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 룸비니관 건립 추진 ●
식당 및 휴게실로 전용될 가칭 룸비니관이 완공되면 그동안 캠퍼스내 부족한 식당문제가 완전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되는 룸비니관은 1,2층은 학생식당, 3층은 교수식당으로 사용되며 수용인원 9백여명을 자랑하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 전화 : 260-3026 전송 : 260-3600

재단법인 선학원

"민족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 일
상무이사 법 진

이 사 범행·도의·성열·성문·상월
경희·자민·혜운·도형·동림
오원·성우·정수
감 사 정관·법운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02)734-9654~6 FAX 734-3410

한국불교 당간지주 '거사들 나섰다'

창간 3 주년

90년 이후 거사림회 창립 잇달아
직장·직능과 더불어 거사불교 중추역

"가장이 절에가면 온가족 불자화"
종단·사찰차원 활성화 지원 필요

한국불교에서는 어느때부터인가 여성신도를 '보살'이라 불러왔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같은 특징은 신라 원효대사로부터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정토불교의 영향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극락에서 파견나온 자비화현의 존재인 '보살'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몸으로만 화현하는 걸까. 거사는 다 어디로 갔나. 조선시대 이래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오랜 전통 탓인지 절에 가면 거사들은 보이지 않고 기도삼매에 빠진 보살들만 보인다.

하지만 80년대부터 거사림법회가 하나둘 생기면서 거사들도 이제는 '기복불교'와 '치마불교'란 편향적인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수행불교' '대중불교'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본지가 조사한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직장법회는 144곳, 직능법회는 46곳으로 파악됐다. 직장·직능법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거사불자임을 감안할 때 거사불교는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찰내 거사림회와 '순수 거사신행결사'인 일반 단체형태의 거사림회 현황은 어떤가.

본지가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4개 사찰 거사림회와 13개 일반 거사림회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년 사이에 거사림회(총 80여개로 추산)가 숫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장기 불황의 여파로 활동이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찰 거사림회가 최초로 생긴 때는 지난 1972년 통도사 부산포교원 (최초의 일반 거사림회는 1965년 대구정법회거사림회)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80년대부터 시작됐다. 80년대 창립된 곳은 모두 10곳이며, 90년대는 30곳으로 늘어나 사찰 거사림 법회가 대부분 90년대 이후 창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봉은사(8월), 남양주시 불암사(4월), 대전 청정선원(2월) 등이 창립돼 거사림 법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정도 해소된 80년대가 거사림회의 태동기라면 90년대는 발전기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불황에도 불구하고 거사림회가 있는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거사림회 활동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천 직지사 거사림은 스님을 대신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서울 성주암에서는 불전함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 광명선원과 제천 한산사에서는 사찰운영과 불교교양대학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등 사내 거사림회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스님들도 거사림회를 믿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사림 법회는 보살위주 법회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사림회의 비중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들은 △지역 사회활동과 사찰내 주요 행사에 도움(9곳) △사찰 불사에 도움(8곳) △용맹정진 등 공부열기 주도(7곳) △연륜과 학식이 높아 정신적 선도(6곳) △가족참여 유도 가능(5곳) 등을 거사림회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또한 거사림회는 7곳을 제외하고는 참선·경전강독 등을 포함한 정기법회 이외에 성지순례, 불우이웃(교도소·군법당 등)돕기, 환경캠페인, 산행, 장학사업, 가탑불사,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불교의 대중화·사회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제천 한산사에서는 시민대상의 불교문화제전을, 대전 청정선원은 아미타상조회 활동을, 광주 자비정사는 불교사업단을 꾸려 대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어려움에 봉착한 곳도 있다. 회원이 줄고있는 사찰은 4곳, 해체된 곳은 3곳, 잠정적으로 활동이 중단된 곳은 2곳으로 조사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거사림회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신도 각자의 참여도를 포함한 '개인적인 신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재·법회공간 등 '사찰 지원' △ 애경사 등 '친목 도모' △법사 양성 등 '종단 지원' 등 종단·사찰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드러냈다.

사찰 거사림회 관계자들은 대체로 "불황이 계속되는한 강분간 활동이 소강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려운 때 일수록 종교에 귀의하려는 욕구가 강하지 않겠느냐"며 낙관론도 펴고 있다.

한편 90년대에 8곳이 창립된 '사찰밖의 거사림회'는 자발적인 조직구성과 유대감으로 사찰소속 법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회 참여율과 활동력이 왕성하다. 사찰 거사림회에 비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 거사림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대 강화로 결속력을 높여 대사회 포교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구정법회거사림회 청주불교금강회 거제불교거사림회 전북불교거사회 등은 자체 회관을 세울 정도로 성장했다. 또 반야라이온스클럽과 부산반야라이온스클럽은 국제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의 헌장을 준수하면서 신행·포교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법무교화사업 등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이 절에 가면 온 가족이 불자가 됩니다." 거사림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거사불교의 성장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희망"이라고 말한다.

김재경·김주일 기자

◇90년대 들어 거사림회를 중심으로 한 거사불교가 용트림을 하고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수계법회 장면.

居士의 의미
법에 귀의한 남자신도 칭호
유마·부설·방거사 등 추앙

거사(居士)는 범어 grhapati의 한역어. 가라월(迦羅越)이라 음역하며, 장자(長者) 가주(家主) 재가(在家)라고도 번역한다.

보통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 살면서 불교에 귀의한 남자신도를 뜻한다. 또 재가 남자의 불명 밑에 붙이는 칭호로도 쓰여진다. 다만 일부에서 거사를 처사(處士)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교사상의 잔재로서 의미상 불교와 관련없는 호칭이다.

재가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하는 재가불교는 인도에서부터 기원했지만, 중국의 명말(明末) 이후 크게 융성했다. 당시 거사불교의 대표자는 팽소승(1740-1796)과 양문회(1837-1911)를 든다.

우리나라에는 신라후기의 부설거사가 유명하며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 당나라 때 방거사와 함께 불교의 3대 거사로 추앙받고 있다. 청나라 팽제청이 거사 227명의 전기를 기술한 〈거사전(居士傳)〉 56권이 전한다.

인터뷰 대구 거사림정법회 이병수 회장

"생활불교 정착에 기여해야죠"
자체회관 운영…장묘사업도 계획



"사회생활하는 거사들의 수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활불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이지요."

지난 1월 우리나라 최초의 거사림회인 대구정법회거사림회의 5대회장으로 부임한 이병수회장(66·법명 법승)은 거사불교의 활성화가 하나의 화두라고 말했다.

同회는 지난 65년 故정주동거사(당시 경북대 국문학과 교수)를 비롯한 10여명의 회원들에 의해 보현사에서 창립됐다. 이들해 당시 조계종 종정 효봉스님으로부터 신행단체등록을 인가받은 후 올해 32돌을 맞기까지 재가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정법회의 현 회원수는 1백50여명. 이들은 대지 2백평 연건평 1백70평 지상3층의 자체회관을 마련,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겨울은 8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정법회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상조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장례원조, 49재원조, 납골당설립등의 단계적 사업계획도 마련해 놓았다.

대구=이윤호 기자

사찰 거사림법회

소속사찰	정기법회	연락처
통도사 부산포교원	매월 둘·셋째 화 오후7시	(051)805-1280
남양주시 불암사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30분	(0346)65-8345
부산 한마음선원	매주 목 오후7시30분	(051)403-7077
안산 영각사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	(0345)498-7700
제주 한마음선원	매월 첫·셋째 목 오후7시	(064)21-4662
강릉 관음사포교당	매월 셋째 토 오후5시	(0391)43-2985
김천 직지사	매월 첫·셋째 일 오후2시	(0547)436-3174
광주 한마음선원	매주 목 오후7시30분	(062)225-0174
광주 자비정사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062)234-0879
분당 장안사	매주 토 오후7시	(0342)703-7766
정토포교원	매주 금 오후7시30분	(02)379-1650
평택 명법사	매월 첫·셋째 일 오전10시	(0333)655-3215
대구 한마음선원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30분	(053)426-2779
대전 영선사	매월 첫째 일 오후6시	(042)523-1144
청주 보문정사	매월 둘째 토 오후3시	(0431)231-0108
대구 공덕원	매월 첫째 금·셋째 월 오후8시	(053)741-0077
인천 마하연포교당	매주 수 오후7시	(032)523-9911
광주 덕명사	매주 금 오후5시	(062)365-0367
광주 연꽃피는 절	매주 수 오후7시	(062)943-0108
대전 청정선원	매주 수 오후7시30분	(042)625-1080
금강정사	매월 첫째 수 오후8시	(02)893-2700
청주 관음사	매주 첫째 월 오후7시30분	(0431)56-6254
염불사	매월 셋째 일 오전10시	(02)938-9395
응선사	매월 둘째 일 오전11시	(02)394-9765
광주 선덕사	매월 셋째 일 오후7시	(062)263-4660
성주암	매주 일 오전6시	(02)877-7180
광명선원	매월 첫째 월 오후7시	(02)584-1108
포항 대성사	매월 16일 오후7시	(0562)47-7563
마산 한마음선원	매주 수 오후7시	(0551)21-5454
웃산 불광사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30분	(02)359-5367
한성포교원	매월 첫·셋째 일 오전10시	(02)207-8296
예산 황천사	매월 11일 오후7시	(0458)35-3556
대구 성화사	매월 첫째 일 오전9시30분	(053)623-8334
봉은사	매주 화 오후7시30분	(02)545-1448
사천왕사	매월 둘·넷째 수 오후8시	(02)939-3900
광주 관음사	매주 월 오후6시30분	(062)223-7666
무진법장사	매주 일 오전11시	(02)932-2333
제천 한산사	매월 첫·셋째 금 오후7시	(0443)46-3047
대성사	매주 화 오후7시30분	(02)583-1475
제주 원명선원	매주 토 오후3시	(054)55-3322
부산 범어사금강암	매월 첫·셋째 토·일 오후5·2시	(051)508-4870
안양 한마음선원	매월 첫째 일 오후2시	(0343)72-3100
금왕 한마음선원	매월 첫째 일 오후2시	(0446)877-0462
아산 한마음선원	매주 화 오전10시·오후7시	(0418)44-1464
울산 한마음선원	매월 첫·셋째 화 오후7시30분	(0522)44-0884
진주 한마음선원	매주 수 오후7시30분	(0591)44-1321
대전 한마음선원	매월 둘·넷째 토 오후6시	(042)532-1481
포항 한마음선원	매월 첫·셋째 수 오후8시	(0562)75-3163
청주 한마음선원	매주 화 오후7시30분	(0431)273-6946
강릉 한마음선원	매월 첫째 일 오후2시	(0391)651-3003

일반 거사림회 법회

단체명	정기법회	연락처
부산불교거사림회	매월 둘째·마지막 화 오후7시30분	(051)894-9389
부산불교유마회	매주 화 오후7시	(051)635-6773
부산불교목우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051)293-7704
거제불교거사림회	매월 둘·넷째 화 오후8시	(0558)687-2777
대구정법회거사림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053)755-1280
안동거사림회·	매주 목 오후7시	(0571)53-4837
구미불교거사림회	매월 첫째 수 오후7시	(0546)54-6756
서귀포 정토거사림회	매월 셋째 일 오전10시	(064)32-8258
청주불교금강회	매주 수 오후7시	(0431)53-3882
전북불교거사회	매월 넷째 일 오전10시	(0652)77-3497
봇디제주중앙클럽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064)48-0108
반야라이온스클럽	매월 셋째 화 오후7시30분	(02)732-0612
부산반야라이온스클럽	매월 25일	(051)761-1908

조계종 삼각산 적멸보궁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 덕 원 ●

아 동 복 지

인 덕 어린이집
인덕휴일 어린이집
수 색 어린이집
개 나 리 어린이집
종 암 어린이집
배 봉 어린이집

노 인 복 지

인 덕 노인복지회관
인 덕 노 인 학 교
인 덕 재가노인복지센타
주 간 보호사업
단 기 보호사업

■삼천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TEL : (02)354-3004, 387-3004
FAX : (02)382-3343

■인덕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38-48
TEL : (02)385-8205-6
FAX : (02)385-8207

● 한 주 여 행 사 ●

제주

♥ 신혼 여행 예약접수 중 ♥

₩179,000

-내역:왕복항공+호텔숙박(2박)+식사+관광
-출발: 매주 화·금요일(금요일 요금변동 있음)

신라호텔	하얏트호텔	오리엔탈·라곤다	제주서울관광호텔
₩320,000	₩270,000	₩219,000	₩199,000

제주 자유여행(통나무집)
· 항공+숙박(월~목요일 出)
· 바닷가에 위치한통나무집별장
· 특전:가족사진무료증정(전지사이즈)
공항·숙소간 수송(밴)
· 2~8인실·소단체환영

불교문화테마여행
· 10/25(무박22:00出)
· 화업사·연곡사 ₩40,000
· 주최: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현대불교신문사(737-8881)
· 주관:'97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

도서감광(항공·열차)
· 울 릉 도 · 홍도·흑산도
· 한려수도 · 거문도·백도
· 경 주 ※단체는 별도요금적용

1. 중국 구화산 수계 산림법회 5일
₩850,000 출발:매주 월
서울/상해/남경(1)/구화산(1)/황산(1)/상해(1)/서울

2.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9일
₩1,500,000 출발:11/2(단 1회)
서울/델리(1)발람푸르(1)/쿠시나가르(1)/파트나(1)
부다가야(1)바라나시(2)/델리/기내(1)/서울

3. 스리랑카 6일
₩990,000 출발:매주 목
서울/콜롬보(1)/플라누와(1)/담불라(1)/콜롬보(1)/기내(1)/서울

할인항공권
델리왕복 ₩560,000부터 콜롬보왕복 ₩640,000부터
랑군왕복 ₩540,000부터 카 투 만 두 ₩710,000부터

공통사항:숙박(일급호텔(2인1실)/항공-이코노미클라스/최소출발10인/김포출발기준
식사(1일3식-기내식포함)/차량-전용버스/1억보험/출발1주전마감/공항세.출국세불포함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9-2
(일반여행업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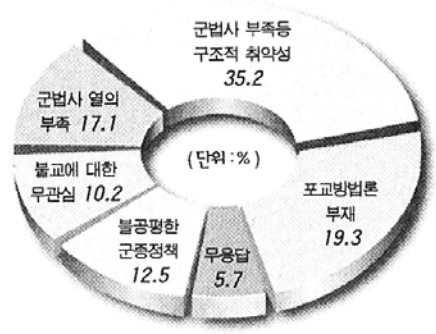
국내 : (02)738-8100
해외 : (02)733-8200, 733-7670

군법당 - 지역사찰 연계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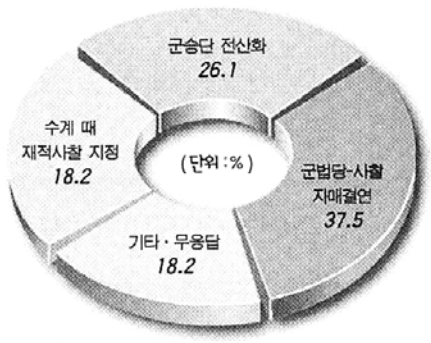
창간 3 주년

군법사 92명(현역 52 · 예비역 40) 응답

군포교는 '황금어장'이란 말에 걸맞게 한국불교의 대중불교 거사불교 생활불교의 터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계장병의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92년 18만7천여명, 96년 15만7천여명) 이에 본지는 군법사 설문을 통해 군포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설문은 현역군법사 117명, 예비역군법사 120명에게 우편발송 했으며, 이 가운데 92명(현역 52, 예비역 40)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한 설문은 중앙승가대 전산실에 의뢰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해 분석했다. 〈편집자 주〉



◇군불자 감소원인



◇전역불자 관리방안

군불자 감소원인 '예산 · 법사부족'
재정빈약 부정기 지원의존 69.3%

군포교를 직접 담당하는 군법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과 재정난, 교계의 무관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는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다가는 타종교의 강화된 군선교전략에 밀려 포교의 황금어장이 빛좋은 개살구격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사 1인에 법당 15곳

과중한 업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법사의 절대 부족이다. 현재 군법사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만 배치돼 있다. 사단 법사가 관할하는 예하부대 법당은 많을 경우 10~15곳에 이른다. 대대급 이하 법당은 군법사의 발길이 현실적으로 미치기 어려워 군종병 관리하에 놓여 있다. 군종병 보수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응답자들은 군법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암과의 협조체제 구축(45.5%)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예비역법사의 활용(23.9%), 재가법사의 활용(15.8%) 순이었다. 전역불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도 군법당-사찰간의 연계(69.3%)를 첫째 방법으로 여겨 군법당-사찰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승가대의 군승사관선발학교 지정에 이어 진각종립 위덕대학의 선발학교 지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19.3%),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야 한다(42.0%)고 밝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61.3%)을 보였다. 현재와 같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한정해야 한다(17.0%)거나 의식이 다르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18.3%)는 이유로 반대한 응답자는 35.2%로 찬성이 반대보다 26%포인트나 높았다.

조계종단 소속이면서도 타종단 군법사 배출을 반대하고 있는 조계종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종단간 경쟁관계를 형성해 군법사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군포교에 득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포교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관련, 거의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다. 신도(또는 장병)들의 보시금(27.4%)과 개인연고가 있는 스님이나 단체, 친지로부터(25.3%)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사찰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사찰이나 단체의 지원은 각각 14.1%, 5.1%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정기적인 지원보다(25.0%) 부정기 지원(69.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많은 군법사들은 법회비용을 개인부담(33.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또는 장병) 보시금은 40.5%, 후원금 23.0%였다. 타종교의 집회 모습 가운데 부러웠던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다수 군법사(71.6%)들이 지역 종교단체의 후원을 들어 불교와 타종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회비용 군승부담 33%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군법사들은 보고 있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몇몇 사람에 한정돼 있다(60.2%)거나 관심이 낮은 편(19.3%), 원력만 있을 뿐(9.1%)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인식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군법사들은 군포교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군승특별교구 및 군포교특별기금 설치를 제시했다.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대한 물음에 63.6%의 응답자들이 특별교구를 설치해 군포교 전반을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행 · 포교 등 군법사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특별교구보다 군승단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8.3%, 10.2%로 나타났다. 취쳐 유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4.5%였다.

그러나 군포교특별기금 설치와 관련, 현재의 군승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3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특별교구 설치와 군승단 강화론이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덕대 군승선발 61%

군법사들은 군내 포교활동을 하며 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과 군법사라는 이중의 신분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나(가끔 경험 46.6%, 자주 경험 27.3%), 지휘자가 특정종교를 강요한다면 불복하거나(60.2%)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설득하겠다(35.2%)고 답해 강한 호법의지를 보였다.

군의 '1인 1종교 갖기 운동'에 따른 특정종교 강요사례를 직접(45.5%) 또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으나(47.7%), 이 운동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폐단(46.6%)보다는 운용상의 문제(46.6%) 또는 부작용이 있으나 바람직하다(6.8%)고 답했다. 이는 군내에서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 없으면 사병들의 종교접촉 기회가 대폭 없어져 결국 불교는 물론 다른 종교의 포교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종제도 가운데 1인 1종교 갖기 운동의 획일적 추진 및 종교별 신자수를 고려치 않은 군종제도의 운용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군불자 감소(92년 18만7천여명, 96

공청회서도 찬반 팽팽… 포교원 종헌관련 「신중」 입장

본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절반이 훨씬 넘는 63.6%의 응답자들이 특별교구를 설치해 군포교 전반을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승특별교구는 94년 9월 군승단(당시 군승단장 강남석법사)이 '군승특별교구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론화됐다.

이때 발표된 '군승특별교구 추진 방향'에 따르면, 군승특별교구는 현역 및 예비역 군법사, 장사병불자, 군법당 등을 관할하며, 군포교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교구본사의 지위를 부여받아 주지 및 종회의원을 배출한다. 재정확보는 지원사찰을 지정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취처, 유발, 재정미약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군승단은 군승특별교구 설치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군승단의 한 간부 군법사는 "군포교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며 "교구가 될 경우 특별교구 주지는 현역군법사가 유

쟁점 떠오른 군승특별교구

발인 점을 감안, 예비역군법사 가운데 중진 스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아직 군승단측에서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는 포교원만의 사안이 아니라 총무원 교육원과도 연계된 종단전체의 사안이며, 종헌종법의 개정 등과도 맞물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승단 발전을 위한 논의는 언제든지 좋다고 밝혔다.

군승특별교구 추진 공청회 때 특별교구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던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보광스님은 "군승의 위상은 철저한 수행과 군승본연의 자세가 바르게 확립되었을 때 스스로 격상될 것"이라며 "군승단의 화합과 교육, 자질향상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많은 종도들이 다시 군승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승단내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 영관급 군법사는 군승특별교구보다는 종단연합의 군승단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 군법사는 "군승사관선발학교로 위덕대 포함여부가 논의되고 있고, 만약 위덕대도 군승선발학교로 지정된다면 조계종단만의 군승단이 아닌 종단연합의 군승단으로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되면 재정문제도 해소되고,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군종법사들이 군포교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

장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해외성지순례의 명문

- 인도 · 네팔 · 태국, 스리랑카
- 티벳 · 실크로드 · 중국
- 파키스탄 · 미얀마 · 대만
- 인도네시아 · 몽고 · 캄보디아
- 라오스 · 베트남 · 부탄

성지순례에서 돌아오는 길-
저마다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명문여행 (051) 462-1231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9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본부장 박 원 재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91-9 ■ 전 화 : 062)653-0048

광주불교 산악회

회 장 이 재 삼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587-20
■ 전화 : 062)676-4337

광주광역시 불교사암연합신도회

회 장 이 연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부각사 內)
■ 전화 : 062)376-3225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 주 사

주 지 혜 광
대중 일동

■ 주소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 전화 : 0433)43-3615
■ FAX : 0433)43-3620

대한불교 조계종 **선 원 사**

조 실 선 산
주 지 성 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신도회일동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 주 소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1-1
■ 전 화 : 032)934-8484
032)933-8834
032)933-8236

대한불교 조계종 **원 효 사**

주 지 현 지
사부대중 일동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 전 화 : 062)266-0326

한국불교원각종
호남종무원장
강진옴천사 주지 석 정 암
덕은불교대학

■ 주소 : 전남 강진군 옴천면 391
■ 전화 : 0638)33-2233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관음성지 낙가산
보 문 사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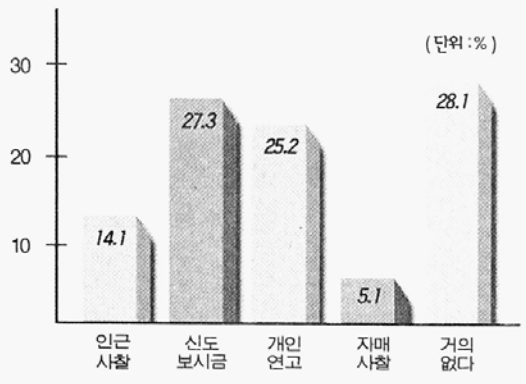
■ 주소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 전화 : 032)933-8271~3
■ FAX : 032)933-8270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연포교원
금강불교대학

주 지 일 지
신도회 거사림회

■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42-69
■ 전화 : 032)523-9911
■ FAX : 032)511-6194

군승특별교구 설치 64%



◇재정확보 현황

년 15만7천여명)의 원인에 대해서 현역군법사들은 절반이 넘는 53.3%의 응답자들이 군법사 부족 등 군 포교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고 보는 반면, 예비역군법사들은 군법사들의 열의부족(28.9%)과 포교방법론 부재(23.7%)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현역과 예비역의 견해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35.2%의 응답자가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이 있다고 답한 반면 젊은이 대상의 포교방법론 부재(19.3%), 군법사들의 열의 부족(17.1%)을 원인으로 꼽았다.

군법사들은 또 수계장병들의 전역 후 불자화가 안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전역 후 관리를 위한 군법당과 사찰과의 연계가 안되기 때문(69.3%)이라고 지적했다. 수계 이후 심화된 불교공부가 없기 때문, 군 특성상 일시적인 불교귀의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5.9%, 10.3%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법당-사찰간 자매결연 등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전역불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37.5%)고 응답했다. 군승단의 전산화(26.1%), 수계 때 재적사찰을 정하는 방법(18.2%)도 제시됐다.

한편 군법사들은 전역 후 스님으로 수행·포교(29.5%),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소임을 맡아 활동(21.7%), 포교원을 설립(19.3%)해 불교활동을 계획하거나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와 무관하게 취직 또는 사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10.2%로 대부분 불교활동에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종교 강요 경험 94%
전역불자 관리대책 급선무

정성운 기자

"부처님 가피로 가뿐한 병영생활"

원주 1군사령부 법웅사 탐방

10월8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도심속에 위치한 1군사 법당 법웅사(주지 조길조)대웅전. 초가을 밤의 냉랭한 바깥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법당안은 원주지역 군장병불자 4백여명의 불심 열기가 가득하다.



◇매주 수요일 저녁 봉행되는 정기법회. 1군지역 사병불자들이 참선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지역 장병 4백여명 신행요람
부대별 방문 '소법회' 3년째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마친 후 한영규(1군지사) 법사가 '무명을 벗어나는 길'이란 주제로 설법하고 있다. "무명을 벗어나 밝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길은 자기 성찰을 통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반성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1시간 동안의 법회가 끝나자 한법사는 신도들과 함께 마련한 과자와 음료수 등을 나눠주며 병사들을 격려한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김도완 상병은 "군생활중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불법은 많은 용기를 준다"며 "불자로서 계속 정진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법웅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어 일요일 오전에도 장병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수요법회는 불자들이 갖춰야 할 교리, 의식, 예절 등을 교육하는 사병위주의 법회. 일요 정기법회는 부처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주로 법문하며 군간부와 민간신도들도 참석한다.

94년 1군지사에 부임한 한영규 법사는 정기법회에 매주2회씩 참여하는 사병불자들과는 달리 바쁜 일과로 법회동참이 어려운 간부불자들을 직접 찾아가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 1군지사 회의실에서 30분간 소법회를 3년째 주재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영규법사는 "군내에서 타종교에 비해 수적인 열세에 있는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수준과 특성에 맞는 개별방문 포교를 해야 한다"며 능동적인 포교전략을 강조했다.

한편 법웅사는 군법회 이외에도 육군교도소 위문과 복지단체 봉사활동을 비롯 어린이 및 중·고등부법회, 청년회법회, 대불련법회, 부부동반 법등자비회법회, 거사림 정각회법회, 정년퇴직불자들을 위한 성법회법회 등 매주 10차례의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원주지역 불자들의 신행센터로 톡톡히 역할하고 있다.

원주=김주일 기자

설문내용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1. 월 평균 법회 횟수는? 15회
2. 월 평균 상담 횟수는? 13회
3. 월 평균 위문법회 횟수는? 5회
4. 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과 군법사라는 이중의 신분 때문에 갈등을 겪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자주 경험(27.3) ②가끔 경험(46.6) ③특수한 경우일 뿐이다(19.3) ④없었다(6.8)
5. 만일 지휘자가 자신의 특정종교를 강요한다면?
   ①복종할 수밖에 없다(4.5) ②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설득하겠다(35.2) ③있을 수 없는 일로 불복하겠다(60.3)
6. '1인 1종교갖기' 운동에 대한 견해는?
   ①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폐단이 있다(46.6) ②운용상의 문제라고 본다(46.6) ③부작용이 있으나 바람직하다(6.8)
7. '1인 1종교갖기' 운동 때문에 불이익·불공정 사례를 경험하거나 주위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직접 경험했다(45.5) ②그런 사례를 들었다(47.7) ③경험하지도, 들어본 적도 없다(5.7) ④무응답(1.1)
8. 현행 군종제도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은?(복수응답)
   ①지휘부의 운용개입 태도(9.3) ②지원예산의 부족(28.5) ③1인 1종교갖기의 획일적 추진(7.1) ④종교별 신자수 추세를 고려치 않는 운용(9.3) ⑤법회 장소의 부족(6.5) ⑥법사 부족(27.6) ⑦신행활동 시간의 부족(2.8) ⑧교재 부족(8.9)
9. 군포교활동의 재정지원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①인근 사찰(14.1) ②신도(장병) 보시금(27.4) ③개인 연고(스님, 단체 또는 친지)(25.3) ④자매결연 사찰·단체(5.1) ⑤거의 없는 편이다(28.1)
10. 재정지원 방식은?
    ①정기(25.0) ②부정기(69.3) ③무응답(5.7)
11. 법회 운용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①부대 예산지원(3.4) ②후원금(23.0) ③신도(장병) 보시금(40.5) ④개인 부담(33.1)
12. 법회시 설법자료는 주로 무엇을 활용합니까?
    ①경전 및 불서(69.4) ②불교계 신문 및 잡지(17.0) ③일반서적·잡지(13.6)
13. 현재의 군법사 부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①지역 사암과 협조(45.5) ②예비역법사의 활용(23.9) ③재가법사의 활용(15.8) ④군종병의 활용(5.7) ⑤군법사 확충(5.7) ⑥무응답(3.4)
14. 타부대와 달리 귀하의 부대만의 특성을 살린 법회 또는 모임이 있습니까?
    ①참선법회(5.7) ②교양강좌(21.6) ③독경대회(8.0) ④준비는 하고있지만 현재는없다(31.8) ⑤기타·무응답(32.9)
15. 타종교의 집회 모습이 부러웠다면, 어떤 점이 그랬습니까?
    ①참여 장병이 많은 것(12.5) ②지역 종교단체의 후원(71.6) ③군부대의 지원이 많은 것(1.1) ④집회장소가 불교에 비해 좋은 것(8.0) ⑤무응답(6.8)
16. 타종교 군목사 군신부와의 관계는?
    ①자주 만나나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19.3) ②자주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눈다(39.7) ③의례적으로 만날 뿐이다(33.0) ④서로 경쟁관계라고 생각한다(8.0)
17.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처에 대해 견해는?
    ①군법사의 입장을 고려치 않아 어려움을 가중(11.3) ②적절한 대처였다(58.0) ③미온적이었다(17.0) ④해당자의 인사조치는 가혹했다는 군내의 여론이 있었다(5.7) ⑤무응답(8.0)
18. 과거 군내 헤쳘사건에 군법사들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견해에 대해?
    ①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한다(39.8) ②군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27.3) ③적절한 대응이었다(17.0) ④진급 등 현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10.2) ⑤무응답(5.7)
19. 군불자 감소(92년 18만7천여명, 96년 15만7천여명)의 원인은?
    ①군법사들의 열의 부족(17.1) ②젊은이 대상의 포교방법론 부재(19.3) ③군법사 부족 등 군포교의 구조적 취약성(35.2) ④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무관심(10.2) ⑤군내의 불공평한 군종정책(12.5) ⑥무응답(5.7)
20. 수계장병들의 전역 후 불자화가 안되고 있는 원인은?
    ①군 특성상 일시적인 불교귀의가 일반적이기 때문(10.3) ②수계 이후 심화된 불교공부가 없기 때문(15.9) ③전역 후 관리를 위한 군법당과 사찰과의 연계가 안되기 때문(69.3) ④무응답(4.5)
21. 전역불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①군승단의 전산화가 급선무다(26.1) ②수계 때 재적사찰을 정한다(18.2) ③군법당-사찰간 자매결연을 맺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37.5) ④기타·무응답(18.2)
22. 스스로의 포교활동을 자평한다면, 몇 점(10점 만점)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①1~3(6.8) ②4~6(34.1) ③7~8(48.9) ④9~10(6.8) ⑤무응답(3.4)
23.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대한 견해는?
    ①특별교구를 설치해 군포교 전반을 관장(63.6) ②취처 유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4.5) ③수행 포교 등 군법사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18.3) ④특별교구보다 군승단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10.2) ⑤무응답(3.4)
24.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 정도에 대한 견해는?
    ①원력만 있을 뿐(9.1) ②인식은 높은 편(9.1) ③관심이 낮은 편(19.3) ④관심이 몇몇 사람이나 단체에 한정(60.2) ⑤무응답(2.3)
25. 군법사의 활동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①승단차원의 지원 확대(47.7) ②불자들의 인식전환(10.2) ③군법사의 자질 향상(26.2) ④전역 후 일자리 보장(12.5) ⑤무응답(3.4)
26. 군법사 선발대상에 위덕대학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위덕대학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19.3) ②의식이 다르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18.3) ③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야 한다(42.0) ④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에 한정(17.0) ⑤무응답(3.4)
27. 군포교특별기금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가급적련을 위해 지원사찰을 지정(28.4) ②군승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31.3) ③군법당 관할 교구에 지원예산을 권장(29.5) ④종단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다(4.5) ⑤무응답(6.3)
28. 예비역군법사의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①사찰의 상임포교사로 우선 임용(55.7) ②총무직 임용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12.5) ③포교원 개원시 지원(11.4) ④무응답(20.4)
29. 전역 후 불교활동 계획은?
    ①스님으로 수행·포교(29.5) ②포교원 설립(19.3) ③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소임을 맡아 활동(21.7) ④불교와 무관하게 취직 또는 사업(10.2) ⑤무응답(19.3)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명예회장 월 탄
고 문 호진, 지하. 직전회장 암도
회 장 혜 총
수석부회장 원 성
부 회 장 장산, 일우, 지홍, 삼지
감 사 정덕, 일면 장학포상분과위원장 월탄
기획실장 동 성 총책연구분과위원장 보광
사무총장 지 원 통일인권분과위원장 진관
총무부장 도 광 포교연구분과위원장 성열
섭외부장 이 정 복지문제분과위원장 시현
조직부장 도 진 재가법사분과위원장 원명
재무부장 종 림 동국학원중흥위원장 원성
문화부장 상 덕 동국학원중흥부위원장 법장
사무국장 선 종 동국학원중흥위간사 법안
■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동 1506호 ■ 전화 : 02)723-5264/736-6203 ■ FAX : 736-2365

대한불교조계종
소림정사
주지 옥룡자
소림불교아카데미
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일동
■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번지 ■ 전화 : 02)511-6210~6

대한불교조계종
수안사 (수안불교대학)
주지 박세민
◆ 수안불교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 모집 ◆
· 이지관큰스님(금강경)
· 목정배 교수(한국불교문화사)
· 권기종교수(기초불교교리)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12 ■ 전화 : 02)587-4677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 · 자연당 ·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 · 선관삼매수련 ·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을 무상배포 드립니다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 명신인쇄 ●
■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관동 136

● 성불불사 포교원 ●
석가세존 일대기
팔상록 · 부모은중경(금강경, 반야심경)
8폭병풍 보급중
■ 전 화 : 02)831-2848~9
■ 수신자부담 : 080)284-2848
■ FAX : 02)831-2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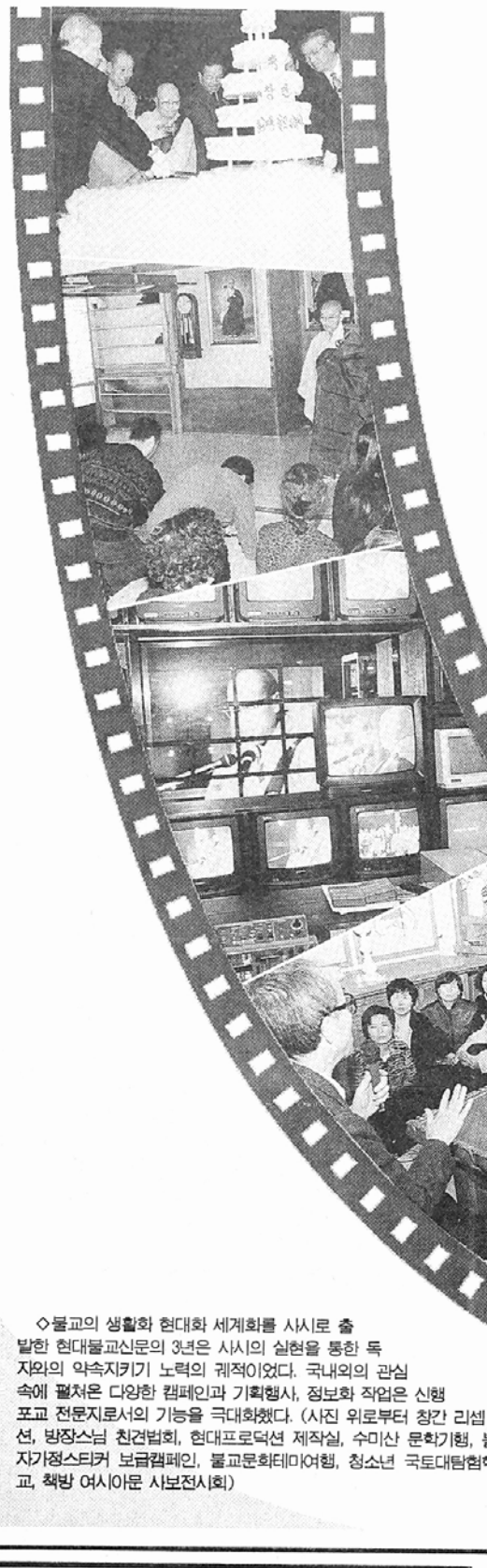
부산불교운전기사회
9주년 기념
회장 백봉도
임원일동
■ 전화: 051)624-2207

● 인 컴 ●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1213-40

● 정경기획 ●
■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5-6

현대불교 3년

기다려지는 신행지 '자리매김'



10월 15일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3주년을 맞았다. 바쁘게 달려 온 지난 3년을 돌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걸고 창간한 현대불교는 바로 이 사시를 실현하는 것이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16면 체제로 출발, 3년사이 24면으로지면을 확대한 현대불교는 그간 '일주일 내내 살아 있는 신문' '또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불교의 생활화라는 약속은 획기적 지면 구성과 다양한 기획 행사로 실천해 왔다. 무엇보다 폭넓은 신행활동의 기회제공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기획행사를 실시하며 지면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약속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정보전산화 작업과 영상화 작업으로 실천해 왔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인터넷상의 불교정보 제공으로 96년 5월 미국의 유명 정보검색 기관인 '링크스타'로부터 "한국불교를 전해주는 사이트 중 가장 우수하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부다피아를 통한 교계 각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인터넷에 대한 불자들의 참여 열기를 선도함으로 21세기불교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지난 3년 우리는 독자 제위와의 약속 실행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사시의 실천'을 중심으로 돌이켜 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지고자 한다.

약속지키는 신문…주 24면

'불자가정스티커' 30만여장 배포
95년 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신행담 공모·테마여행등 행사 다채

캠페인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95년 한 해 동안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와 연계해 각종 문화행사와 홍보스티커 보급.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95년 1월부터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 참다운 불자가 되는 길 안내.

△불자가정 스터커 붙이기: 95년 5월부터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문안이 새겨진 스티커 불자가정과 차량및 각 단체에 30여만매 부착.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9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경부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운동 전개.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 1백만인 서명운동 서명자 명단 공개. 고속철 경주노선 수정의 원동력이 됨.

△새싹 불자를 키우자: 96년 한해동안 어린이 포교의 현장 과제등 집중 보도.

△참회의 삶을 살자: 97년초부터 현재까지 매주 1면에 저명인사들의 참회하는 삶의 이야기 연재. 11월 1일 2일 도선사서 참회의 3천배정진법회 개최 예정.

△한구좌 1천원, 그늘진 곳에 법보시를: 97년 7월부터 현대불교 법보시 캠페인 실시. 97년 10월 현재까지 4천여구좌 동참.

행사·사업

△신행담 공모: 94년부터 매년 불자대상 신행담 공모및 수상. 입상작 지면에 연재.

△출가 열반절 기념 강연: 95년 3월 10일, 14일 정락스님과 고은 시인이 강연.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 95년 10월 15일부터 4회 실시. 1천여명 동참.

△아빠와 함께 남한산성 걷기대회: 96년 5월5일 가정의달과 어린이 날을 기념해 개최. 50여 가족 동참.

△부다피아 '서울시 공공 DB민원안내 시스템 구축' 용역 낙찰: 공중전화망과 컴퓨터를 이용해 민원 접수및 시정관련 업무처리 기능 개발.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 96년 10월 3일 경주 남산서 문화재 사랑운동.

△연재소설 '수미산' 현장 무욕도 문학기행: 96년 10월 26일 작가 고은선생과 함께 무욕도 간월암 기행.

△문화유산의 해 기념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후원으로 매월 실시. 9월까지 1천5백여명 참여.

△새싹불자 무료 도서보급: 97년 7월 어린이 불서 1만2천권 무료보급.

△청소년 국토 대탐험 학교: 97년 7월 3차에 걸쳐 실시. 1백50여명의 청소년 동참.

△포교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PCS 016사업 전개: PCS 016 관매로 이용자의 통화료 5%를 포교·이웃돕기 기금으로 예치.

정보센터 부다피아

△현대불교 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95년 6월 1일 부다피아팀을 발족해 불교 정보 종합센터 구축.

△부다피아 BBS개통: 95년 8월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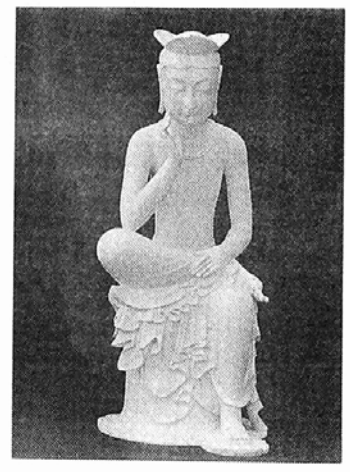
△영상 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설립: 96년 2월1일. 고승법회 중계 및 법문 영상물 제작. 포교 복지 근로자 위한 영상물등 제작.

△부다피아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96년 3월1일. 인터넷상에 불교 정보 및 현대불교 기사 제공.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 가동: 96년 4월 18일. 전국 봉축행사 인터넷에 제공.

△불자 인터넷 무료교육 실시: 96년 10월 17일부터 3회. 120여 불자 인터넷 교육.

임연태 기자



데생용 반가상 585점 보급

"중·고생 한국혼 교육"

현대불교가 펼친 캠페인사업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사업은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보급' 사업이다.

중 고등학생들이 미술시간에 서양의 아그리파나 줄리앙을 모본으로 데생 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우리민족 특유의 곡선미를 통한 민족의 얼과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 준다는 취지로 실시된 이 사업은 중앙및 지방언론 20여곳이 집중 보도한데서도 그 반향의 폭을 가늠할 수 있다.

96년 한해동안 실시한 이 사업을 통해 현대불교는 전국 3백 6개 중교교 대학교에 5백85점의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했다.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립중앙박물관소장)을 실제크기와 70%축소 모형으로 석고의 질감을 주는 섬유유리강화소재(FRP)로 특수 제작했다.

이 사업이 알려지자 많은 독자들이 모교에 기증하기 위해 신청을 해 왔고 스님들이 오지의 학교에 기증해 달라며 동참하기도 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며 문의를 한 학부모도 있었고 개인 소장이나 미술학원용으로도 보급해 줄 것을 주문하는 전화도 적지 않았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출발한 현대불교신문의 3년은 사시의 실현을 통한 독자와의 약속지키기 노력의 궤적이었다. 국내외의 관심속에 펼쳐온 다양한 캠페인과 기획행사, 정보화 작업은 신행포교 전문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했다. (사진 위로부터 창간 리셉션, 방장스님 친견법회, 현대프로덕션 제작실, 수미산 문학기행, 불자가정스티커 보급캠페인, 불교문화테마여행, 청소년 국토대탐험학교, 책방 여시아문 사보전시회)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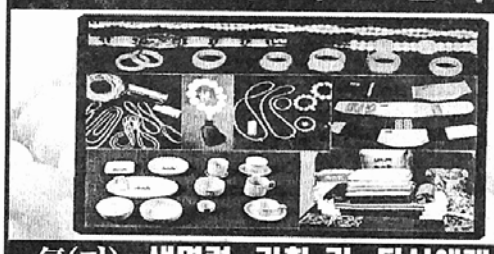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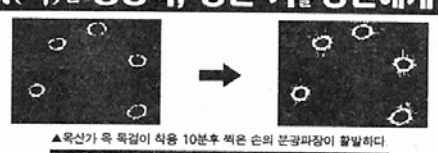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증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찝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건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렌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분점 습무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큰기술 PCS 016 세상-

PCS는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에게 맡겨주십시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최고 PCS 016은 최고의 전문 기술과 최적의 통신망 설계로 가장 뛰어난 통화품질을 제공합니다.

최저 PCS 016은 10초당 19원으로 이동전화중 통화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無 PCS 016은 보증금이 없으며 실속있는 38가지 부가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8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